금주의 법구–〈법구경〉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2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1월 18일)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보살행 진력한 정관 대종사 마지막 가시는 길

보살의 삶을 실천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영결식이 1월 30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해 대종사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사진은 대종사의 법구를 다비장으로 이운하는 모습. **사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승려복지 업그레이드할 '스님 전문 요양병원' 개원한다



조계종은 1월 30일 의료법인 인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1월 30일 인덕원과 MOU
'파라밀 요양병원' 종단 직영 합의
'아미타 불교요양병원' 명칭 변경
새 이사장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

각현 스님의 연꽃마을 설립으로 시작돼 월탄 대종사의 승려복지에 대한 원력, 성운 스님의 보현행원으로 조계종 대표 요양기관으로 성장한 의료법인 인덕원 파라밀 요양병원이 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스님 전문 요양병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료법인 인덕원(대표이사 성운)과 업무협약을 맺고 파라밀 요양병원의 종단 직영전환에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파라밀 요양병원은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운영하며 명칭도 '아마타 불교요양병원' 으로 변경된다.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파라밀 요양병원은 2008년 7월 故 각현 스님의 원력으로 개원한 불교계 요양병원이다.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 대지 25,525㎡(7721평)에 병원면적 8,492㎡(2568평)로 지하1층, 지상6층에 총 145병상 31실(최대 198병상 확보 가능)로 양 · 한방 전문 진료기능을 갖추고 있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공약이었다.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스님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요양병원을 종단에 희사하기로 하고 지난해 연말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해왔다. 종단은 당초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운 스님의 희사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을 예상보다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조건 없이 요양병원을 종단에 희사한 성운 스님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승려 노후가 안정돼야 포교에 전념할 수 있고 종단 안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면서 "설립자 각현 스님과 성운 스님의 큰 뜻을 존중, 원활한 운영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운영에 나섬에 따라 법인 이사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는다. 이사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 교구본사주지 협의회장 정도 스님,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 전국비구니회 정관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봉은사 총무국장 향림 스님으로 구성됐다. 감사에는 재무부장 우화 스님과 김봉석 변호사가 참여한다.

협약식에 앞서 승려복지회장인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기획실장 성화 스님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승려복지회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시스템이 완료되면 5월초 부처님오신날을 전후에 개원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임종까지 승가의 위의와 존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불교 전통 다비장 설치 ·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권역별, 교구별 다비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모범적 사례를 수집해 시설과 의례의식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단과 사찰에서 장례 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할 수 있으며, 종단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전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종단의 원력사업에 힘을 보내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흔쾌히 종단에 병원을 희사하는데 동의한 전임 이사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승려복지회장 호산 스님은 "성운 스님의 큰 뜻으로 종단 승려복지가 10년은 앞당겨졌다"면서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노후에 승가의 위의를 지켜면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된 승려복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존중' 기치로 '붓다의 길' 걷는다

키워드로 미리 본 상월결사 인도순례

부처님처럼 43일 '정진'
'중흥' 염원 하나로 모아
국민 '화합'과 사절 역할
'평화·생명' 활동 예고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월결사 인도순례가 '생명존중' 의 대사회 메시지 속에 진행된다. 수행과 전법포교, 생명존중과 세계평화라는 큰 굴레 안에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기 위한 43일간 1,167km의 대장정이 곧 펼쳐진다.

정진 상월결사는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대작불사다. 상월결사는 △사부대중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세계만방 평화결사의 4대 선언 하에 진행되고 있다. 인도순례는 이러한 4대 결사 선언이 이뤄지지만, 이 중 특히 정진결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 순례 기간에는 '부처님과 함께 걷는다' 라는 일념으로 매일 정진이 이어진다. 각 숙영지에서는 새벽 2시 도량석에 이어 칠정례 예불과 발원문 합송이 진행된다. 순례단 선두에는 한국에서 모셔간 부처님상이 이끈다. 사부대중이 조별로 돌아가며 이 부처님상을 모시고 행선할 예정이다. 숙영지에서는 매일 108배와 함께 이산혜원선사의 발원문이 합송된다.

중흥 불교중흥을 위한 불자들의 염원도 하나로 모인다. 먼저 출국일인 2월 9일에는 조계사에서 고불식이 봉행된다.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가 직접 순례단을 격려하는 법문을 내리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1000여 불자들의 환송 속에 순례단은 인도로 향한다. 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의식도 각 성지마다 펼쳐진다. 2월 11일 바라나시 녹야원 입재법회 후 2월 22일 마하보디사원에서 세계평화 기원법회, 2월 25일 라지기르 영축산에서 법화경 독송법회, 3월 9일 열반지 법회 및 가사공양의식, 3월 20일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는 금강경 봉정과 공양의식이 진행된다. 순례단이 거쳐가는 나란다대학에서는 종립 동국대가 새롭게 문을 여는 나란다대학 측과 공동으로 6개국 학자들이 동참하는 '순례'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순례 도착에 맞춰 동국대는 나란다대학과 자매결연도 맺을 예정이다. 한국불교중흥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다시금 불교가 융성하기를 발원하는 자리다.

화합 이번 순례는 한국과 인도 간 외교관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우의를 높이는 기폭제도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순례단을 응원하기 위해 2000 여명의 한국불자들이 인도를 찾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인도정부에서도 높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답사를 통해 인도정부 측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다. 2월 6일에는 인도 현지에서 기자회견도 열렸다.

아밋 쿠미르 주한 인도대사 등이 정초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한데 이어 2월 2일에는 외교부에서 제2차관 주재 하에 '조계종 인도, 네팔 성지순례 최종 점검회의' 를 열고 순례단의 사절단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한국 · 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서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화 1월 31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준비모임에서는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 슬로건이 발표됐다. 구체적인 표어는 '생명아 널 사랑해' 로 젊은 세대들도 생명존중에 대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했다. 상월결사 측은 인도 순례 전부터 국난극복을 위한 자비순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세계평화 등을 발원하는 평화방생순례 등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 이러한 메시지는 상월결사가 인도순례로 끝나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서의 실천까지 전개됨을 예고한다.

상월결사 대변인 종호 스님은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인도에서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수행"이라며 "순례단은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발원하며 붓다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 총림 방장 동안거 해제 법어 6면

가사불사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
袈裟佛事 生前豫修齋
스님들께 법의를 공양 올리고 스스로의 사후공덕을 미리 닦는다

가사불사
입재 2월 27일 월요일 (음 2. 8) 오전 10시
회향 4월 9일 일요일 (음 윤 2. 19) 오전 10시
동참금 스님지정 70만원, 대가사 10만원, 오조가사 5만원
※ 스님을 지정하여 가사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생전예수재
입재 2월 27일 월요일 (음 2. 8) 오전 10시
회향 4월 16일 일요일 (음 윤 2. 26) 오전 8시
동참금 설판 100만원, 동참 5만원 / 망 설판 10만원, 영가 1위 1만원

입재	2월 27일 월요일 (음 2. 8) 도솔래의상 법문(출가재일)	현문스님 통도사 주지
3재	3월 19일 일요일 (음 2. 28)	법산스님 前 동국대 이사장
5재	4월 2일 일요일 (음 윤 2. 12)	덕문스님 통도사 율주

※ 초재 · 2재 · 4재 · 6재 · 막재는 법문이 없습니다.
문의 · 기도 접수처(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종회의원 성원 스님 임명

진우 스님, 2월 1일 임명장 수여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 등 조계종 핵심 종책을 담당하는 미래본부의 사무총장에 중앙종회의원 성원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미래본부는 종단이 추구하는 미래불사를 기획 ·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미래본부가 종단 미래를 여는 창구인 만큼 이를 이끄는 사무총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성원 스님께서 역량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원 스님은 1993년 혜인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고 총무원 사회국장, 약천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신제주불교대학 학장, 자광원 원장이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무원스님 "명락사에 다문화센터 건립 추진"

1월 31일 천태종 총무원장 신년기자간담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1월 31일 서울 양재동 관문사 3층 회의실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무원 스님의 신년계획 발표 모습.

대충스님 탄신 1백년 준비위 구성
천태국제다문화센터 올해 설계 등
지하 4층, 지상 7층 약7천평 규모
'주경야선' 수행 활성화 등 추진해

대한불교천태종은 올 5~6월 경 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명락사에 '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1월 31일 서울 양재동 관문사 3층 회의실서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자성 밝혀 만인과 소통하고 공생할 수 있는 세상 만들자'를 올해 천태종 종무 기조로 정하고, 주요 사업으로 '대충대종사 탄신 100주년 준비위원회' 구성과 '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무원 총무원장 스님의 은사이기도 한 대충 대종사(大忠 · 1926~1993) 탄신 100주년은 2026년 1월 23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무원 총무원장 스님은 "남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이 3년 뒤에 도래하는데, 이에 앞서 대종사님을 추모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준비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라며 "'자성을 밝힌다'는 올해 종단 기조도 제가 출가 당시 종정이던 대충 대종사에게 들은 가르침과 일맥 상통한다. 당시 '도(道)를 어떻게 닦습니까'라고 질문하자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하나만이라도 잘 쓰는 것이 바로 도를 잘 닦는 길'이라고 답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원 스님은 "준비위원회를 통해 대충대종사 생전 법어와 가르침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전 수행 모습 등을 사진 자료로 정리하는 등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세에 구인사서 출가한 남대충 대종사는 계행이 엄정하고 덕행이 돈독했으며, 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받드는 상수제자로 불철주야 수행정진에 매진했다. 1974년 7월 2일 천태종 2대 종정에 취임한 뒤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천태종의 비약적인 발전과 중생 교화에 진력했다. 이후 1993년 9월 3일 세수 69세 법랍 48세에 원적에 들었다.

또한 무원 스님은 '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를 서울 관악구 봉천동 명락사에 건립 추진하는 것을 또다른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명락사는 무원 스님이 주지를 맡던 지난 2009년 국내 최초의 '다문화 사찰'로 선포하고 다문화 포교에 앞장서 왔던 다문화포교의 원찰이라고 할 수 있다. 3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될 '천태국제다문화센터'는 지하 4층, 지상 7층에 연면적 약 2만3천㎡(약 7천평)규모이며, 예산도 400억원~5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특히 5층 정도에는 다문화 법당을 만들어 불교국가의 각나라 마다 특징있는 불상을 직접 현지서 이운해 전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무원 스님은 "다문화 센터가 완공되면 한국서 일하는 불교국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나라 불상을 모시고 종교 활동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천태종은 지난해 이어 올해 지속 사업으로 △'천태지관차법'의 전승 △ESG경영 선도 △어린이 · 청소년 대상 역사탐방 △제2회 천태문학상 공모 △ 평화통일 위한 제2회 임진각 통일문화제 △위드코로나 시대 '주경야선(낮에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하고, 저녁에 사찰에 모여 새벽까지 수행정진하는 수행)' 수행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천태종 재가불자들은 여름과 겨울 각 한달간 구인사와 전국사찰서 안거에 드는 독특한 수행종풍을 이어어고 있으며, 이 기간외에도 각 사찰별로 '백만독 관음정진'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교육아사리 신규 위촉 응용불교 분야 등 7명

혜일 스님, 2월 2일 위촉식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2월 2일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불교사 분야인 무진 스님은 중앙승가대에서 문화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문불전 분야인 서담 스님은 동국대에서 한문불전번역 전공으로 박사를 수료했다. 대승불교 분야인 진석 스님은 동국대에서 불교학으로 박사를 수료했으며, 선불교 분야인 진본 스님은 동국대에서 선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응용불교 분야로는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구담 스님은 동국대에서 영화기획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법본 스님은 동국대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자헌 스님은 응용불교학을 전공해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 "참회 우선… 종단 협조 주지 선출"

2월 1일 진각스님 명의 입장문
주지 선출 논란 관련 해명해

해인사가 주지 현응 스님의 범계 의혹으로 불거진 주지 선출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종단 협조 하에 주지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인사는 2월 1일 총무국장 진각 스님의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일련의 사태에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다.

해인사는 "주지 현응 스님의 범계(犯戒) 의혹 등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불자님께 깊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인사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다시금 청정 수행가풍을 이어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주지 선출 루머에 대해서는 현응 스님의 범계가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해인사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해인사의 후임 주지와 관련한 본질은 전임 주지스님의 범계행위로 발생한 것이기에 해인총림은 전임 주지스님에 대하여 산문출송을 결의하고 참회 중에 있다"면서 "참회가 우선이지 주지 선출이 우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인총림은 이러한 근신과 참회 후 총림대중의 의견과 종단의 협조 하에 여법하게 후임 주지를 선출하고자 한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과 호법부의 조사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인사는 "총림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서릿발 같은 해인사 역대 조사님들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해인총림의 위상을 되찾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으로 보낸 공문에서 "주지로 추천한 원타 스님이 추천 철회를 요청해 지난 1월 17일 접수한 해인사 주지 추천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1월 30일자로 종단에 해인사 원타 스님 주지 추천 철회 공문이 접수되어 주지 임명 절차 관련 논란들은 해소됐다"면서 "2월 3일 예정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현응 스님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 주지 직무대행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사 '계층 포교 활성화' 팔 걷는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신년 회견
42인조 어린이 오케스트라 준비 중
3월부터 직장인 명상프로그램 운영
주변정비 통해 총본산 성역화 추진
오는 3월 3일 동양금박 건물 철거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주지 지현)가 어린이, 청소년 등 계층포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조계사 일주문을 가리고 있던 동양금박 건물 철거 등 사찰 주변 정비를 통한 총본산 성역화 불사도 본격화된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1월 31일 템플스테이 홍보관 3층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사진>

지현 스님은 '이웃과 함께하는 조계사'를 모토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찰로 조계사를 이끌겠다. 이를 통해 조계사를 아름답고 감동있는 사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올해 조계사가 추진하는 주요 불사는 '하드웨어(△총본산 성역화 △신도조직 강화)' 부문과 '소프트웨어(△계층포교 활성화 △SNS 포교프로그램 개발 △대사회 지원 강화)'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사실상 붕괴 지경에 이른 계층포교의 부흥을 위한 조계사의 추진 사업들이 눈길을 끈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조계사 어린이 ·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으로, 사찰 단위에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 · 운영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조계사는 지난해 바이올린 연주자 17명을 선발한 데 이어 현악 · 금관 · 목관 · 타악기 연주자 총 42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계획이다. 첫 목표는 가을에 열리는 조계사 국화축제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지현 스님은 "언젠가는 아이들의 연주에 어머니들이 합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며 "향후 조계사를 중심으로 주요 도심 사찰에서 어린이 ·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창단 · 운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직장인 명상프로그램 '점심먹고 명상 어때'는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된다. 조계사 뒤편에 위치한 청년센터 4층 법당에서 낮 12시 20~40분 운영되는 직장인 대상 명상프로그램은 명상 이론과 실습을 익힐 수 있어 주변 직장인들의 호응이 좋았다는 게 지현 스님의 설명이다.

총본산 성역화와 신도 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찰 인프라 강화도 눈길을 끈다. 오는 3월 3일 총본산 성역화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동양금박 건물 철거식이 열린다. 지현 스님은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상아불교사, 을유문화사, 상아빌딩, 은성식당, 동양금박빌딩을 매입했다"면서 "동양금박빌딩 철거를 계기로 한국불교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가시화와 주변정비는 물론 총본산 사격을 갖추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제27대 신도회가 출범하고 이승현 신임회장이 취임했다"며 "부처님오신날 이후 신도단합을 위한 대동제와 하반기 임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통불교전문 강원 학인 모집

본사에서는 출가 수행자들의 각행원만과 종지종풍을 확립하고
도제양성을 위해 강원학인(신입, 편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및 자격(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 치문반 : 00명, 태고종, 타종단 승적 보유자
▶ 사집반 : 00명, 본사 강원 치문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는 불가)
▶ 사교반 : 00명, 본사 강원 사집 수료자
(본사 강원 휴학, 자퇴자 가능, 단 퇴방 조치자 불가)
※ 사집, 사교반은 본종 승적 보유자에 한함.
※ 학과 내용 : 강원 정규교과 外 서예, 특강,
불공습의, 제반의례의식
※ 특전 : ① 장학금 매년 100만원 지급
② 대교반 졸업 후 선원 입방 자격 부여
※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부(본사비치, 입방시 작성가능)
② 승적원부 사본 1부
(타종단 동일, 본종 47기 수계자는 수계증 사본)
③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④ 건강 진단서 1부
⑤ 사진 4매
⑥ 입방비 50만원 (강원 교재비 포함)
※ 입방 일자 :
2022년 12월 31일~2023년 3월 1일 까지
(입방일로 부터 습의과정 3개월 필요함)
☎ 연락처
본사 종무소 : 061) 754-5247 / 5953
강 원 : 061) 754-5954
010-3789-5247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통학가능)

종단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비구니,사미,사미니) 수강생 모집 안내

종단에 구애(拘礙)없이 모든 스님(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들에게 선교양종대본산(禪敎兩宗大本山)인 조계산 선암사에서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시간이 없어 교육을 못 받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시대에 맞는 교육을 통한 불교계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고, 승려의 자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찰에서 통학을 하면서 주 2일 수강 하는 선암사 전통불교강원 부설 특별강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강 일시 : 2023년 3월
▣ 강의 일정 : 매주 수, 목요일.(1박 2일, 1일 2시간)
▶ 첫째날 - 14:00 ~ 16:00 (2시간)
▶ 둘째날 - 03:30 ~ 04:40 (아침예불)
05:20 ~ 06:00 (발우공양)
09:00 ~ 11:00 (2시간)
※ 개인사정에 따라 매일 통학 가능
(코로나19확산 시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과목
▶ 1학년(치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 2학년(사집반) : 서장, 선요, 도서, 절요
▶ 3학년(사교반) : 능엄경,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 4학년(대교반) : 화엄경
▶ 공통 : 의식, 외전(교양, 문화 등)
▣ 강사 : 선암사 전통강원 강주 목우스님, 강사 각안스님,
외래 초빙강사: 불교문학박사 법우스님,
철학박사 혜월(안유숙) 전법사
▣ 수강료 : 한 학기(6개월) 600,000원.
농협 351-0422-9291-33 예금주:선암사
▣ 특전
▶ 통학하며 수강.
▶ 4년 수강시 선암사 강원장(주지) 명의 졸업증서 수여
한 학년 수강 시 해당 학년의 수료증서 수여
▶ 타 교육기관에서 해당 학년 과목 이수자는 상위학년 편입학 가능
▶ 수강일 새벽예불, 발우공양 실시(희망자에 한 함)
▶ 타종단 승려도 수강 가능
▶ 성적 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지급
▶ 졸업 후 선암사 선원 안거 자격 부여
▶ 졸업 시 선지도자 자격증 수여
▣ 등록서류 : 입학원서 외 (입학원서에 명시되어 있음)
▣ 등록마감 : 2023년 2월 28일
※ 입학원서는 선암사 홈페이지(www.seonamsa.net)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문의전화 061-754-5247, 5953

태고총림 조계산 선암사 주지·강원장 시 각 | 57909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 061-754-5247, 5953

템플스테이 홍보 진력…'K-불교' 세계 알린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 신년기자간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대표 전통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들이 펼쳐진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2월 1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 사업기조와 계획들을 소개했다.

원명 스님은 '치유를 통한 국민행복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비전으로 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는 △참가자 유치 회복을 위한 홍보마케팅 △명상·치유·전통문화 테마 프로그램 개발 △사찰 주도형 사회공익 템플스테이 강화 △사찰·지역·기관 협력 및 참여 확대 △정책 개발 질적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로 외국인들의 한국 관광 증가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으로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세웠다.

다양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활용한 문화교류 행사로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 문화를 전하고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를 유도하겠다는 게 원명 스님의 계획이다.

당장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인도 현지에서 열린다. 일정 중에는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공동주관으로 인도 정관계·문화예술·외교 인사를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 행사를 진행하며, 뉴델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연등회·템플스테이 사진전 및 문화체험 행사가 열린다. 또한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회향지인 쉬라바스티 기원정사에서 수행자의 전통식사법인 법공양(발우공양) 시연도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오는 8월 새만금 일원에서 열리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서 전 세계 5만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사찰음식 홍보부스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식 영외활동으로 템플스테이 체험프로그램을 전북 8개 사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원명 스님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외국인의 한국방문 회복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유치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전용 명상,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 투자도 본격화된다. 원명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바쁜 일상을 벗어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선물해왔다"면서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명상·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템플스테이 참가자 개개인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찰 현장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이 2월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印 현지서 전시, 사찰음식 시연 등
3월 韓-印 수교 50주년 행사 추진
세계잼버리대회 연계 마케팅 진행

명상, 상담프로그램·순례길 개발
템플스테이 발전 위한 연구사업도
"국민 행복 위한 문화사업 펼칠 것"

경주 남산 순례길 등 사찰과 지역 불교계가 유지·보존하고 있는 고유 순례길을 발굴하고 지역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테마형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원명 스님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통건축 등 테마형 코스를 개발하려 한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경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사업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도 추진된다. 원명 스님은 "불교문화사업의 협력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과 관광업계·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 기획,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등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19로 제한 운영했던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간담회'를 활성화해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들도 눈길을 끈다. 문화사업단은 동국대일산병원과 함께 '템플스테이가 면역력 증진 및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사찰의 후원(공양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수행자의 일상과 문화적 가치에 대한 조명도 이뤄진다.

원명 스님은 "문화사업단은 지난 템플스테이 20년을 디딤돌 삼아, 21살 청년의 기개로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고 국민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교 싱크탱크 동국대 명상프로그램 개발하자"

진우스님, 동국대 신년하례서 제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을 동국대에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임직원들과의 신년하례 자리에서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동국대에서 종단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성우 스님은 "동국대 발전이 곧 불교 발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동국대가 글로벌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게 종단적 원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년하례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상임이사 성월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총무부장 호산 스님을 비롯해 윤성이 동국대 총장과 오는 3월부터 임기에 들어가는 윤재웅 차기 총장 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포교원·상월결사, 미래 포교 힘모은다

'대학생 전법포교' 업무협약 체결
대불련, 교불련, 전법단 3축으로
10년 계획 설립, 재정 지원 박차

대학생 전법 포교를 위해 사단법인 상월결사(이사장 자승)와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힘을 모은다.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미래세대 포교에 기치를 건 상월결사 측의 요청에 따라 청년대학생 포교활성화에 종단 안팎의 역량을 모은다는 취지다.

상월결사와 조계종 포교원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불련을 비롯한 다양한 불교계 대학생 단체 지원 강화 및 장학, 후원사업을 전개한다.

상월결사는 이번 협약 전 사단법인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주력활동으로 대학생 포교를 내건 바 있다.


상월결사 상임이사 원명 스님과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이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이날 (사)상월결사 상임이사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은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들로 포교의 집중 대상"이라며 "이들이 불자로 커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교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단순히 1,2년에 그치는 사업이 아닌 1차 10년 계획을 세워 포교활성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1사찰 1학교 결연과 함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교수불자연합회, 대학생청년전법단 등을 3개 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갖추겠다. 상월결사와 포교원이 전폭적으로 재정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전국단위로 뿌리내려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과 함께 조계종 포교원은 같은날 대한불교청년회 신임 집행부와 대학생불교연합회 신임 집행부 예방에서 새해 계획 등을 듣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종교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포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스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불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과거 활동한 청년불자까지도 세세하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더욱 나서달라. 인연의 소중함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 자리에서 장정화 32대 대불청 회장은 "미얀마 교환학생 한국불교 체험을 비롯해 청년포교에서도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는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화엄사 조실 금성당 명선 대종사 원적

2월 2일 여수 흥국사서…2월 6일 영결식 봉행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이자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조실인 금성당 명선 대종사〈사진〉가 2월 2일 새벽 4시 59분 여수 흥국사에서 법납 71년, 세수 88세로 원적에 들었다.

명선 대종사는 1953년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4년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계했다. 1955년 목포 정혜원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보살계를, 1959년 양산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59년 해인사 불교전문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5년 동국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59년부터 해인사, 상원사, 관음사, 범어사 등에서 15안거를 성만했다. 제3~8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 주지, 고양 상운사 주지, 곡성 태안사 주지, 여수 흥국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돼 원로회의 부의장과, 화엄문도회 문장 등을 지냈다.



장례는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화엄사 화엄원에서 진행되며, 영결식은 2월 6일 오전 10시 화엄사에서 봉행된다.〈영결식 기사 차주 상보〉

이와함께 명선 대종사는 원적에 들기 전 열반게를 통해 "무량겁 쌓은 업장 다 소멸하고, 부지런히 불도 닦아 중생 제도하라. 만일 금생에 이루지 못하거든 내생에라도 꼭 이루어, 널리 나와 남도 이롭게 하고 모든 중생도 이익케 하라"고 설했다. 신성민 기자·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얀마 쿠데타 2년 민주화위한 108배

조계종 사노위, 1월 31일 기도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월 31일 서울 용산구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퇴진과 미얀마 민주주의 기원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는 지난 2년 동안 민주화 운동 중 무고하게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고 의식을 시작으로 미얀마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스님들과 참가자들의 108배로 진행됐다.

기도회에서 사노위 부위원장 혜문 스님은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반불교적, 반인간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반성과 참회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 열린불교대 3월 입학 안내



영남범음범패 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과정
(1) 초급과정 ● 다향석, 조석예불
(2) 중급과정 ● 사시불공, 각단불공 ● 바라춤, 요잡, 나비춤 ● 49재, 천도의식
(3) 고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 함 ● 신중작법, 사다라니춤, 시달림 ● 예수재, 천도의식 해석.

* 모집대상 : 소속 종단, 승속, 승납 등에 상관없이 범음범패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강 주 : 법안 스님 010-6394-9687

전통범음범패 과정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 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강 주 : 성우 스님 010-4277-1357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 종무원사 1층 설법전에서 강의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45)
* 각 강좌 당 모집인원 선착순 ○○명 상시모집
* 종무원 2층 사무실에 비치된 열린불교대 입학 원서 작성 제출

* 입학금 10만원, 수강료 매월 10만원
* 기존 각 강좌 등록 이력이 계신 분의 경우 입학금 면제
* 전화를 통한 입학도 가능. 문의처 (054) 975-4339

복지시설 허브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립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

2025년 완공 목표 건립 추진
사회 약자 위한 공간 마련도
실천가 인재양성·관리도 집중
미래 전략 비전자문위 발족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이 2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 한해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산하 전국 1000여 개 복지시설을 지원·관리하는 허브역할을 할 '불교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 이하 복지재단)은 2월 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조계종단 및 불교 전반의 사회복지 핵심 축으로서 다양한 수업을 수행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재단은 '우리사회의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를 캐치프라이즈로 △불교사회복지회관 건립 △조직체계 정비 및 후원나눔사업 강화 △복지시설 운영체계화 및 '휴스테이' 강화 △국내외 소외이웃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확대 △비전자문위원회 발족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 복지서비스를 펼칠 공간이 될 '불교사회복지회관'은 조계종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의 토지 일부를 임대, 약 810m² (254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토지 임대 계약이 완료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3년 여름경 건립공사에 착수, 재단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불교사회복지회관'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위한 공간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복지재단이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실천을 대표하는 기관인만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힘쓰는 종단 대표단체인 사노위와 공간을 공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이다.

보인 스님은 "범불교적 사회복지 발전의 거점 기관으로서 규모에 맞는 환경을 구축, 재단 지원 및 시설운영 관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면서 "회관 건립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보다 멀리, 보다 높게 힘찬 도약을 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튼튼하게 보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재단은 올해 전국 1000여 개의 산하시설과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구본사 복지재단 설립도 적극 나선다. 복지재단은 법주사, 해인사, 화엄사 등 아직 재단을 설립하지 않은 9개 교구본사를 지원, 설립을 독려하고 지역사회 내 불교사회복지 활성화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양성과 관리에도 집중한다. 미래세대에 걸맞는 불교사회복지 실천가 양성을 목표로 전국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과 관련한 온라인과 대면 교육연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복지재단의 대표 사업인 난치병 어린이 지원사업은 연중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난치병 치료비 지원 특화 사업을 전문단체들과 협력하고 홍보대사 신규 위촉,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온라인 모금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자비나눔 이벤트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보인 스님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사회공헌사업을 지원하는 기업 및 재단 후원자, 민간 단체 등 후원 연계를 통해 자비나눔 활동 영역을 폭넓게 개발하겠다"면서 "특히 불교계 주요인사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불교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비전자문위원회를 발족, 미래 전략 방향 제시와 후원의 다각적 분석 및 방향성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재단의 아젠다를 담아낸 '미션과 비전 실천과제'를 연중 발표, 복지재단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계 및 사회복지계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전법단 '풀뿌리 포교', 분야별 단장·지도법사 둬

2월 1일 대표자 회의서 개정 보고
범해 스님 "분야 전법 활성화" 당부
새해 계획 통해 특색있는 포교 천명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범해)이 2023년 각 분야 일선에서 전법포교에 앞장서는 전법단의 운영체제를 강화한다.

조계종 포교원은 2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전법단 총재이자 포교원장인 범해 스님 주재 하에 대표자 회의를 열고 '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 개정 보고 및 각 전법단 주요사업을 공유했다.

포교원은 '조계종 전법단 운영·관리에 관한 령' 개정을 통해 '분야별 전법단장' 신설과 지도법사 위촉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조계종 전법단은 총재인 포교원장 스님 지도하에 전체를 총괄하는 전법단장 및 전법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법단 체제 정비와 함께 각 분야별 단장이 위촉되어 활동해 왔으며, 이에 따라 분야별 전법단장 및 지도법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활동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대표자 회의에서 범해 스님은 "각 분야의 전법단장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역할이 커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전법단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법포교 활성화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체육인전법단장 호산 스님(총무부장)은 "종단이 포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포교원의 전법단 운령관리령 개정을 통해 특색있는 전법단을 두고, 각 단장들이 포교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대표자 회의에서는 각 전법단의 새해 계획도 공유됐다.

경찰전법단(단장 지현)은 현장 중심 포교방향 제시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나선다. 경찰전법단은 전국 경찰불교회 출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온라인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청년대학생전법단(단장 무각)은 청년대학생 신행활동 지원과 신규 지도법사 위촉에 힘쓸 계획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활동 근거가 마련된 만큼 2월부터 지도법사 현황조사 및 등록화 작업을 갖고 지도법사 간담회를 연다.

신도시전법단(단장 도봉)은 탄천 연등축제 지역축제화 및 복지관 협력 통한 포교 활성화를 진행한다.

병원전법단(단장 능지)은 불교임상지도자교육에 박차를 가하며, 교정교화전법단(단장 혜원)은 교정기관 사찰 연계 및 CMS후원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은 지역별 장애인불자회 구성과 함께 10월 장애인 불자들의 해외 성지순례 또한 추진키로 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미래불자육성장학에 사찰 기부 잇달아

불국사, 1월 30일 1억 6천만원
연주암, 1월 25일 1천만원 기부




불국사(사진 왼쪽)와 연주암이 동국대 건학위에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금을 전달했다.

동국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에 지역 유수 사찰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동국대 WISE캠퍼스에 1억 6000만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30일 동국대 WISE캠퍼스 백주년기념관 대강당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 5층 힐링홀에서 '불국사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불국사는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지역미래불자 육성장학 기금 1억 6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이는 WISE캠퍼스에 재학 중인 경주·포항·영덕·울진 출신 재학생 60명과 간호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재학생 60명 총 120명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이 전달됐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동국대를 만들라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비롯된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이 오늘 수여식으로 31번째를 맞이했다"며 "장학생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학업에 정진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불국사 주지 종천 스님은 "이번 장학금 수여식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국사와 학생들과의 인연이 시작되는 날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산 대표 고찰인 연주암(주지 탄문)은 동국대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월 25일 본관 5층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주암 '지역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연주암 주지 탄문 스님,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관악사 주지 탄무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사무처장, 과천 지역 장학생 10명이 참석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연주암 장학생들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연주암을 찾아 상담받고 심신을 다스리며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주암 주지 탄문 스님은 "장학생들은 연주암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힘들 때 찾아와서 의지하는 공간이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문사회 부문 강화

교육원, 2023년 연수교육 개설
스마트 영상 제작 등 강좌 운영
일본, 라오스 순례 진행도 예정

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 인문사회 분야를 강화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혜일)은 불기 2567(2023)년 승려연수교육을 개설·실시한다.

올해 강좌형 연수는 24개 강좌로 법계과정(6개), 사찰경영과정(3개), 선교율과정(4개), 인문·사회·문화 분야(11개)로 구분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 연수교육은 스님들의 학습 욕구와 사회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문화 과정을 강화했다. 주요 강좌로는 △창의적 스마트 영상제작 실습 △정신의학과 불교 그리고 치유 △한국 전통 간화선과 현대인의 명상 △불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문쓰기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승기신론 강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불교조각 △붓다와 뇌과학 △한국의 불교건축 등이 진행된다.

지난해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라 운영하지 못했던 순례형 연수는 국내, 국외 각 2개 과정 총 4개 과정을 개설했다. 국내 순례로는 경주 남산 불교문화 답사, 가야 불교문화 답사가 진행되며 해외는 일본 불교문화 순례, 라오스 불교문화 순례가 운영된다.

대부분의 연수교육은 대면으로 정상화됐으나, 국가 방역조치 상 고위험군이 많이 포함돼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올해도 중단키로 했다.

비대면 연수에만 적용해 오던 온라인 설문조사와 수료증 출력을 대면 연수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온라인 학습시스템(교육원 연수 홈페이지, monkedu.buddhism.or.kr)를 통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신성민 기자

동문기업 제품 쓰고 장학금 전달도

동국대 식공과 기업, 제품 유통
"동문기업 성장, 노후 준비 가능"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동문기업이 만든 우수한 제품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동식원은 1월 31일 인사동에 위치한 아트갤러리 예하도예에서 샵인샵 개원식을 가졌다. 앞으로 ㈜동식원은 예하도예의 한쪽 공간을 대여, 기업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동식원은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동문들이 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동문들이 만든 우수한 제품들을 유통, 판매한다. 예하도예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동식원의 제품은 홍삼제품,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 화장품, 고추장 등이다. ㈜동식원 측은 수요에 따라 점차적으로 판매 제품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동식원을 이끄는 이황 대표는 식품생명공학과 72학번이자 불교학생회 후원회장으로, 후배들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수십 년 동안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해왔고, 이를 통해 동국대에 전달한 발전기금이 1억 원에 달한다. 또 재학생들과 네팔염소 보내기, 히말라야 쓰레기 소각로 설치 펀딩 등 여러 모금 활동을 주도했다.

이날 개원식에서 이황 대표는 ㈜동식원의 목표를 3가지로 설명했다. △제품 판매를 통한 동문기업 성장 △동국대 식품공학과 재학생 및 불교동아리(불킴) 장학금 △퇴임 동문들의 노후 준비 등이다.

이황 대표는 "동문기업 활성화가 재학생과 학교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동문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동식원과 활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예하도예(서울 종로구 인사동 12길 10)는 도자기 판매 갤러리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증을 통해 구매 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임은호 기자

스포츠 불자 경기력 강화비법은?

불자선수 총무원·포교원 신년하례서 조언 화제



"평소에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세요. 마음을 비우면 스스로 갖춘 실력을 걸림 없이 펼칠 수 있습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잡념을 없애는 명상을 하길 추천합니다." -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우리 불교에서는 1등이라는 성적보다, 그 순간에 임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따라 올겁니다." -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조계종 체육인전법단(단장 호산)이 2월 1일 국가대표선수촌법당 불자선수들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신년하례를 올린 자리에서 내려진 법문이 화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예방자리에서 불자선수들에게 "본인의 실력이 걸림이 없이 발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여유라는 것으로 바뀐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언제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던 것처럼 반대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느리게, '찰나'가 보이게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훈련은 정말 힘들게, 치열하게 하지만 실제 경기에 들어갈 때 만큼은 이런 여유를 갖길 바란다"며 "매일 5분 10분씩이라도 잡념을 없애 명상을 꾸준히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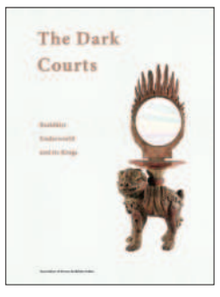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도 앞선 예방 자리에서 명상을 위한 향과 향로를 선물하며 명상수행을 당부했다. 범해 스님은 "우리 불교에서는 1등이라는 성적보다, 그 순간에 임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명상을 통해 마음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따라 올 것"이라며 "선수들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와 경기전 긴장 해소에 특히 명상이 도움이 된다"며 향로를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에는 체육인전법단장 호산 스님을 비롯해 사무국장 정진 스님(선수촌법당 지도법사), 정정애 사무과장, 강채영·곽진영 양궁 국가대표, 손영희·김수현·신재경·한지안·김유신 역도 국가대표, 함관식 우슈 국가대표, 백준혁·박희준·정지영 카라테 국가대표, 이국주 카누 국가대표, 이준호 기계체조 국가대표, 문경애·김나연 선수촌 지도자가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K-판타지 근원 '사후세계' 세계에 알린다

종단협, 한국불교 사후세계 소개
영문서 〈The Dark Courts〉 발간
16번째 한국 불교소개 외국어 책



웹툰과 영화 '신과 함께'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흥행했다. 그 기반에는 한국불교의 사후세계가 있었다. K-판타지 근원인 '불교 사후세계'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영문 책자가 발간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는 "한국불교의 사후세계를 소개한 외국어 책자 〈The Dark Courts- Buddhist Underworld and its Kings〉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집필은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 〈사찰 속 숨은 조연들〉의 저자 노승대 작가가 맡았으며, 번역은 불교 전문 통·번역가 홍희연 씨가 맡았다.

이 책은 해외에 한국불교가 담고 있는 유무형의 사후 세계관을 소개하고자 기획했으며, 영문과 국문을 함께 실어 내국인과 외국인 독자가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종단협은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오면서 서역, 중국을 거쳐 한국의 문화로 토착화한 독특한 사후세계에 대한 문화를 영어로 소개한 단행본은 현재까지는 없어 이 책의 발간에 의미는 크다"고 평가혀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존상, 불화, 불구는 물론 해외 박물관 소재의 문화유산 등 다양한 도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

20세기 한국불교 면면, 사진으로 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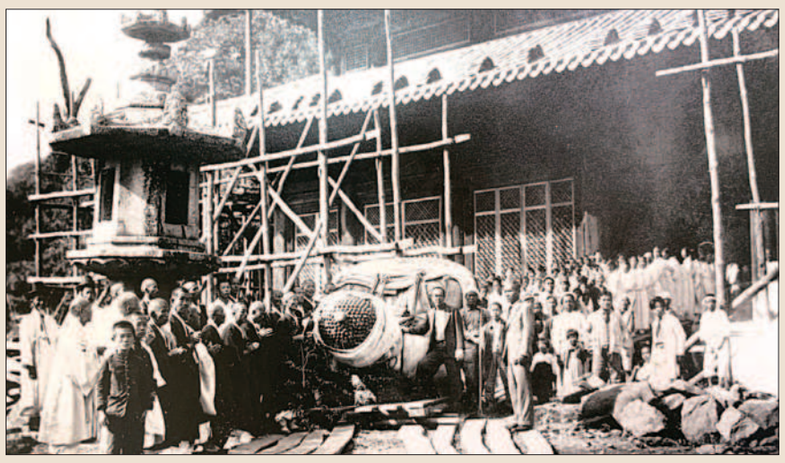
백암산 백양사 대웅전
일제강점기 백양사 대웅전 모습. 사진 속 백양사 대웅전은 1917년 당시 주지로 재직하던 만암 스님이 건립한 것으로, 현재에도 법당 내 · 외부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만암 스님은 '이 뭣고'를 화두로 권하여 '이 뭣고 스님'으로 불리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대표 불교 건축물 중 하나인 백양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의 화려한 양식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국대 출판문화원은 최근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를 발간했다.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지원을 받아 5년간 진행된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의 성과를 망라한 이 책은 4만여 장의 사진 중 209장이 엄선해 수록됐다. 본지는 출판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주요 사진과 내용을 발췌 · 게재한다. 〈편집자 주〉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
일제강점기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 앞 기념사진. 사진 속 장안사는 역사적으로 잦은 화재와 복원을 반복하다가 1863년 마지막으로 중수한 것이다. 1933년 편찬된 〈조선가요 가곡집〉에는 이은상이 작사하고 홍난파가 작곡한 '장안사'라는 가곡이 실려있는데, 가사는 그런 장안사의 흥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사찰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일부 석비만 남기고 전소됐다.



화엄사 불상 이운
화엄사 대웅전의 불상을 각황전으로 모시는 불봉안(佛奉安). 각황전은 대웅전보다도 더 큰 중층 사찰 건물로서 천장이 아주 높아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사진은 일제강점기 대웅전에 있던 불상을 옮겨서 각황전 안으로 이운하는 모습이다.



석존강탄제일을 기념하는 승려들
일제강점기 석존강탄제일(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승려의 모습. 〈조선풍속〉이라는 연작 엽서에 실린 사진이다. 사진 속 왼쪽 승려의 의상이나 손에 전통악기인 바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불교 의식 무용인 바라춤을 추기 위한 복장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해안 선사의 생전장례식
1961년 해안 선사의 생전장례식. 당시 내소사 인근에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해안선사는 1971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1917년부터 내소사 주지를 역임했다. 선사는 생전장례식을 치른 13년 후 1974년 입적했다.



법주사 미륵불상 점안식
1964년 법주사 미륵불상 점안식 기념. 점안식은 불상이나 불화와 같은 물질적 신앙 대상을 종교적 성물로 변화시키는 의례다. 사진 인물로는 둘째 줄 왼쪽 8번째가 청담 스님, 9번째가 동산 스님, 12번째가 경산 스님이다.



대불련 제1회 간부수련대회
1966년 화엄사에서 열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제1회 간부수련대회. 사진 속 인물을 보면 첫째 줄 오른쪽 세 번째가 대불련 지도교수를 담당한 서경수 교수이고, 넷째 줄 오른쪽 첫 번째가 대불련 간부 시절의 김선근 교수다.



안거철 선방의 참선수행
1970년대 안거철 선방의 참선수행. 1960년대와 비교해 보면 선방이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 사진 속 장면은 수행 중 수마(睡魔)에 빠진 스님을 장군죽비로 경책하는 모습이다.

흑백사진으로 만나는 근현대 사찰 · 선지식

동국대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 발간

근대불교사진 아카이브 사업 성과
사진 4만장 수집… 209장 선별해
구한말 사찰 풍경, 北사찰 확인돼
근대 선지식 풍모 찾아볼 수 있어

사진은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록물이다. 19세기 이후 역사의 중요한 현장은 사진으로 기록됐고, 이는 근현대시기 한국불교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행사들은 사진으로 기록됐고, 그 기록들은 당시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됐다. 한국불교 사찰과 선지식의 면면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집이 발간됐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는 1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국대 출판문화원이 발간한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지원을 받아 5년 간 진행된 '한국의 근대불교문화사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의 성과를 망라한 것이다.

황순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21명의 연구원이 참여한 '한국의 근대불교문화 사진 아카이브 구축 프로젝트'는 근현대 신문기사와 전국 방방곡곡 노장 스님들을 찾아뵙고 사진들을 얻으며 인터뷰 했다. 이를 통해 17개 기관 및 개인에게서 4만장의 사진을 수집했다.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는 근대불교의 현장을 시대별로 나눠 1권 일제강점기 편, 2권 1950년대부터 1970년대 편으로 나눠 출간됐다. 1권에는 엽서사진 49장 등 총 84장의 사진이, 2권에 125장의 사진이 수록돼 총 209장의 사진이 담겼다.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권 일제강점기' 편은 먹물 빛깔의 설악산 봉정암 사리탑 모습으로 시작해서 1922년 촬영한 경주 정혜사 13층 석탑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남해 보리암, 서울 옥천암, 통영 용화사, 장성 백양사 등 주요 사찰의 전각을 볼 수 있다. 남북 분단 전 북녘 사찰의 사진들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실제 신계사, 표훈사, 마하연 등 금강산의 고즈넉한 절들을 사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사찰로 소풍을 와서 술판을 벌이고 있던 일본의 군인들의 사진에서는 당시 한국불교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권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편은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왜색불교를 청산하면서 사찰들이 제 모습과 역할을 되찾아가던 날들의 사진들이 주요하다. 방금 수계한 스님들의 굳센 표정과 안거와 용맹정진을 마친 스님들의 단체 사진에서 훗날 한국불교계를 이끈 스님들의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사진은 찍는 순간에는 '지금'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과거를 보존해 현재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물건"이라며 "자료집의 사진이 대부분이 흑백사진이고, 개인들 품속에서 보관해온 것들이라서 꼬깃꼬깃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엽서사진들이지만, 그 자체로 평탄하지 않았던 우리의 20세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는 달라진 사찰의 잊혀진 현장이나, 문화재의 이동, 복원과정, 이름없는 스님들의 소박한 생활상까지 담겨 있어, 한국불교 근현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수집된 4만여 장의 근대불교사진들은 향후 작업을 거쳐 오는 3월 중 동국대 불교학술원 근현대불교사진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그동안 불교문화 연구자들은 사진을 불교문화의 한 범주로 중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을 통해 근대불교의 역사 속에서 잊혀진 현장을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 책의 출간으로 귀한 근대불교 사진이 더 발굴돼 세상에 공개되고, 사진을 통한 불교문화 연구를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 은혜 생각하며 정진의 고삐 놓지말라

팔공총림 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대종사



眼中無翳休挑括〈안중무예휴조괄〉하고
鏡中無塵不用磨〈경중무진불용마〉어다.
信足出門行大路〈신족출문행대로〉에
橫按拄杖唱山歌〈횡안주장창산가〉로다.
唱山歌兮 〈창산가혜〉여!
山是山(산시산) 水是水(수시수)로다

눈 가운데 티끌 없으니 긁으려 하지 말고
거울 가운데 먼지 없으니 닦으려 하지 말라.
발을 디뎌 문을 나가 큰 길을 행함에
주장자를 횡으로 메고 산 노래를 부름이로다.
산노래를 부름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금일(今日)은 임인년 동안거 해제일(解制日)이라.

결제에 임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듯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가 지나고 해제일이 도래(到來)하였도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이 멈추지 않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빨리 지나감이라.

금일 해제일에 이른 지금, 대중 모두가 금빛사자의 포효(咆哮)를 하고 승천(昇天)하는 용의 트림을 내보여야 할 것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해제일이 되었다고 산천(山川)을 유람(遊覽)하고 허깨비처럼 행각(行脚)을 나설 수 있겠는가!

이번 결제의 대중은 각자가 삼동구순(三冬九旬)의 결제기간 동안 얼마나 화두일념(話頭一念)을 이루었는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

습관처럼 좌복(坐服)에 앉아서 번뇌망상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혼침(昏沈)에 빠져 있거나, 게으른 마음으로 방일(放逸)한다면 천불(千佛) 만조사(萬祖師)가 출현해서 깨달을 수 없음이라.

다시 마음을 다잡아 부처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시주자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발심(發心)하고 발심하여 정진의 고삐를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참구하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챙기고 의심할 지어다.

〈하략〉

"마음이 곧 부처…부처로 부처 구하지 말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本 佛性(본 불성)에 實無一物(실무일물)이라 虛通寂靜(허통적정)하여
明妙安樂而已(명묘안락이이)니 深自悟入(심자오입) 하면
直下便是(직하편시)라 圓滿具足(원만구족)하며 更無所欠(갱무소흠) 이니라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트이고 고요하며 밝고 오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이므로 원만 구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目前一物(목전일물)은 無尾亦無頭(무미역무두)라
出入同來往(출입동내왕)하고 窮尋寂寞(궁심적막)이라
눈앞에 있는 한 물건은 꼬리도 없고 또한 머리도 없다.
출입할 때 나를 따르지만 찾아보면 흔적이 없다.

求之轉失(구지전실)이요 動念卽乖(동념즉괴)니
學道人(학도인)이 若欲得成佛(약욕득성불)인대
一切佛法(일체불법)을 摠不用學(총부용학)이요
唯學無求無着(유학무구무착)이니 無求(무구)하면 卽心不生(즉심부생)이요
無着(무착)하면 卽心不滅(즉심부멸)이라 不生不滅(불생불멸)이 卽是佛(즉시불)이니라.
구하면 점점 잃게 되고 생각을 움직이면 어긋나니 도를 배운 사람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불법을 모조리 배울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함이 없고 집착이 없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나지 않고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없어지지 않나니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음이 곧 부처이니라.

心卽是佛(심즉시불)이며 佛卽是法(불즉시법)이니
不可以心(불가이심)으로 更求於心(갱구어심)이며
不可以佛(불가이불)로 更求於佛(갱구어불)이니라
求着卽轉遠(구착즉전원)이니 不求(불구)하면 還所目前(환소목전)이라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법이니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 것이며
부처로 부처를 구하지 말라.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구하지 않으면 도리어 눈앞에 있다.
〈하략〉

임인년 동안거는 전국 100개 선원(총림 7곳, 비구선원 60곳, 비구니선원 33곳)에서 총 1920명(총림 232명, 비구 1065명, 비구니 623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했습니다. 2월 5일 동안거를 마치고 만행에 들어간 수좌들에게 방일함이 없는 정진을 당부하는 종정예하와 총림 방장 스님들의 법어가 발표됐습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http://www.hyunbulnews.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작은 자비심이 큰 자비심 방해하노니…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구변설식종불포(口邊說食終不飽)하며.
신상착의방면한(身上着衣方免寒)이라.
입으로 음식을 말해도 배부르지 않으며
몸에 옷을 걸쳐야 비로소 추위를 면하네.

법화전거(法華全擧) 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습니다.
"구름 한 점도 없이 만리로 아득히 펼쳐진 하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서릿발과 같은 한 자루 칼날로 휘두르는 본분사(本分事)는 어떤 것입니까?"
이에 선사는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누구인들 움직일 수 있겠는가?"
그러자 학인이 절을 올리니 다시 선사가 말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자비심은 큰 자비심을 방해한다."
그리고 곧바로 방(棒)을 휘둘렀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여 자잘한 자비심을 베풀었다가 근본적인 법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큰 자비심은 친절한 언어로 전하지 못하는 경계를 할(喝)과 방(棒) 같은 혹독한 수단에 의지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앙산혜적은 "나는 남전보원 선사께서 자세히 설명해주신 덕을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선사가 나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고 했으며 또 대혜종고는 "누구든지 법에 투철한 안목이 열리고 나면 틀림없이 나의 친절한 설명을 매도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향엄지한은 대나무에 기왓장 부딪히는 소리에 깨친 후 "위산영우 선사께서 만약 나에게 말로서 다 풀어주셨다면 어찌 지금과 같은 경지를 얻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스승의 작은 자비가 아니라 큰 자비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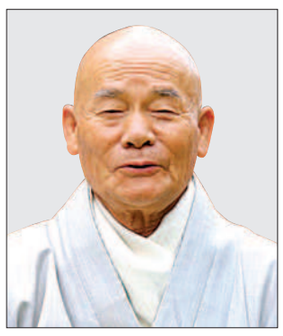
한 겨울 추위 속에서 어느새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해인사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정진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할 수가 있습니다. 제불조사諸佛祖師가 옛날에 우리와 같은 범부였습니다. 그가 또한 장부요 나도 또한 장부거니 다만 하지 않을 지언정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온갖 구름이 일어나지만 하늘 바탕은 조금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진득노서(趁得老鼠)하다가.
타파유옹(打破油甕)하니.
소자방대자(小慈妨大慈)로다.
쥐를 잡으려고 나갔다가
기름항아리를 때려 부셨으니
보잘 것 없는 자비심이 큰 자비심을 방해하는구나.

문 밖 십만 리 풀 한 포기 없는 곳으로 향하여 가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법 중에 법, 法王이여!
항하사 모래 수만큼 많은 여래가 모두 이 法을 증득하였도다.
이 주장자 머리에서 모든 부처님이 다른 입, 같은 목소리로 法輪을 굴리시네.
눈 깜짝 사이, 이 법을 원만성취하고 찰나지간에 삼아승지겁의 업장을 소멸시키네."
-만공스님 법문-

이 일은 넘치는 우주의 에너지, 하늘 땅 전체의 한 덩어리 힘으로 은은히 표시 없이 밀어붙일 뿐입니다.
一念萬年 일찍이 動한 적이 없네. 한 방울도 샐 틈이 없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자. 나를 빼버리면 텅 텅 비어 자유스럽다.
本地風光 얼마나 통쾌한가!
이 사실이 너무도 크고 거룩하기 때문에 놓아버릴수록 온전하고 자유스럽다.
져주자! 老僧의 한 수입니다.
응용단계까지 못 미쳤나? 아차, 動해버렸네.
앞서려고 하다가 중생심 못난이가 되어 놓친다.

젊고 늙고 이 몸 地水火風은 바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음이 집착에 굳어져 있으면 바람이 약해집니다.
달마스님은 觀心一法
관심, 이 놈이 뭘까? 이 한 법이 큰 바람입니다.
진심으로 주자. 따뜻한 바람입니다.
문수보살의 지혜로, 보현보살의 광대행으로,
벌떡 일어나 평펑 솟아나는 샘물, 맑은 바람, 시원한 바람,
이 물건이 돌아가는 소식입니다.

허공은 本來淸淨
먼지, 티끌, 비바람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한가해집니다.
끝없는 청정허공, 무진삼보 대자대비
가고 오고가 없는 만물의 근거, 의지처
꽉 차있는 원기덩어리
청정 일번지 수덕사가 그 허공입니다.
경허스님 만공스님 제대 선지식이 그 허공입니다. 〈하략〉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월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2학년	각 배	각배(시왕재)	수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3학년	실 기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불공, 시식	목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 전형일정 |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
■ 개 강 | 2023년 3월 첫째주 월요일(3월 6일)
※개강 이후 3월 중 입학신청 가능
■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 장 김 태 호 합장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日, 골판지로 만드는 '불상 얼굴간판' 화제

학예원 출신 니시유키 작가
'입체 만다로' 접한 후 제작
1:1 제작…불보살 되는 경험
10년 작업…100개 제작목표
"불상 매력 새롭게 느끼길"

박영빈 객원기자


골판지로 만든 비로자불 얼굴간판을 시연하는 니시유키 작가. 사진출처=야후재팬 뉴스

한때 유명 관광지나 사찰에 종종 보였던 얼굴을 끼워 사진을 찍는 '얼굴간판'. 불상을 모티프로 이 얼굴 간판을 골판지를 이용해 10년째 만드는 작가가 일본에서 화제다. 지난 1월 25일, 일본의 '야후 재팬 뉴스'는 얼굴간판 작가인 니시유키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골판지 불상 얼굴간판으로 유명한 작가 니시유키는 본래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원으로 10년간 근무하면서 전통문화를 모티프로 한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왔다. 그는 "초등학교 때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재일에 맞춰 절에 갔었다. 덕분에 불상이나 사찰에는 익숙한 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말했다. 그 후 20대 중반에 교토의 토지(東寺)에 봉안된 '입체만다라'를 보고서 얼굴간판 제작을 결심했다.

불상 얼굴간판은 2022년, 고향인 오카야마 시내에서 진행된 문화행사에서 처음 공개됐다. 이후 SNS와 현지 미디어 등을 통해 간판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나 타 지역의 문화행사 등에 초청되면서 인지도가 올라갔다. 니시유키 작가는 "종종 사찰의 의뢰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찰에 모셔진 본존불이나 문화재 불상을 모티프로 제작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총 50개의 간판을 만들었으며 최종적으로 100개의 간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니시유키 작가는 "그동안 불상에 대해 가진 이미지는 정적이고 고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입체만다라에서 느낀 역동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장 먼저 제작한 얼굴간판도 입체만다라 중에 있는 보생여래가 첫 작품"이라고 밝혔다.

니시유키 작가가 만든 얼굴간판은 골판지라고 하는 일상적인 소재를 이용하여 얼굴과 손을 넣어 체험자가 직접 불보살상이 되는 듯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보통 유물로 전하는 불상을 모티프로 가능한 1:1사이즈로 제작하고 있다. 작품에 따라서 아크릴 안료로 채색을 하곤 하지만, 골판지의 색이 가진 흙의 색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포인트로 작용한다.

또 간판이라는 점에서 입체가 아닌 평면이 중심적인 모습이지만 골판지를 덧붙이거나 약간의 음영을 넣는 등 실제 불상과 같은 입체감도 부가하고 있다. 그는 "제작시에는 상호를 모두 그린 후에 잘라낸다. 아무래도 상호를 그리지 않으면 불상으로서의 균형감이 사라진다"며 제작시의 여러 조건들을 설명했다.

다양한 장르 가운데 얼굴간판을 작품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작가는 "이 작품의 테마는 '대화와 소통'이다. 불상이 되는 체험을 통해 다양한 만남이 생기고 그것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불화의 경우 마지막에 눈동자를 찍는 것으로 불보살을 완성시킨다. 그러나 나의 작품들은 사람의 얼굴을 끼워 넣음으로써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나에게 부처님이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모두의 마음 속에도 반드시 소중한 것이 있을 것이다. 불상을 완성시키면서 각자의 마음에 소중한 것을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만난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

상호대화 · 이해 위한 만남
개종 · 영적분리 · 생태 주제


교황과 대담한 캄보디아 종교대표단. 사진출처=파리 외방 전교회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이 교황과 만남을 가져 화제다. 지난 1월 26일 아시아권의 가톨릭 뉴스를 전하는 'UCA 뉴스'는 캄보디아의 불교, 기독교 대표들로 구성된 종교 대표단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대담을 가졌다고 전했다.

산 소체아 스님, 자선사업가 멍글리 J 콱, 파리 외방선교회의 윌 컨커 신부 등 3명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은 지난 1월 22일까지 6일간 유럽순방을 가지고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83년 캄보디아 불교 대표였던 마하 고산다 대종사와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40년 만에 이뤄진 캄보디아 스님과 교황의 만남이기에 캄보디아 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개종, 영적분리, 생태를 순방 주제로 삼은 캄보디아 종교 대표단은 유럽 순방 일정 후 간담회를 열고 "교황청 종교 간 대화부에 성대한 환영을 받았고 교황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교에서 주최한 심포지엄도 참석했다"면서 "유럽순방 일정 간 종교와 문화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캄보디아의 정신적 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는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이번 순방에서 대표단은 카리타스 모나코와 공동으로 실시한 자선프로그램에 5000유로(한화 약 6600만원)도 전달했다.

윌 신부는 "다른 전통과 다른 길을 가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와 불교는 수도원 생활로 대표되는 삶의 모델로 유라시아 대륙에 영감을 주었다. 이 수도원 생활은 단순하고, 냉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는 생태적 전환에 영감을 줄 수 있다. 수도승들과 성직자들은 이러한 분리적인 삶의 모델에서 세계를 위한 생태적 전환을 계속 고무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인도, 새로운 불교 유적군 발견

50년 간 단독 유적으로 추정
발굴 통해 대규모 승원 드러나


바랏푸릇 승원 유적군 발굴 현장 전경. 사진출처 = 더 힌두

인도 벵골 서부의 바랏푸르에서 50년 전 발굴된 불교 사원이 승원 유적군으로 밝혀져 화제다.

지난 1월 21일 인도 언론 '더 힌두'는 벵골 서부의 바랏푸르에서 50년 전 발굴된 불교 사원이 승원 유적군으로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바랏푸르 유적지는 1972년에서 1975년 사이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과 버드완 대학 고고학자들이 불탑과 불교사원 유적을 발견하면서 불교 유적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ASI가 지난 1월 초 유적에 대한 재발굴과 조사에 착수하면서, 단독 사원이 아닌 대규모 승원 유적군이었음이 부분적으로 드러났다.

ASI 콜카타 지부의 고고학자로 유적 발굴 총감독을 맡은 슈바 마줌더 박사는 "이 유적지는 지난 50년 동안 미발굴 상태였다. 불탑은 보통 부처나 보살, 승려와 관련된 유물을 봉안하는 기념물이기에 다양한 유물들이 함께 발견되는 데 반해 지금까지 바랏푸르의 탑은 이렇다 할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더욱 신중을 기했다"고 전했다.

마줌더 박사는 "철성분을 유약으로 사용한 도기들이 출토됐다. 이 유물들은 보통 생활용품으로 사용됐기에 발굴된 유적의 문화적 순서를 면밀하게 살펴봤다. 그 결과 이번 발굴을 통해 보다 확장된 승원 유적군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승원의 외벽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발견되었으며 발굴이 진행되면 승원이나 불탑의 건립시기 등 더 많은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앞선 1970년대 발굴 당시 탑 부근에서 항마촉지인을 한 불상 5점이 발견됐다"면서 "높이가 30cm인 소형으로 이번 승원 유적군 발굴과 연결하여, 승원에서 예불을 위해 봉안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커타 대학 고고학과의 루펜드라 쿠마르 교수는 바랏푸르 승원 유적군은 두 가지 요점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는 기원전 2,000년경 다모다르 강둑에 위치한 선사시대 정착촌위에 세워졌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불교승원 유적군이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그는 "이번 발굴은 선사시대 정착촌과 승원 유적지의 문화적 연속성을 추적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쿠마르 교수와 마줌더 박사는 "인도 불교유적지는 대부분 인도의 남서부 지역인 벵골 지역에서 발견됐다. 벵골 서부에 위치한 바랏푸르의 승원 유적군 발굴은 이 지역의 불교 발전에 대한 흥미로운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재 객원기자

러시아 스님, 부다가야서 주류 소지 체포

음주용 아닌 공양용 주장, 판결 귀추 주목


성보성지인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사진출처=인터넷 무료이미지

주정부 법으로 주류가 금지된 비하르주에서, 술을 소지한 죄로 러시아 출신의 스님이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21일 인도의 '타임즈 오브 인디아'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스님의 체포 사실과 경위에 대해 특별 보도했다.

지난 1월 19일 오전, 부다가야 경찰국 부국장인 아제이 프라사드는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입구 검색대에서 술을 소지한 러시아 출신 승려를 현장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마하보디 사원은 지난 2013년 폭탄테러 이후, 모든 방문자들은 입구에서 2회 이상의 소지품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체포당시 스님은 소지품 스캔 중에 가방 속에 100ml들이 병에 10ml의 위스키를 가지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 스님은 "이것은 음주용이 아닌 기도의식에 사용되는 공양물의 일부"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체포된 스님은 가야 중앙 유치장에서 법정구속 중이며, 곧 재판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다가야 경찰국은 "이미 7년도 넘게 엄격한 금주령이 시행되고 있고, 이 사실은 해외에도 널리 소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주류를 소지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인 일이며, 인도의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엄한 처벌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스님에 대해서 동정적인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한 현지 누리꾼은 "힌두교 사두들도 공양의식에 술을 사용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었으며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금주령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의례마저 단속하는 건 지나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불교는 교리적으로 술이 금지돼 있지만, 산신이나 용왕 같은 세속적인 신에게 술을 공양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보이는 일이다. 종교의 보편성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문 연다

개원식 3월 8일 예정, 6개월 과정
강의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율과 위의 · 습의와 의례 등 강의
조계종 외 범 종단 스님 대상으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이 3월 8일 승려교육원을 개원한다. 사진은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2019년 9월에 진행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모습.

개교 40년 이래 재가불자의 신행 교육의 장으로 활동해온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승가교육을 위한 승려교육원을 개원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이하 부불대 승려교육원)은 승려의 위의(威儀)와 자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엇보다 조계종뿐 아니라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어서 의미가 크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난 4년 동안 조계종승려연수기관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승려연수기관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 타 종단 스님들을 위한 교육이 강조됐고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이 제안해 준비하게 됐다. 자인 스님이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많은 스님들로부터 범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듣게 됐다.

부불대 승려교육원은 3월 8일 오후 3시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8월 23일에 회향 및 수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의일정은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총 6개월 동안 이어지는 이번 강의의 수강료는 매월 6만 원, 총 30만 원이다.

부불대 승려교육원 교과목은 △계율과 위의 △습의와 의례 △초발심자경문 △치문경훈 △명상입문 △불교문화 △시대적 포교와 사찰운영이다.

교과 '계율과 위의'는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4강이며 前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강의한다. '계율과 위의'는 무엇보다 청정승가의 근본이 되는 계(戒)를 다시 숙고하고 의미를 파악하며 승가공동체와 대중과의 생활에서 갖춰야 할 태도와 예를 익힌다.

'습의와 의례'는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2강이며 前 범어사 사회국장 성광 스님이 강의한다. '습의와 의례'는 불교의 전통 의례의식을 배우고 예불과 법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초발심자경문'과 '치문경훈'은 4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13강이며 前 해인사 강주 무애 스님이 강의한다. '초발심자경문'과 '치문경훈'은 행자와 비구계를 처음 받은 스님들이 익히는 경전이다.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은 깨달음으로 나가는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수행의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치문경훈(緇門警訓)'은 전통강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과목으로, 치문이란 먹물들일 치(淄)와 문 문(門)자를 써서 스님들이 가야할 길을 의미한다.

'명상입문'은 8월 2일 CM명상센터 이사장 하림 스님이, '불교문화'는 8월 9일 김춘식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 '시대적 포교와 사찰운영'은 8월 16일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이 강의한다.

부불대 승려교육원은 서해 흥교 대종사를 증명으로 교육원장에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운영위원장에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이 소임을 맡는다.

교육원장 심산 스님은 "승려교육원 교육을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루고 출가할 때 발원하는 인천의 스승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스님들의 위엄과 행동은 불자들의 신심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자인 스님은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생각보다 타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지만 알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도 생겨 안타까운 마음에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그동안 재가자 교육의 산실로 활동해왔다. 앞으로는 재가교육 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수행생활에 등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수행하고 대중들의 모범이 되고자하시는 스님들의 교육기관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최고의 강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023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는 △기초교리학과 불교학 △불교학과 △불교엘리트학과 △부동산융합풍수학과 △불교문화학과 △문화힐링과정(다도반, 수어반, 합창단, 사물놀이)이다. 각 학과별 매주 1회 수업이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합동입학식은 3월 7일 오후 7시다. (051)711-0700

동명불원, 따뜻한 떡국 나눔 잔치

지역 어르신에 떡국 · 과일 등 대접
불전공양미 모아 이웃에 회향키로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정기 행사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이 1월 31일 경내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을 전개했다.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이사장 김경조, 이하 동명불원)이 1월 31일 경내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을 전개했다.

이번 떡국 나눔은 매월 불자들이 올리는 공양미를 이웃에게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한 이번 나눔에서는 부산 남구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게 떡국과 과일, 떡을 대접했다. 나눔을 위해 동명불원 신행단체 회원들이 손수 떡국을 끓이고 자원봉사에 앞장섰으며 동명불원 원장 원순 스님을 비롯해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자리해 떡국을 나누고 격려했다.

원장 원순 스님은 "무엇보다 불자들의 나눔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보살의 삶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명불원은 지난해 5월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협약식을 갖고 정기적으로 공양미를 보시하기로 했다.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는 최일도 목사가 주관하는 밥퍼나눔운동본부와는 관련 없는 독립된 사단법인 기관으로 범종교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부산역과 시청 뒤 녹음광장 등에서 노숙자 및 저소득 지원 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협약은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한 김경조 이사장의 활동이 인연이 됐다. 동명불원은 이번 떡국 나눔을 시작으로 매월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을 준비 중이다. 현재 동명불원은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무료급식 후원과 지역 복지관,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탈북민단체, 독거어르신 사랑의 도시락 및 집수리, 동명대 장학금 전달 등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동명불원은 1월 27일 부산 남구청에서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성금은 총 500만 원이며 전달식에는 김경조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이원옥 신도부회장, 이상수 신도부회장, 안소민 홍보부장, 이석근 법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관음선행장학회, 제35회 장학금 전달식

장학생 36명에 총 3600만 원 전달



인재양성 불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재)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가 1월 31일 부산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대상은 스님 13명(송광사 율원 2명, 송광사 강원 5명, 자비선사 승가대학원 5명, 동국대 1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14명, 대학원생 2명 등 총 36명으로 각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음선행장학회는 1991년 정금강행 등 뜻있는 불자들이 출연하여 자산 1억 원으로 설립 운영해오던 중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돼 재단법인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이 자산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호스피스교육, 교양강좌, 불교교리강좌 등을 개설해 받은 강의료를 전액 장학회 후원금으로 매년 4000여만 원을 출연하고 있다. 매년 관음선행장학회는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원, 2022년까지 총 695명에게 6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편, 관음선행장학회는 부산지역의 모범적인 장학재단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헌신할 인재양성에 동참할 인연을 찾고 있다. (051)203-9461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사회복지시설, 방한화 지원

방한화 2612켤레 지원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가 1월 27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불기 2567년 ㈜신아코퍼레이션 후원품(방한화)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아코퍼레인션가 방한화 2612켤레(1켤레 7만 9000원 상당)를 전달했다. 방한화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양정청소년수련관 등 부산불교 사회복지시설 24개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여 스님은 "이번 지원으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며 "특히 매년 운동화와 방한화를 지원해주시는 (주)신아코퍼레이션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정초기도 장학금 전달로 회향

언론종사자 자녀에 총 300만 원



인재불사도량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가 1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4회 불교계 언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선광사는 정초기도 회향을 맞아 부산지역 언론종사자 자녀 1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30만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문 스님은 "학생 여러분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다듬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다. 선광사에서는 원석을 다듬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학생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 아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한 가지 기술을 제대로 익혀 이 세상 제일가는 기술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선광사는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매년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본래서원 잊지 말고 속환사바하소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정관 대종사 영결식 봉행

범어사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
원로의장 등 2000명 운집 추모
보살행 실천 정관 대종사 기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영결식이 1월 30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다비식 모습.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보살의 삶을 실천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불국당 정관 대종사의 영결식이 1월 30일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범어사 방장 지유 대종사, 조계종 교육원장 혜일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해 정관 대종사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방장 지유 대종사와 문도의 헌향 및 헌다로 시작했으며 행장소개로 정관 대종사의 삶을 함께 회고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의 영결사 이후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의 법어가 전해졌으며 내빈들은 추도사, 조사로 정관 대종사의 열반을 추모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영결사에서 “정관 대종사께서는 일찍이 산문에 귀의해 조계종단의 최고 스승이신 동산 대종사 슬하에서 일념정진 하셔서 불조의 공안을 투득하셨다”면서 “종단의 중요 주지 등의 소임을 맡아 원만히 수행해 범어사와 종단의 발전과 안정된 중흥의 기틀을 다졌고, 불교 포교적인 면에서도 현대화와 대중화에 큰 업적을 남기셨다”고 상찬했다.

이어 “스님께서는 무상의 천변만화 속에서 변즉불변의 진상을 오늘 대중에게 보여 주셨다”며 “사부대중은 첨앙하고 합장발원하니 정관 대종사시여! 스님께서는 이제 적정무위락을 수용하시다가 본래서원 잊지 마시고 속히 사바에 돌아오시라”고 기원했다.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일면 스님이 대독한 추모 법어를 통해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해 원적의 모습을 보이셨다”며 “대종사께서 보이신 수행이력과 원적의 모습은 후학을 경책한 장군죽비 소리이며, 생사본무(生死本無)의 도리를 보이신 무진법문(無盡法門)이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혜일 스님의 추도사 대독을 통해 “정관(正觀)한 수행자의 삶은 언제나 수처작주(隨處作主)이니 수행처에서는 머리카락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한 치도 정로(正路)에서 벗어남 없이 용맹정진하셨고, 소임처에서는 도량을 세우고 융성하게 하셨다”며 “어려운 이를 만나면 복지기관을 세워 돕고, 포교 현장에서는 각계각층에 적합한 방편을 쓰고자 다양한 불국토 법인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대종사님의 삶이셨으며, 다시 무상의 법문을 사바에 펼치고자 열반에 드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전했다.

이어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 윤석열 대통령,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의 조사가 전달됐다.

대중들은 헌화하며 정관 대종사가 속환사바해 대중과 함께해 줄 것을 기도했다. 문도를 대표해 범산 스님이 감사 인사말을 전했으며, 발인을 위해 대중들은 만장기를 들었고 스님의 영정과 위패 그리고 법구를 이운했다. 스님의 법구는 범어사 대웅전 앞을 떠나 일주문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경내 곳곳을 돌아 연화대로 이운됐다. 만장기가 줄지어 장엄한 가운데 스님의 법구는 대중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연화대에 안치됐다.

대중들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속환사바하소서”라며 오열했고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 스님의 법구는 지수화풍이 되어 금정산으로 흩어졌다.

정관 대종사는 1933년 1월 4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에서 아버지 창녕조씨 병옥 선생과 어머니 밀양손씨 기윤 여사의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양친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여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 하여 어릴 때 집에서 산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해 미군부대에서 헌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으며 청년기에는 춘원 이광수 선생의 장편소설 원효대사를 읽고 감동받았고, 누더기에 걸망을 멘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동경의 마음을 품었다. 이후 1954년 출가발심을 일으켜 부산 금정산 범어사의 하동산 스님을 찾아뵙고 출가했으며 행자시절 은사인 동산 스님은 “경주에서 왔고 이름이 중환이니 경환이라 하자”며 법명을 경환으로 지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절 아궁이에 군불을 지피다 문득 ‘뭐든지 바로 보면 안 될 것이 없을 터’라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은사 스님에게 법명을 ‘정관’으로 하겠노라 말했다. 동산 스님은 “정관으로 하되, 혹여 실수라도 하면 그게 정관(正觀)이겠느냐”라며 꾸짖었지만, 이내 법명을 허락했다.

1961년 쌍계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1970년 제방선원에서 14안거를 성만한 스님은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1972년 영주암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스님께서는 학생회, 청년회를 창립했으며 법당과 요사채(최정원)를 건립했다. 또한 범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사단법인 불국토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며 불교사회복지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관 대종사는 불기2567년 1월 26일 오후 6시 저녁 공양 후 상좌 범산 스님과 손상좌 등 대중을 불러 “세속에 얽힌 살림살이는 때가 되면 방하착을 해야한다. 때가 되어 방하착이 안되면 안 되는 만큼 큰 화가 된다. 지극한 신심으로 열심히 본래의 마음을 챙기고 정진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 오후 7시 2분 영주암 본래지당에서 세납91세, 법랍 70세로 원적에 들었다.

한편 정관 대종사의 49재는 2월 1일부터 3월 15일 까지 매주 수요일 봉행된다. 5재인 3월 1일은 불국정사에서 막재인 3월 15일은 범어사에서 봉행 될 예정이다.

선운사 문화재구역 입장료 무료 결정

2월 1일부터 무료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주지 경우)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성공을 기원하며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선운사와 고창군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성인기준 3000원의 선운산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방문의해 성공을 위해 대승적으로 결정해주신 선운사와 경우 스님께 감사하다”며 “국가지정 보물 8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요사찰인 만큼 고창군에서도 문화재 관리와 보호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선운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195만 8000명이 찾는 고창군 대표 관광지다. 선운사가 보유한 국가지정 보물로는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고창 선운사 대웅전 △고창 참당암 대웅전 △고창선운사 동불암지 마애여래좌상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선운사 만세루 등이 있다. 선운사는 봄이면 동백꽃과 가을 꽃무릇이 만개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이번 선운사 관람료 무료 결정으로 인해 고창시 관광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해’를 추진하며 고창읍성과 고인돌박물관의 입장료 전액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바꿔주며 무료화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서원시니어클럽 업무약정 체결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진행



전주서원시니어클럽(관장 우림)이 1월 27일 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지사장 허도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업무약정은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와 업무약정 체결을 통해 전주시에서 처음 시행된다.

올해 실시되는 장기요양통합서비스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신규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총 6명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덕진구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자태그(비콘) 부착 상태확인 및 복지용구제도 안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전주서원시니어클럽 관장 우림 스님은 “이번 업무약정체결을 통해 만 60세 이상 퇴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복지원이 운영하는 전주서원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소득창출을 위해 올해에도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총 1599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 자비의 쌀

백미 5t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지정 기탁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원장 초암)이 대전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의 쌀 5t을 기탁했다.

초암 스님은 1월 26일 대전시청을 방문해 백미 5t(10kg 500포, 1500만 원 상당)을 대전광역푸드뱅크에 지정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대전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지역 내 수급자 등 취약계층 및 장애인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초암 스님은 “이번에 전달되는 자비의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 내 소외계층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환경정화 울력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지리산전남사무소(소장 윤명수)와 함께 2월 1일 ‘제1회 지리산 화엄사-연기암 어머니숲길’과 계곡 일대에서 환경정화 울력을 진행했다.

이날 울력에는 주지 덕문 스님, 부주지 우석 스님, 선원 스님 등 50여 명과 유시문 구례군의장, 국립공원 직원, 야생생물보전원, 지리산탐방원 등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해 계곡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덕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화엄사와 연기암까지 ‘어머니숲길’로 불리고 있다”며, “지리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참여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에 마음을 정화하듯 어머니숲길을 거닐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정화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군산 흥천사 자비의 쌀 기탁

주민센터에 쌀 30포 기탁
취약계층 등에 전달 예정



군산 흥천사(주지 법운)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30포(300kg. 8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흥천사 주지 법운 스님과 신도들은 1월 26일 군산시 해신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80만 원 상당의 백미(10kg) 30포를 기탁했다.

이날 흥천사가 전달한 자비의 쌀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법운 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이 전해져 건강하고 희망찬 2023년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섭 해신동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흥천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흥천사는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군산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매년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고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왔다. 또 정기적으로 사찰과 가까운 해신동 주민센터에 자비의 쌀을 전달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일광사,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장학금 200만 원 정읍시장에 전달
승천 스님, 부임 후 꾸준한 봉사활동



정읍 일광사(주지 승천)가 지역 청소년들의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일광사는 1월 26일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과 일광사 연꽃신도회 불자들이 모금한 장학금 200만 원을 계묘년 정초기도를 위해 일광사를 방문한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전달했다.

승천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지역의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나눔을 하게 됐다”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천 스님은 지난 1985년 일광사 주지로 부임한 후 신도회를 활성화하고 교도소와 군부대, 복지단체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해외구호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마하연 승가회를 통해 베트남 초등학교 식수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 부처님오신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경로잔치를 열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재소자들의 교정교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34년간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73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광고등학교 제71회 졸업식 개최



불교종립학교인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정광고등학교(교장 이동배)는 1월 26일 교내 룸비니강당에서 제7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덕문 스님과 연성스님(빛고을포교원 주지), 이동배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입학식도 하지 못한 채 3년간 가장 특별한 학교생활을 했던 344명의 졸업생이 참석했다.

이동배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입학을 했던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낸 졸업생, 학부모,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졸업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늘 자비심을 베풀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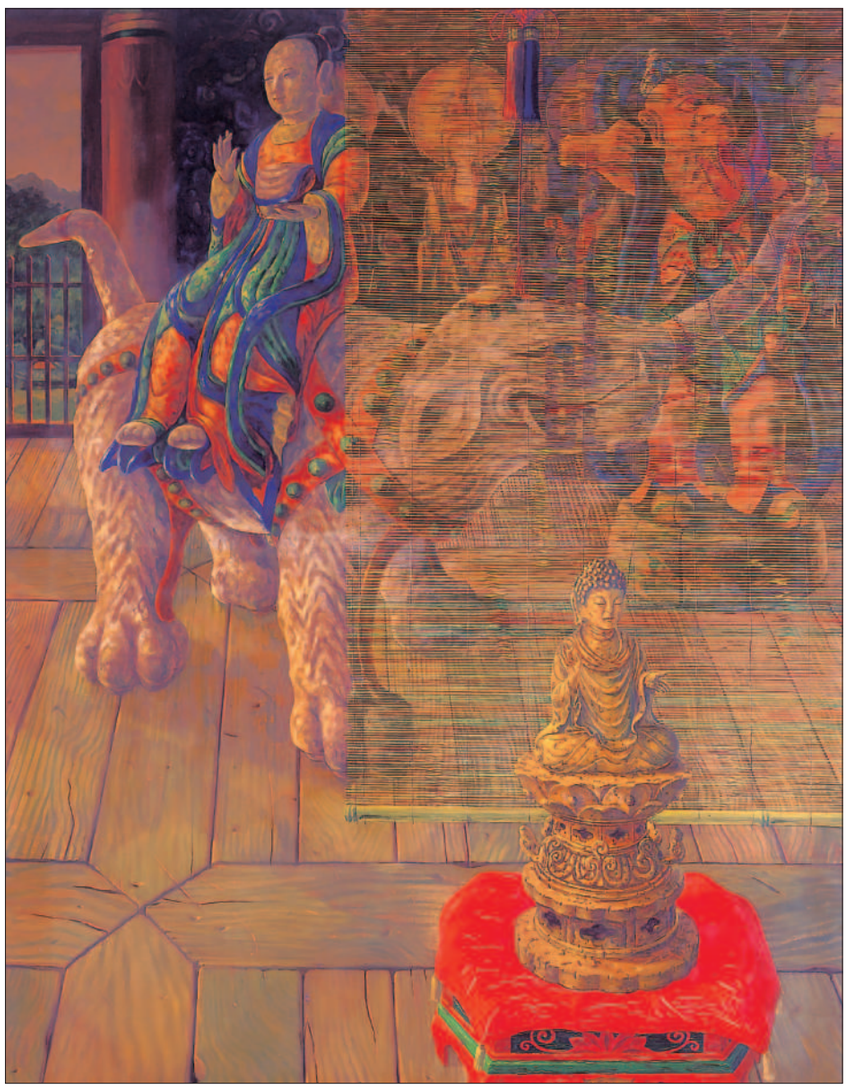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둔 속 만났던 사찰풍경, '또 다른 세계'로

'이강하 : 또 다른 세계' 展
이강하미술관 2월 2일~3월 23일

80,90년대 대표연작 '脈(맥)' 13점 전시
'발' 통해 전통의 '감춤의 미학' 표현해
광주민주화운동 참여, 5·18 민주유공자
위로받았던 불가적 풍경을 작품 소재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맥_90.9×116.7cm_Oil on canvas_1983

우리 전통 단청의 색깔인 오방색과 불가적 풍경을 서양화의 재료인 캔버스에 오일로 그려낸다면 어떤 느낌일까. 이강하미술관(광주광역시 남구)이 2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개최하는 2023년 소장품전 '이강하 : 또 다른 세계' 展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이강하(1953~2008) 화백의 1980~1990년대 대표 작품인 연작 '脈(맥)'으로 구성된 특별전으로, 전시되는 작품은 미공개 5점을 포함해 13점이다.

2018년 개관한 이강하미술관은 그동안 이강하 화백에 대한 연구와 작품세계를 현대적 관점에서 전문 평론가들과 대중이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제시하고 재조명하는 소장 작품 전시를 추진해 왔다. 이 화백의 시각예술적 지평을 더욱 넓히기 위한 이번 전시의 작품에는 '회화-이미지 세계, 이미지 안의 또 다른 진실'에 닿고자 했던 이 화백의 철학과 정신이 담겨있으며, 이 화백이 가장 불운했던 30대 시절에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으며 남겨진 시대의 기억과 상처 안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의 민족적 혼을 찾고자 했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 속에는 공통적으로 '발'(가늘고 긴 대나무로 엮어 만든)이 등장한다. 발을 경계로 불상이나 사천왕, 문수동자 등을 보이는 쪽과 보이지 않는 쪽에 나누어 배치했다. 발로 인하여 작품은 우리민족 전통의 '감춤의 미학'과 더불어 신비스러운 시각 효과를 보인다. 발 뒤로 불상이나 사천왕 등을 섬세하게 그려 극사실적 효과를 보이면서 발을 통해 감추어진 전통문화와 사상을 은유적으로 담아내고 있으며, 작품 전반에 보이는 채색은 우리 전통 단청에서 볼 수 있는 오방색이다. 불교적 세계관과 샤머니즘적 정서를 보이고 있는 작품은 오랜 시간 수행하듯 그려낸 설득력과 집념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강하 화백은 1970년부터 남도 사람들의 애환과 한국미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미적 탐구는 1980년 조선대학교 미술학과 재학시절에 증폭된다. 하지만 이 화백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게 되고 2년여 동안 지명수배자가 된다. 이후 이 화백은 지명수배자 신분으로 전국의 사찰을 전전하며 운둔생활을 하게 된다.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다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서 이 화백이 마주했던 전국의 자연풍경과 오방색의 단청을 비롯한 사찰풍경은 이 화백의 지친 심신을 치유함은 물론 자유와 평화를 상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상적 세계를 연결하는 새로운 통로가 되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많은 한국 구상계 작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해왔다. 현실과 자신의 역사적 경험 사이에서 자신만의 작업을 리얼리즘으로 구현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의 테마인 '脈(맥)' 연작은 그런 시대와 사회성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이 화백은 민중 정서와 리얼리즘 회화로 주목을 받아왔다. 작업 안에서 한국의 본질, 정체성, 민중 지향적 세계관으로 독자적인 작업세계를 구축하고 이해했다. 이 화백은 시대의 아픈 역사와 삶, 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매료됐으며, 인류 문화의 기원이자 주체로서 인간의 힘과 존엄에 대한 깊은 사유를 그림 속에 담고자 했다. 이 화백은 20세기 근현대사를 지나며 견뎌야 했을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작가적 세계와 희망의 중심을 잃지 않고 견디고 또 견디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한국인', '민족', '민중'이라는 화두로 삼아 깊이 공감하며 작업했다.

현재, '脈(맥)' 연작 중 일부 작품은 2022 국립현대미술관 아카이브 작업-보존수복 관리 중에 있으며, 수복이 완료되는 2024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강하 화백은 영암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 대학원 순수미술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그룹 '남맥회'를 창립하여 이끌었고, 목우회와 한국파스텔작가회, 선과색 회원으로 활동했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며(5·18민주유공자) 샤머니즘 사상이 깃든 남도의 '맥(脈)' 연작과 남도의 정경이 담긴 '영산강과 사람들', '무등산' 연작을 대표작품으로 선보였다.

11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화집 '이강하의 지중해 미술기행'(엮은이 이선, 2009)을 발행했다. 100여 차례의 그룹전 및 기획초대전에 출품했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비무장지대 작업전(예술의 전당, 1994), 참다운 변화로 미래를-7개 도시 순회 개인전(1995), '95광주비엔날레특별전(광주비엔날레, 1995), 한·중 교류전(광저우미술관, 2005), 1주년 추모전 '이강하 열정의 삶과 투혼의 예술'(광주시립미술관, 2009), 6주기 추모전 '화가 이강하'(로터스갤러리, 2014), 굿모닝 양림 '남도를 사랑한 서양화가 이강하' 전(양림미술관, 2016), 지역작가 추모전 '이강하 영암을 그리다'(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2017) 등이 있다.

이강하미술관은 2018년에 문을 열었다. 이강하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 시대별 작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이종만 대표 악보집 발간

찬불창작곡 풍경소리 55집과 함께
합창곡 악보집 '향천의 노래' 발간



좋은 벗 풍경소리가 찬불창작곡 풍경소리 55집(노래집)과 풍경소리 합창곡집 '향천의 노래'를 발표했다. 겨울을 맞아 발표한 이번 55집은 '향천의 노래'라는 제목의 합창악보집과 함께 발표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합창악보집 '향천의 노래'는 30여 년 찬불가의 대중화로 불교음악에 헌신해온 좋은 벗 풍경소리 대표 이종만(향천)〈사진 위〉 작곡가의 대표 합창곡 32곡의 악보를 모은 것이다. 풍경소리 55집 CD에는 신곡 '본래 그 자리'(작사·덕신 스님, 작곡·이종만, 노래·김재일)와 악보집에 실린 합창곡 19곡, 총 20곡이 담겼으며, USB에는 악보집에 실린 32곡 모두가 담겼다. 또한 CD와 USB음반에는 피아노 연주곡(피아노 연주·이혜민)을 함께 실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좋은 벗 풍경소리의 55집 발표는 악보집과 함께 발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음반과 함께 발간된 악보집 '향천의 노래'는 작곡가 이종만의 30여 년 불사의 정리이면서, 찬불가 보급의 확장과 악보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만 대표는 "'향천의 노래'는 (재)대한불교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었으며, 어린이·청소년과 대중문화포교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지현 스님과 덕현 스님 그리고 조계사를 비롯한 좋은 벗 풍경소리 대중의 성원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며 "악보집을 출판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가 함께했다. 그 중 작사가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좋은 벗 풍경소리 총재인 지현 스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향천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찬탄하는 법문으로 대중과 함께 하고 있다"며 "찬불가 합창곡집은 불서이므로 찬불가를 부르는 모두가 부처임을 알고,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의 화음을 모두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재완 기자



악보집 '향천의 노래'와 풍경소리 55집

한국문화연수원 탁본체험부스 신설



정현 선사 작품 문수동자 목판 탁본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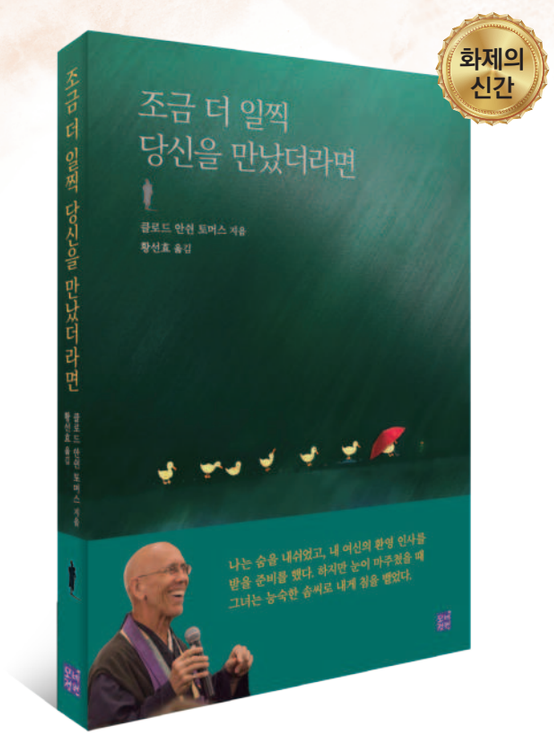
한국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 기와문화관에 문수동자 탁본체험부스〈사진〉를 신설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연수원은 지난 1월 19일 원적에 든 정현 선사의 작품 다수를 기증받았으며, 그 중 문수동자 목판본 8점을 탁본할 수 있는 '정현 선사 문수동자 탁본체험부스'를 개설했다.

이는 평생을 문수동자와 달마도 선화를 수행으로 법보시한 스님의 뜻을 기리고 지혜의 상징인 문수동자 탁본체험으로 모든 중생들이 지혜의 깨달음을 얻고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함이다.

연수원은 이번 문수동자 탁본체험부스를 신설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중이 연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 선사는 평소 그림을 그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내 공부하는 바가 그림을 통해 나타나니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토굴에 앉아만 있으면 그나마 깨친 바를 어찌 전할 수 있을까요? 굳이 문수와 달마도를 그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문수와 달마를 그리는 과정은 분명 마음을 닦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옛 큰스님들께서는 마음자리 한 귀퉁이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 중 수행 아닌 바가 없다고 설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수행'이라고 꼭 집어 말하지 못하는 것은 욕심의 경계를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놓으면 참으로 좋은 수행입니다."

박재완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1~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젊은틱낫한의일기:나를만나는길1962-1966	틱낫한	김영사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4	부처님의생애(무선=보급판)	조계종교육원	조계종출판사
5	낡은옷을벗어라:법정스님미출간원고88편수록*법정스님원적10주기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통도사승가대학의불교철학강의:서양철학교수가통도사에간까닭은	홍창성	운주사
7	맛지마니까야(2)중간길이로설하신경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8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불교는무엇을말하는가(개정판)	김윤수 지음	한산암
10	자타카전서:부처님본생이야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책세상

"결코 다시는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겠다"



젊은 틱낫한의 일기
틱낫한 지음/권선아 옮김
김영사 펴냄/1만58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살아 있는 부처'로 불리며,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스승 틱낫한이 우리에게 남긴 젊은 날의 발자취이다. 이 책은 30대 중반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과 컬럼비아대서 연구하던 시절의 삶과 수행, 고국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후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와 전쟁이 진행되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겪은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까지, 틱낫한이 진솔한 마음을 담아 적어 내려간 일기이자 명상록이다. 독재 정부의 탄압과 전쟁 공포 앞에서도 꺾이지 않던 평화를 향한 기원과 진리를 향한 마음을 틱낫한 본인의 목소리로 전달해 독자에게 생생하고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는게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삶은 심지어 고통 가운데서도 기적"

한평생 평화를 위한 가르침을 펼치며 참여 불교를 설파하고, 걷기 및 마음 챙김 명상 수행 등으로 불교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린 틱낫한이 지난해 1월 우리 곁을 떠나 입적했다. 그는 1926년 베트남서 태어나, 종교인으로서 자비와 평화를 전하며 베트남 근대화를 앞당기려고 노력하다가 귀국 금지 조치를 받고 수십 년간 망명 생활을 했다. 이 책 〈젊은 틱낫한의 일기〉(원서: Fragrant Palm Leaves)는 틱낫한이 길고 긴 망명 생활을 하기 직전인 1962~1963년 미국 프린스턴 대와 컬럼비아 대학교서 가난한 유학생으로 연구와 공부 하던 시절, 1964~1966년 고국인 베트남으로 돌아와 평화운동 하던 시절 등 이 두 시기의 이야기를 틱낫한 스님이 직접 적은 일기 형식으로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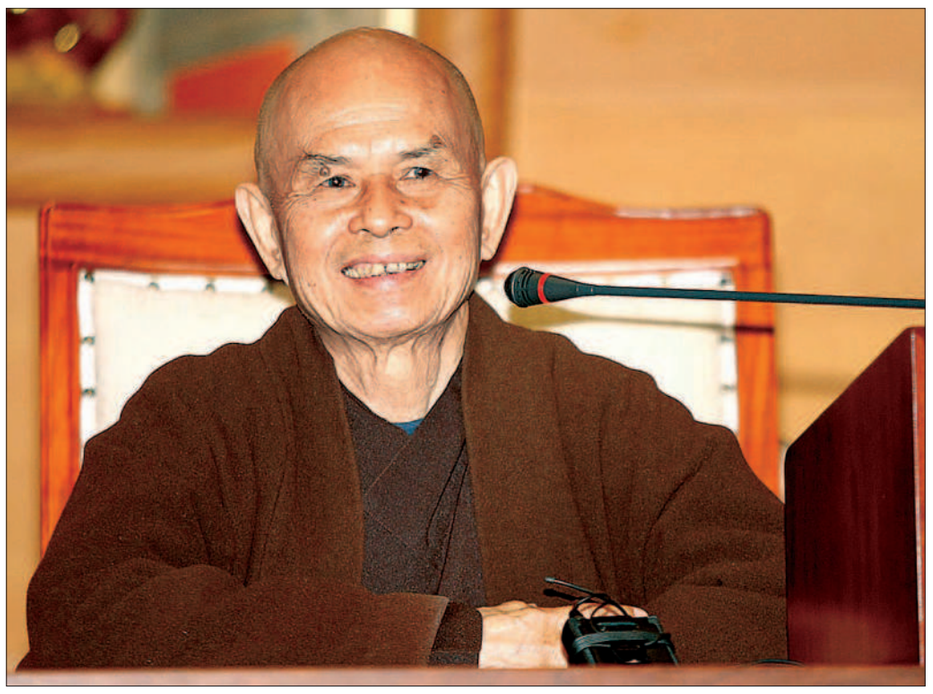
젊은 시절 그의 생각과 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초기 명상록인 이 책이 국내서 조명받게 된 계기는 우리에게 '셜록'으로 유명한 배우 베네딕트 컴버 배치가 제작하고 내레이션을 맡은 영화 〈나를 만나는 길(Walk with me)〉(2022년 5월 국내 개봉)에 내레이션으로 책 속 문장이 소개되면서이다. 하지만 숨겨진 보물 같은 이 책에는 깨달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젊은 시절 틱낫한의 내면적 성찰, 고통과 외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올곧이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킨 한 인간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담겨 있어, 60년이란 시간을 거슬러 오늘의 독자가 읽어도 귀한 감동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심하게 맞고 찢겼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미국 생활 중에도 틱낫한은 이념 간 갈등이 첨예하던 가난한 고국의 현실을 아파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젊은 구도자의 면모를 보인다. 보수적인 불교 지도층에게 밀려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그는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 보살필 암자를 만들기로 한다. 뜻을 함께한 친구들과 1957년 베트남 중부 산악지역에 사원 '프엉보이(베트남어로 '향기로운 종려나무 잎'이란 뜻)'를 일구었으나 베트남전쟁 와중에 파괴되고 말았다. 미국에 건너와서도 그는 프엉보이에서 보낸 소중한 날들과 사람들을 그리워 했다. 그에게 프엉보이는 단지 사원 이름만이 아니었다. 프엉보이는 안식처이자 수행 공동체였으며, 희망이자 진리를 향한 고귀한 마음 그 자체였다.

이 책에서 틱낫한 스님은 "우리는 프엉보이를 절대 잃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스러운 현실이다. 우리는 그 어디에 있든, 그저 '프엉보이'라는 이름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났다. 나는 어제 만에게 편지를 썼다. 그에게 비록 태풍과 돌풍이 우리를 반대편으로 던져버렸지만, 믿음이 우리를 서로에게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손수 일군 프엉보이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은 화톳불처럼 따듯하고, 그런 그리움과 외로움을 동력으로 수행이 성장했노라고 저자는 고백한다. 틱낫한 스님은 책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가장 외롭지만, 폭풍우 끝에서 살아남을 때마다 조금씩 성장한다. 이와 같은 폭풍우가 없었다면 나는 오늘의 나일 수 없다. … 나는 심하게 맞고 찢겼고, 그리고 구원받았다. 깨달음은 폭풍우처럼 일순 몰려왔고, 그때마다 틱낫한은 진정으로 행복했다. 폭풍우는 10월에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것은 지나가는 구름 같았지만 몇 시간 뒤 내 몸이 연기가 되어 둥실 떠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름의 희미한 한 조각이었다.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이 견고한 실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전혀 견고하지 않음을 보았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심지어 깨달음의 경험도 아니다. … 나는 내가 '나'라고 여기던 실체가 사실은 허구라는 것을 보았다. 나는 나의 참된 본성은 훨씬 더 진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한다.



'살아 있는 부처'로 불리며, 전 세계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던 스승 틱낫한 스님의 생전 법문 모습.

틱낫한이 자신을 찾아가는 젊은 날의 기록

그의 가장 내밀하고 푸르른 시절의 명상록

독재 정부 탄압과 길고 긴 망명 생활 지속

그 속에서도 치열히 간구한 진리향한 수행

"선한 행동의 첫 번째 수혜자는 자기 자신"

베트남으로 돌아온 그는 베트남 지역 경제 발전과 교육, 의료를 위한 주민 자치마을인 '스스로 돕는 마을'을 꾸리고 대학 학장을 역임하는 등 활발히 활동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군부는 무능했고, 고위층 불교 승려들은 보수적이고 안일했다. 정치인은 농부들을 속였고, 군부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베트콩을 솎아내기 위해 '전략적인 마을'을 만들어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다. 틱낫한 스님은 책 속에서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어떤 것도 갖지 말고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는다. 군인들이 젊은이와 노인, 여자와 남자를 모으고 특정한 구역으로 그들을 끌고 갔다. … 군인들은 무기 은닉처와 해방 전사들과의 연결고리를 모조리 없애버리기 위해 옛날 마을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의 집이 화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린다. 그리고 소리치며 항의한다."고 위험했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한다.

이같은 상황에도 틱낫한 스님은 희망을 잃지 않았다. 연일 제트기가 내지르는 지속적인 비명이 죽음과 파괴를 몰고 와도, 도시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와도, 어린아이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으로 내몰려도. '스스로 돕는 마을'의 간이 교실에 학생들이 몰려 너무 붐비자, 대책 마련을 위해 부모들이 모여 손수 학교를 짓기로 하고 힘을 모으는 모습에서 희망을 봤다.

틱낫한 스님은 "이 훌륭한 젊은이들은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그것은 내게 커다란 희망을 준다. 나는 그들 노력으로 혜택을 받은 제일 첫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그들의 사랑과 인정 그리고 신뢰를 주고, 그것이 나의 꿈을 새롭게 한다. 자신의 선한 행위의 첫 번째 수혜자는 언제나 바로 자기 자신이다."고 설명했다.

폭력과 죽음으로 얼룩진 전쟁과 탄압 속에서도 틱낫한 스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한다. "마치 무상과 자아가 텅 비어 있음에도, 그토록 많은 잔혹함과 눈먼 야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미워하는 법을 모르는 꽃처럼, 그저 삶의 순환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풀과 새, 구름처럼 말이다."

이번 책인 〈젊은 틱낫한의 일기〉에서 스님은 이 경이롭고 안타까운 4년의 기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까지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한다. "검은 진흙과 하얀 눈이 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는 것을 보기 시작할 때 위대한 자비의 눈을 가질 수 있다. 그 눈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보자"고 당부한다. 용광로 같던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은 위대한 스승이 삶을 통해 보여준 깨달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스님은 책 속에서 말한다. "만일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 당신의 내장을 꺼내더라도 미소 지으라. 그리고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그의 교육, 그의 상황 그리고 그의 무지이다. 그를 보라.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작정하고 덤벼든 자, 당신 위에 불의를 쌓아 올리는 자를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보라."고

〈마음의 숲을 거닐다〉 저자이자 임상심리학 박사인 잭 콘필드는 이 책에 대해 "틱낫한의 책 가운데 가장 다정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뜻이 깊다. 이 책은 그가 심은 경이로운 지혜의 씨앗을 잘 보여준다."고 극찬했다.

▲저자 틱낫한 스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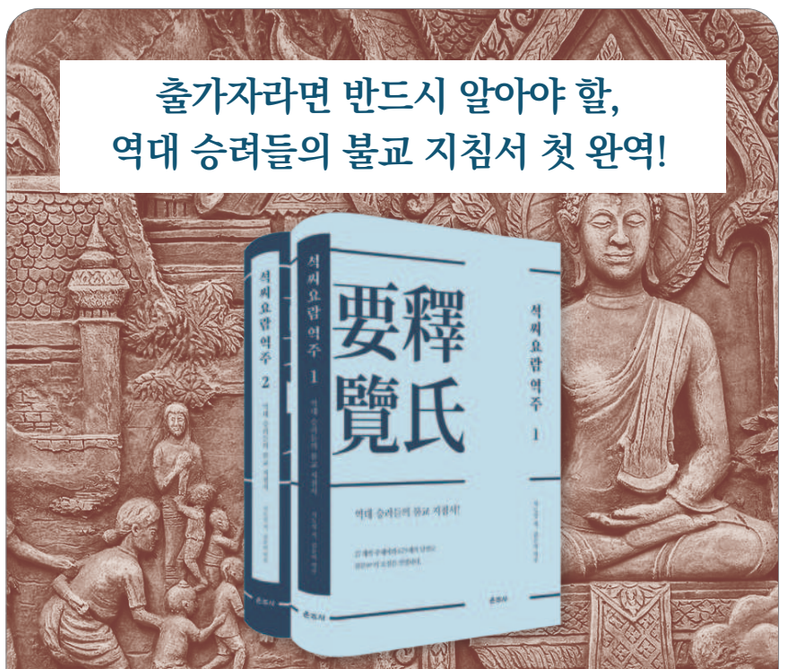
오늘날 선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이자 세계적인 교육자로 70년 가까이 '마음다함(mindfulness)'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평화운동을 전개했고 이런 활동에 힘입어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었으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1982년 보르도에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Plum Village)'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평화운동을 전개했다. 30년 이상 수련회를 조직하고 이끈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자와 청년에게 마음다함을 전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행법을 정립했다. 이러한 깨달음과 가르침에 뿌리를 둔 비종교적이고 비종파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플럼빌리지서 운영하는 '웨이크업 학교'를 통해 수많은 교사들에게 전파해왔다. 2022년 1월 21일 베트남 후티우 사원 내에 있는 거처에서 입적했다. 100여 권의 저서를 출간했으며, 국내 소개된 대표 도서로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입니다〉 〈틱낫한 명상〉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화해〉 〈화〉등이 있다.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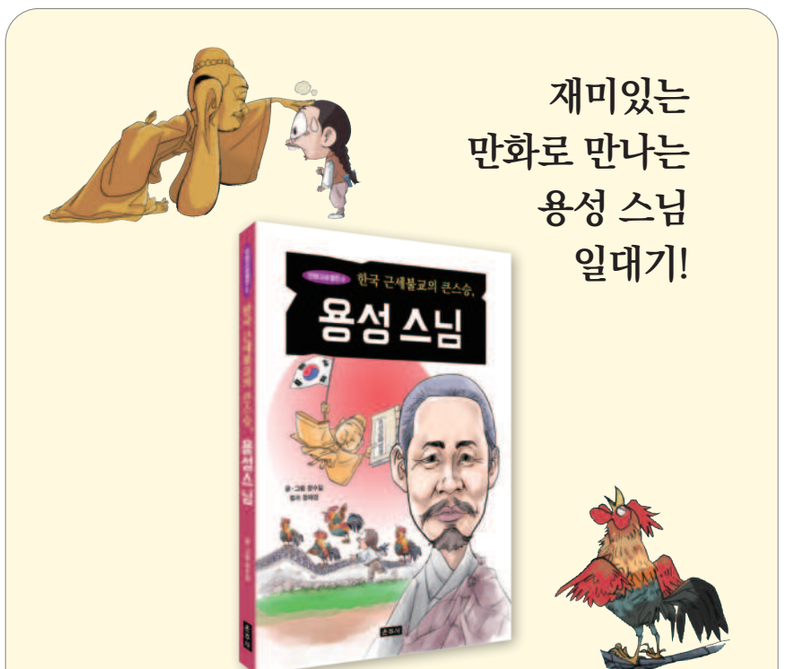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4



▶한줄요약
신문사 기자와 문화재위원 송 서화가가 아디카야의 검의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인도에 도착해 성물이 있는 스리나가르로의 여정을 준비한다.

스리나가르로의 여정을 시작하다

성물을 찾아서 1

불교는 물질적 세계가 아니다. 정신적 세계다. 물질이 아닌 정신세계이다 보니 그것을 다룰 때 실증주의가 내세운 과학적 방법만으로 그 세계를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 왜냐면 과학은 가설을 먼저 세우고 관찰과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지만, 정신적 세계는 그럴 수 없다. 더욱이 근기가 약한 이들은 시각적 환영에 취약하다. 성현의 내부적 갈등까지도 현실적 시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학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저격한다.

오도는 형체 있음의 없음이다. 그러므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본성, 참 나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의식의 연속성, 그 윤회의 모습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할 것인가.

문제는 실증주의가 내세운 과학적 방법만으로 그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정의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 질문은 18세기에 끝났다. 실증적이지 못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하여 매도되고 배척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실증의 눈으로 세계의 겉모습을 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을 일으키는 근원적이고 본질적 문제를 보지 못한다. 더욱이 그 세계의 내면을 파악해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일까? 한때 "불교" 그러면 무조건일 때가 있었다. 대학 졸업 무렵 홀로 외아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사경을 헤맸다. 가난한 대학생은 큰 병원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다. 결국 절로 올라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불교는 신앙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웅변하던 어제의 대학생이 아니었다. 매달릴 곳이라고는 그 분밖에 없었다. 무릎이 해어질 정도로 절을 올렸다. 기도 4일째. 부처님이 비몽사몽간에 보였다. 부처님이 아픈 어머니에게 감로수를 먹이는 꿈이었다. 꿈이었지만 현실 같았다.

그런데 그날부터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아, 이게 부처님의 가피구나.

신문사에 들어와서도 이적을 믿었고 기적을 믿었다.

어느 날 수행이 깊은 스님을 인터뷰하던 중에 어머니가 사경을 헤맬 때 부처님이 오셔서 어머니를 살렸다는 말을 자랑처럼 했다. 그런데 그 스님의 반응이 무서웠다. 대뜸 이러는 거였다.

-혼침(昏沈)이다.

-혼침?

기도를 하다 보면 부처님이 오는 모습을 보는 것이 혼침이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몽중일여(夢中一如)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몽중일여는 꿈속에서도 이게 무엇인가 하는 화두에 잡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래야 깨침이 온다. 그게 되지 않으면 헛것이 보인다고 들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쇠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아! 내가 한동안 헛것에 미쳐 있었구나. 그래서일까? 아니 아니었다. 신문사로 들어와 기자 생활하면서 나는 점차로 옛날의 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기자의 본분은 사실(fact)이다.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기복 신앙화 되어 버린 불교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불교는 신앙이 아니고 철학이라고 주절거리던 예전의 잘난 체하던 대학생이 되지 않고는 그나마 기자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가 없었다. 이적이나 기적 같은 기삿거리는 어디에나 널려 있었다. 그런 것에 미쳐 버리면 불교사상을 제대로 내비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 어머니 병환 중에 내가 헛것을 본 것이라는 판단이 제대로 섰다. 그만큼 간절했기에 나의 뇌가 그런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는 깨우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칼이라고 한다. 그 먼 세월, 석존이 남긴 칼이 썩지도 않고 숨겨져 있다가 사라졌다고 한다. 그것이 내가 일전에 보았던 석존의 머리카락과 무엇이 다른가?

어쨌거나 나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분명히 가보면 헛것일 텐데….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믿자고 하면 설마 하는 생각이 앞섰다.

석존이 남긴 칼. 그래, 그렇다고 하자.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이 얼만가. 그가 남긴 성물이 지금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그것이 세월과는 무관한 사리(舍利)라면 모른다. 쇠다. 녹으면 물이 되는 쇠다. 녹이 슬어 썩으면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 버리는 쇠다. 그것이 꽃이 되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설득력이나 있다. 우파니사드 식 윤회관이라던가? 사람이 죽어 연기가 되고 연기는 비가 되고 비는 풀이 되고…, 풀을 소가 먹으니 소가 되고 소를 사람이 먹으니 사람이 되고 사람은 연기가 되고….

지금 세월에도 쇠를 온전히 간직하기가 쉽지 않다.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그 세월이 무려 수천 년이고 보면. 더욱이 그 성물이 현대식 건물도 아니고 동굴 속에 있다고 한다. 겨우 군인들의 보호나 받고 있단다. 그보다 못한 것들도 잡인이 근접 못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런 성물이 동굴 속에 놓여 있단다. 지금이 육십 년대도 아니고 달나라 별나라 가는 세상에, 하기야 쇠보다 연약한 인육도 수천 년을 견디긴 한다더라만. 미라가 그것 아닌가.

인도라는 나라가 조건상 낭설이 진실처럼 떠도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 가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속아 보았으면서, 어쩌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



모르겠다. 가보자. 가보면 알겠지. 암 그렇고말고. 가보면 알겠지.

국장은 내가 인도로 떠나기에 앞서 문화재위원 한 사람을 데려가도록 했다. 서화가이면서 골동품 전문가라고 하는데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성물을 보지도 못한 마당에 무슨 전문가야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다.

골동품 전문가라는 사람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였다. 오십 대의 건장한 중년 신사였다. 이름은 송만성이라고 했다. 한눈에 연륜이 느껴지는 풍채였는데 코가 유난히 크고 뭉툭했다. 특별히 사진에도 관심이 많아 개인전을 두어 번 연 작가이기도 하다고 국장이 그를 추켜세웠다. 잘 됐다 싶었다. 사진 기자를 데려가지 못하는 터에. 그래서 국장이 그를 골랐을지도 몰랐다.

그 길로 두 사람은 한국을 떠났다. 최종 목적지는 스리나가르 아이슈 무쿠암.

우리는 먼저 인도 뉴델리 천추사원으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금원이라는 법명의 조실스님을 만나봐야 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오오스마라는 인도 뉴델리안 신문기자를 만나봐야 했다. 그가 인도의 고위층으로부터 빼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인도에 떨어지고서야 안 것이지만 성물이 있다는 스리나가르로 바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다. 스리나가르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이 없었다. 비로소 안 것이지만 스리나가르는 인도 북서부의 카슈미르주의 주도였다. 정확히 말해 인도 북부 잠무카슈미르 주의 주도. 젤룸 강 연변에 있는 도시였다.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스리나가르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신성한 도시라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는 인도령이 맞았다.

-스리나가르에 가면 시내에 무굴제국의 왕들이 지은 수많은 정원들이 있어요. 그곳의 정원이 볼만하답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적들이 즐비해요.

이름난 휴양지라고 했다. 견사나 양모를 사용한 융단 제조가 성하다고 했다. 운하와 수로가 있고 배가 주요 수송 수단이란다.

-바로 갈 수가 있나요?

-공항이 있기는 한데….

스리나가르가 워낙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있다고 해도 군용 비행기가 전부라고 했다. 그마저도 우천 관계로 갈 수가 없다고 했다. 버스로 간다고 해도 아직은 길이 열리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기야 지금 세상,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천 관계라면 할 말이 없다. 억지로 가려면 하늘의 정거장이라고 하는 라다크 가는 길을 택해야 하는데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곳이 있어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천상 걸어서 가야 하거나 우회도로를 통해 교통편을 이용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그것도 스리나가르까지 교통편과 길을 잘 알아야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우리는 뉴델리 뒷골목을 찾았다. 여행자 거리 빠르간지에.

수많은 골목길. 지옥이 따로 없다. 중국의 위난성 리장 고성, 태국 방콕 카오산드로를 아시아 최대의 여행지로 꼽지만, 이곳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welcome to the hell). 어지러운 골목길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전에 왔을 때보다 더 열악해 보인다. 여전하군그래.

골목마다 쌓인 쓰레기더미, 이곳에 오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계급사회의 진면목이 보인다. 이곳에서 하층 계급은 사람이 아니다. 지나가는 개도 그렇다. 어디에나 가난의 그림자가 늙은 유령처럼 얽혀있다. 여행객들도 돈 떨어지면 이곳으로 모여든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본토인인지 들어온 사람이 주인인지 모를 정도로 여행객들이 판치는 곳이 이곳이다.

사진 전시회를 두어 번 열 정도라고 하더니 송 서화가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연신 목에 맨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대었다. 휴대폰을 두고 카메라를 메고 온 것을 보면 성능이 좋아 꽤 값나가는 사진기 같았다. 거무스름한 모습이 꽤 멋져 보인다.

중급 정도의 호텔에 들까 했으나 송 서화가도 이곳까지 와 굳이 비싼 방에 머물 이유가 어딧냐며 뒷골목으로 가자고 했다. 그도 젊었을 때 이곳에 다녀봐서 생리를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았다. 최고급 호텔은 말할 나위 없고 웬만한 호텔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비싼 곳이 이곳이라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싼 방을 얻어 보자고 했다.

그런데 전망 좋은 곳은 여행객들이 다 들어차 구할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헤매다 보니 문득 문득 그녀 생각이 났다. 고개를 내저었다. 더는 생각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다.

여기저기 술집이 보였다. 음식점도 있고 마사지실도 있고 여인들이 몸을 파는 창녀 굴도 있다. 비릿하면서도 잘 익은 술 냄새 같은 것이 묘하게 전신을 감아온다.

-어째 짓눌렀던 마성이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인데요?

내 말에 송 서화가가 호호하고 웃었다. 덩치에 비해 웃음이 여자 같다. 그도 뒷골목의 분위기에 좀 달뜬 표정이었다.

-이 나라 처음 아니신 것 같은데요?

-내가 물었다.

-대학생 때 몇 번요.

-그땐 더 열악했겠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지요. 그때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그 열악함이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내가 이번에는 웃었다.

-이런 나라에서는 생리에 맞게 난장을 치며 여행을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객기를 부렸는지….

-그럴 만한 땅이지요. 〈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❸ 세계적인 명상 붐과 한국불교의 과제 1



▶한줄요약
스티브 잡스가 선 정신으로 창업한 애플은 스마트폰으로 세계 최고 기업이 됐다. 잡스의 이러한 가치관은 사업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줘 전 세계에 인문학 정신과 선 명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세계적인 명상 붐에 조응한 한국불교의 변화가 기대된다.

명상, 과학적인 효과 앞세워 세계적으로 확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상 붐이 크게 일고 있다. 지금 서양에서 유행하는 힐링 명상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참선에 기반하여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대중화된 참선법이다. 왜 서양 선진국을 중심으로 명상이 확산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국불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대인을 가장 괴롭히는 스트레스

현대인은 누구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세계는 일등만이 잘 사는 힘든 시대가 되었다. 세계 최고 또한 경쟁자를 압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밀려날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 산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현대인은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니 스트레스와 번아웃(burnout, 쌓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신이 지친 상태)과 같은 피로가 나날이 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만연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적절히 치유하지 못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이어져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

프랑스서 명상붐 일으킨 플럼빌리지

절대 신(神)을 믿는 이웃 종교는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신의 뜻이라 말한다. 그러니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신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믿음 천국, 불신 지옥' 이 이분들이 제시하는 답이다. 신에 의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좋은 길이다. 하지만, 서양 선진 국가의 종교 흐름을 보면, 신 중심의 종교가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다.

반면에 불교의 지혜는 내 밖이 아니라 안을 바로 보라 한다. 몇 년 전에 선원 수좌스님들과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축 불사를 위해 유럽의 유명한 명상센터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그중에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벽지(僻地) 보르도 지방에 있는 틱낫한스님의 플럼빌리지를 가보고 느낀 바가 컸다.

베트남에서 평화운동을 하다가 프랑스로 망명한 틱낫한스님은 1982년에 프랑스 농촌 보르도에서 작은 농가를 하나 인수하여 명상 공동체를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명상 공간이 없어 소 키우던 외양간을 청소해서 명상실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에 방황하던 프랑스인들이 플럼빌리지를 찾아오자 자기 마음을 바로 보는 명상을 안내하여 자기 체험을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간 뒤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늘어나 지금은 4개 마을 규모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명상센터로 발전하였다. 틱낫한스님의 명상센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부와 서부에 큰 명상센터가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미국 등 선진국일수록 심해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 문제를 신 중심의 종교에서는 믿음 이외에 별다른 치유책이 없지만, 불교에는 참선 명상이라는 탁월한 대안이 있다.

선의 지혜로 세계 최고 기업을 일군 스티브 잡스

20세기 후반기에 미국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에 미군 참전을 반대한 반전운동을 계기로 히피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양의 정신문화인 명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시대에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킨 비틀즈가 그러했고,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명상가들이다.

특히 스티브 잡스(1955~2011)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스마트폰을 만든 걸출한 인물이다. 그는 선종 5가(五家)의 한 문파인 일본 조동종(曹洞宗) 선승 오토가와 고분치노(乙川弘文, 1938~2002)에게 참선을 배웠는데, 참선에 심취하여 출가의 결심을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일본인 스승은 출가를 만류하며 "재가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참선을 할 수 있다. 당신은 비즈니스가 더 맞는 것 같다."고 안내한 것을 계기로 잡스는 애플을 창업하게 된다. 잡스는 결혼식 주례로 참선 스승을 모실 정도로 참선에 열정적이었는데, 잡스가 선 정신으로 창업한 애플은 이후 스마트폰으로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다.

잡스가 애플을 경영하면서 직원들과 토론 중에 한 말은 그의 안목을 보여준다.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최고급 카메라와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만들자고 하자, 한 직원이 그렇게 하면 너무 비싸서 누가 사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잡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최고의 명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잡스는 단지 먹고 사는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업을 경영한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지혜이고 선 정신이다. 개인의 이익과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세계에 불고 있는 명상 열풍

잡스의 이러한 가치관은 사업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전 세계에 인문학 경영과 선 명상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바야흐로 동양에서 시작된 불교의 참선 명상이 기독교 전통의 서구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어 삶의 지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미국 첨단 기업들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에는 명상 붐이 크게 일어났다. 구글의 엔지니어들도 회사에서 명상을 시작했고,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명상을 한다고 뉴스에 나올 정도다.



외양간을 개조한 플럼빌리지 명상홀.

현대인 가장 괴롭히는 스트레스
과학·의학·심리학 등과 연결돼
조계종 간화선 종책은 아쉽지만
도심 명상센터 건립 기대 모아



결혼식에 주례를 선 일본 선승과 스티브 잡스 부부.

미국 MIT대 존 카밧진 박사는 대학 시절 접한 히피 문화를 통하여 불교 참선을 만났다. 그는 한국 조계종의 숭산(崇山, 1927~2004) 스님을 만나 참선을 배우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창의력과 집중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체험한다. 그는 불교 참선을 바탕으로 다양한 명상 전통을 공부하고 연구하여 마침내 1979년 매사추세츠 대학 병원에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약칭 MBSR)'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에게 안내하기 시작하였다. 카밧진의 MBSR은 병원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치유 프로그램으로 크게 주목 받았다. 이후 전 세계 주요 병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자극 받아 영국 옥스퍼드대에서는 MBCT(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금 서양에서 불고 있는 명상 열풍은 동양에서 출발한 불교에서 배워간 것이지만, 불교 명상법을 바탕으로 과학, 의학, 심리학과 연결하여 새로운 명상과학이라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서양은 불교의 깨달음을 위한 참선 명상법을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 치유를 위한 생활 명상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업, 병원, 학교, 스포츠, 군대 분야까지 명상을 활용한 심리 치유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 역수입되는 서구 명상 프로그램들

미국 등 서구의 명상 흐름은 21세기 들어 세계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도 전해지고 있다. 초기에는 명상가들 중심으로 알려지다가 지금은 심리학과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거의 대세가 된듯하다. 여기에 더하여 삼성, LG, SK와 같은 국내 최고 대기업들이 임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명상이 활용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한 임원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애플과 구글의 명상 도입 사례를 참조하여 임직원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삼성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중이다. 특히 몇 년 전에는 경북 영덕 칠보산 중턱에 동해 바다를 조망하는 멋진 뷰를 가진 곳에 큰 연수원을 건립하여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이나 심리 상담학 분야에서는 존 카밧진의 MBSR과 옥스퍼드대의 MBCT 프로그램과 같은 서구 명상 프로그램이 병원과 학교,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동양에서 탄생한 불교 명상은 이제 서양으로 가서 과학과 만나 명상의 과학적인 효과를 앞세워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 사회에도 도입되고 있다. 아마도 이런 흐름은 이제 대세가 된 거 같다.

이것은 불교에 좋은 일인가? 아니면 불교에서 배워가서 불교를 어렵게 만들 것인가?

서구 명상 프로그램 한계와 불교 대안

세계적인 명상 붐에 조응하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도 그동안 몇 가지 시도가 있었다. 먼저 2005년도에 간화선 대중화 종책 차원에서 조계종 교육원과 전국선원수좌회가 공동으로 간화선 수행지침서인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조계종출판사)을 편찬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10주 과정의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하지만, 원장 소임자와 실무자의 변동으로 간화선 대중화 종책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사이에 남방 상좌부승가의 위빠사나 명상과 미국의 명상 프로그램은 더욱 더 대중에게 다가갔다. 불교 명상법 중 최상승이라는 간화선은 세계적인 명상 붐에 종단 차원의 역할이 부재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 사이에 힐링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개인과 기업, 병원, 학교, 스포츠계에까지 대세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계종에서는 변화의 기운이 보인다. 37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진우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명상의 대중화를 위해 명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도심의 명상센터 건립을 종책으로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일이다. 한국불교의 변화가 기대된다.

다음 호에서는 서구 명상 프로그램의 문제와 한국 선의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디지털 불교통신대학
대학장 서무선

기존의 통신대학 과정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핸드폰, PC에서 강의를 시청할 수 있고 책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보강하였습니다.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교육과정 : 1학기 ~ 4학기(각과정 6개월/2년후 졸업)
- 개 강 : 2023년 3월 16일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 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원서교부 : 2023년 1월 부터
- 개 강 : 2023년 3월 2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상주권공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 개 강 : 2023년 3월 7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등록민간자격(제2018-00234호) 과정

제9기 불교명상지도사 2급 과정 수강생 모집

- 대 상 : 명상수행 또는 명상지도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
- 수강기간

구 분	교육 (총 15주)	워크숍 (1회)
교육기간	2023년 3월 4일(토)~ 7월 1(토)	2023년 7월 8일(토)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9:30~16:3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토요일 9:00~21:00 (점심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 수강방법 : 대면 및 비대면(zoom) 강의. 단 교육 5회, 워크숍은 대면 필참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
- 모집마감 : 2023년 2월 28일(화) 17시
- 수 강 비 : 108만원 (교육비 98만원+워크숍비용 10만원), 카드 · 분납 가능
- 입 금 처 : 국민은행, 023501-04-181820,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 신청방법 : 우편 및 팩스 접수, E-mail : jabi3719@daum.net / fax : 02-737-8802
  * 교육신청서는 홈페이지(www.kbcd.org)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특 전 : 1.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2급 응시자격 부여
  2.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
  3. 교육비 할인 (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본원회원 20%)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T. 02)737-7378 홈페이지 www.kbcd.org
주소 (02842)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59, 1층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❸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 한줄 요약
화엄사 목조삼신불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불교미술사에서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된다. 첫째, 석가모니불-여래형 비로자나불-보관 쓴 보살형 노사나불로 구성한 한국 고유의 삼신불상으로서 국내유일의 조각 삼신불상이라는 점. 둘째, 보관 쓴 보살형 노사나불 조각상 역시 국내 유일의 성보라는 점이다.



한국의 기념비적 목조비로자나 삼신불상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봉안한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체상용 삼대원리와 삼신불

노자는 〈도덕경〉 제42장에서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을 설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이런 노장의 도가사상은 유가의 태극도설과도 통한다. 태극-음양오행-남녀와 만물화생의 흐름으로 이해하고 만물은 낳고 낳는 변화를 무한히 계속한다고 본다. 우주원리로서 본체인 도, 또는 태극이 있고 음양 스스로의 조화로움으로 우주만물이 생성되고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다는 철학이다. 그것은 '체상용(體相用)' 삼대(三大)원리와 통한다. '삼대' 는 '세 가지 큰 것' 으로 본질이 마음이기 때문에 크다. 삼대는 근본원리 혹은 진리의 본체로서 '체' , 과보의 결과로서 이룬 양상의 '상' , 체에 근거한 무궁무진한 작용으로서 '용' 을 이른다. 체상용은 불가분의 삼위일체를 이룬다. 불교에서도 그 같은 사유체계가 나타난다. 삼신불(三身佛) 조형의 바탕에 체상용 삼대원리가 스며있다. 삼신(三身)은 세 가지 몸이다. 부처님의 현현을 세 몸으로 인격화하여 나눈 것이다. 진리를 인격화 한 법신(法身), 수행과 공덕장엄의 과보로 이룬 몸 보신(報身), 역사 속에 중생구제를 위해 나투신 몸 화신(化身)으로서 각각 체, 상, 용에 대응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의 조화로 세계일화인 화엄의 연화장세계를 이룬다. 하나, 둘, 셋의 우주원리와 조화, 무궁무진한 자비작용으로 만유는 나와 타자가 연기법으로 연결돼 있는 일중일체다중일(一中一切多衆一)의 화엄의 통일을 이룬다. 삼신불이 곧 일체 화엄세계의 인격화다.

여래형 비로자나불과 보살형 노사나불 구성

삼신불 조형은 석가모니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을 삼위일체로 구성한다. 그런데 한국불교에선 여래형 석가모니불-여래형 비로자나불-보관 쓴 보살형 노사나불의 독특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삼신불 조형은 칠장사 오불괘불탱(1645년), 갑사 삼신불괘불탱(1650년), 운문사 비로전 삼신불도(1755년), 통도사 대광명전 삼신불도(1759년) 등에서 보듯 대부분 불화 속에 등장한다. 단청이나 문자장엄 형식에선 범자 종자자(種子字)로 표현한다. 삼신불의 범자 종자자는 '옴아훔' 이다. 〈제교결정명의론〉에서는 "훔 자는 법신이고, 아 자는 보신이며, 옴 자는 화신으로, 이 세 글자가 삼신을 포섭한다."고 설명한다. 조각의 형식으로는 극히 드물다. 1628년 인목대비의 발원으로 조성한 남양주 수종사 금동불상군(18체) 중의 삼신불 정도다. 그나마 금동불상군은 팔각오층탑에 봉안한 불상이었다. 법당에 모신 삼신불 조각은 좀체 만나기 어렵다. 1626년에 현진 스님이 수화승으로 조영한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의 소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은 한국 고유의 삼신불 구성과 유사하지만 보신불이 아미타여래 형상인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난다. 한국 고유의 삼신불 구성으로 조각한 경우는 구례 화엄사 대웅전에 모셔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이 유일한 사례다. 희소성에 의해 2021년에 국보로 지정됐다.

법당, 불상, 후불탱 모두 국가문화유산

1636년 〈화엄사 사적기〉에는 화엄사 대웅전의 원래 이름이 '대웅상적광전(大雄常寂光殿)' 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유재란으로 소실된 '대웅상적광전' 이 1630년경에 벽암 각성 스님 주도로 재건되면서 '대웅전' 현판으로 바뀌 달았다. 같은 시기 보은 법주사의 '대웅대광명전' 을 '대웅보전' 으로 변경한 것과 같은 현상이다. 목조삼신불은 향좌측부터 석가모니불-비로자나불-노사나불의 구도로 배치했다. 세 불상마다 각각의 독립된 닫집을 갖췄다. 후불탱화도 목조삼신불 배치와 배대해서 삼신불탱화로 짝을 맞췄다. 삼신불후불탱화는 1757년에 조성된 3폭 불화로 높이가 4.4m에 이르는 대형불화로서 18세기 최고의 화승 의겸 스님이 13명의 화승들과 협업으로 완성한 생애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다. 의겸 스님 화파의 고유한 특질인 색채에서 양록과 주홍의 한난대비가 드러난다.

삼신불탱화도 보물로 지정돼 대웅전(국보)-목조삼신불(국보)-삼신불후불탱(보물)으로 연결됨으로써 통일적이면서 불가분의 성보 문화유산의 유기성을 갖추게 됐다. 화엄사 대웅전에서처럼 불전건축, 불상, 후불탱(목각탱) 모두 국가문화유산인 경우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예천 용문사 대장전 등이 있다.

화엄사 목조삼신불좌상은 목조불상으로선 대형급이다. 비로자나불 높이는 276cm, 노사나불은 268cm, 석가모니불은 248cm나 된다. 대좌 높이를 제외한 불상 자체만의 크기다. 크기가 법신, 보신, 화신의 순서대로다. 세 불상 모두 장육상의 절반 크기인 '반장육상(半丈六像)' 규모를 능가한다. 장육은 16척에 이른다. 1척을 30cm로 잡으면 장육상의 크기는 4.8m 정도다. 목조불상이 반장육상의 크기를 능가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 그 정도 규모의 불상은 대개 나무 틀에 흙으로 빚은 소조상 형식으로 조영한다.

유일한 한국 고유 형식의 삼신불
희소성 인정 2021년 국보 지정돼
세 불상 모두 반장육상 규모 능가
청헌파·인균파 두 계파 협업불사
청헌 · 응원 등 조각승 18명 참여

복장유물서 나온 책자 형식의 〈시주질〉

목조 비로자나삼신불좌상의 세 불상 중에서 석가모니불과 노사나불에서 복장유물이 나왔다. 2015년엔 석가모니불에서, 2020년엔 노사나불에서 나온 복장유물을 조사했다. 두 불상에서 공통적으로 후령통과 오방경, 다라니, 시주질, 경전을 포함한 전적류 등이 나왔다. 석가모니불 복장에선 62점이, 노사나불 복장에선 78점이 확인됐다. 두 불상에서 나온 전적류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전류는 〈묘법연화경〉, 〈원각경〉, 〈능엄경〉, 〈대승기신론소〉, 〈화엄경현담회현기〉 등이 있으며, △강원 교재류는 〈치문경훈〉, 〈선요〉 등이 있고, △불교의식집은 〈청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등이 있다.

복장유물 중에서 특별한 역사적 가치로 조명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시주질〉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록물이다. 〈시주질〉은 보통의 시주질, 연화질 기록처럼 낱장의 넓은 한지에 조영 내력을 기록한 형식과는 전혀 다르다. 아예 책자 형식이다. 석가모니불 복장에서 나온 〈시주질〉은 22페이지, 노사나불의 것은 38페이지에 이른다. 마치 삼신불상 불사에 대한 종합보고서처럼 기록하고 있다. 불상 제작 시기, 발원, 시주 물품과 시주자 명단, 조각승과 증명, 화주의 기록, 봉안 장소 등의 기록을 망라하고 있다.

〈시주질〉에 의하면 목조삼신불상은 1634년 3월에 불사를 시작하여 다음해 1635년 가을에 완성하여 대웅전에 안치하였다. 노사나불 〈시주질〉에서는 극락왕생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 불상을 보면 보리심을 내서 악을 금하고 선행을 닦기를 원합니다."라고 발원하고 있다. 그와 함께 "주상전하성수만세, 왕비전하수제년, 세자저하수천추"로 왕실 축원을 덧붙였다.

각성 스님 화주와 두 계파 협업으로 조성

불상은 누가 제작하였을까? 삼신불의 대형 목조불상 조각공정임을 반영이라도 하듯 조각승 18명이 동원됐다. 중심 승장은 청헌, 응원, 인균 스님이다. 17세기 전기 최고의 조각승으로 평가되는 현진 스님 계보의 청헌파와 응원-인균파의 두 계파가 협업으로 진행한 불사였다. 학계에선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은 청헌파가, 노사나불은 응원파가 조각한 것으로 추정한다. 두 유파의 조각풍을 그대로 반영한 듯이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은 근엄하고 선이 비교적 경직된 반면 노사나불은 상호도 한결 부드럽고 선도 유연해서 대비가 된다.

그런데 어떤 배경으로 둘 이상의 유파가 한 자리에 모여 협업으로 불상을 조영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왕실발원 등에 의한 대형불사가 추진되거나 불사의 모든 조직, 노동, 자금을 통솔하는 화주(化主)의 강력한 중심력과 축적된 신뢰에서 가능할 것이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열악한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파탄난 민중의 삶이 될 것이다. 17세기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 등 계속된 전쟁으로 초토화 지경이었다. 그런 상황에선 유파의 경계를 따질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17세기 전후복구와 불사의 중심에 강력한 한 분이 계셨다. 화엄사에 주석했던 벽암 각성 스님이다. 벽암 스님은 구례 화엄사, 완주 송광사, 보은 법주사, 합천 해인사, 하동 쌍계사 등의 전후 사찰 재건에서 부동의 중심에 있었다. 불상 조성에서 당대 최고의 조각승인 현진, 청헌, 무염, 해심, 응원, 인균 등을 동원했다. 스님은 대공덕주였으며, 모든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새로운 칭호 '판거사(辦擧事)' 라고 칭해졌다.

불사 시주명단에 이름 올린 왕실인물

두 불상의 〈시주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주자 명단이다. 계급과 계층, 성속을 망라한다. 중복명단을 포함해서 노사나불의 시주질에선 1400여 명, 석가모니불 시주질에선 13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 왕실 관련 시주자는 24명으로 보인다. 7명은 왕실 사람이고, 17명은 왕실에 종사하는 상궁이다. 왕실인물 7명은 선조의 아들 의창군 이광 부부, 선조의 사위 신익성 부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부부 등이다. 숭유억불의 조선사회에서 왕실인물의 시주명단 등재는 놀라운 변화다. 왕실의 적극 후원과 2000여 명의 시주행렬, 벽암 각성 스님의 강력한 통솔력, 당대 최고의 조각승이 결집하여 이룬 목조삼신불좌상. 그 모든 인연 조건들은 한국의 목조불상 걸작이 탄생하는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했다.

화엄사 목조삼신불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불교미술사에서 기념비적 걸작으로 평가된다. 첫째, 석가모니불-여래형 비로자나불-보관 쓴 보살형 노사나불로 구성한 한국 고유의 삼신불상으로서 국내유일의 조각 삼신불상이라는 점. 둘째, 보관 쓴 보살형 노사나불 조각상 역시 국내 유일의 성보라는 점이다. 보살형 노사나불은 공주 신원사 괘불탱, 예산 수덕사 괘불탱,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 화엄경 변상도 등에서 종종 볼 수 있지만 조각으로는 화엄사 대웅전 목조노사나불이 유일하다. 더구나 제작연도와 조각자, 왕실 시주자 명단까지 갖추고 당대 최고의 조각승의 협업까지 더해졌다.

〈사진작가〉

출강 및 통신 2023학년도 제32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2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3년 2월 24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홈페이지 : http://pubsa.net FAX : 02)737-5305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종 합 향 : 130.000원 • 선 향 : 80.000원
• 불 향 : 10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 가루향(도향) : 90.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교인문학살롱

❸ 백거이의 삶과 문학세계

▶유한근 문학평론가는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당선. 〈현대불교문학의 이해〉, 〈한국 수필비평〉, 〈원 소스 멀티-유스, 문학이야기〉, 〈인간, 불교, 문학〉 등의 저서가 있다. 만해 불교문학상, 한국문학평론가협회상, 신곡문학상 대상, 여산문학상, 동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 · 교무처장을 역임했다. 현재 〈인간과문학〉 주간.



쓸모있는 문학 추구…'불교 미학' 차용

중국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白居易)는 당송팔대가로 거론되는 시인은 아니지만, 두보와 이백과 함께 당을 대표하는 삼대 시인의 한 명이다. 자는 낙천(樂天)이고, 호는 향사거산(香士居山) 혹은 취음선생(醉吟先生)이라 불린다.

백거이는 29세에 진사 시험에 합격, 35세 때 창안의 현위 벼슬로 할 때 자신의 대표작이 된 〈장한가(長恨歌)〉로 세상에 이름을 알렸다. 그후 풍자시 〈신악부(新樂部)〉 50수와 〈주증금〉 10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58세가 되던 해 시와 술과 거문고를 삼우(三友)로 삼아 '취음선생' 이란 호를 쓰며 나날을 보내다가 옛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자 용문의 여러 절들을 순회하며 지내다가 향산사(香山寺)를 보수 복원하여 '향산거사' 라는 호를 쓰게 된다.

이로써 백거이 시인은 유교, 도교 시인으로부터 불교 시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유백창화집(劉白唱和集)〉 5권, 〈백씨문집(白氏文集)〉 67권을 사찰에 봉납하기도 한다. 71세 때에 이르러 형부상서(刑部尙書)로 추증받고 정계를 물러서지만, 백거이는 조종의 불교탄압정책을 대응하는 풍자시를 쓰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한다. 75권의 전집의 편정(編定)이 그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그의 시를 일별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한 불교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백씨 장경집(白氏長慶集)〉50권과 〈백씨문집(白氏文集)〉에 정리된 시 2200수는 문장이 짧고 평이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주목된다. 그것은 그의 시가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인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당대의 현실의 모습을 반영하는 자아 구현의 시와 현실구현의 시적 경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백 시의 몽상적이기 보다는 두보 시의 리얼리티가 강한 시를 리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독자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백거이의 시 세계는 그의 삶이 그러했듯이 유교적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다가 차츰 도교와 불교사상 속으로 들어가는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백거이가 불교를 모티프로 쓴 초기의 시에서 주목되는 시는 사찰 짓기로 혈안이 되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귀족들을 비판한 시 '양주각(兩朱閣)' 이 주목된다.

"절 문에는 임금이 써 준 금빛 글자가 걸려있고, 비구니 스님의 암자나 절 마당은 마냥 넓기만 하여, 푸른 이끼. 밝은 달이 비쳐 한가롭기만 하다. 하지만 겹겹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에는 몸 둘 곳조차 없구나"라고 그의 나이 38세에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절을 짓기 위해 백성들이 살아야 할 데를 침범하여 그들을 쫓아내는 벼슬아치와 절 식두들을 비판하는 시를 쓰면서 불교를 모티프로 하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2년 후 백거이는 어린 딸 금란과 모친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극도로 상심하여 '자각(自覺)' 이라는 시를 쓰게 된다. 이 시에서 백거이는 불교에 귀의하려는 의지를 엿보인다. "나이 40은 아직 늙은이라 못하겠지만,/ 슬픔에 시달려 벌써 골이 못쓰게 되었네/(…)/두려워 말고 슬퍼하지 않음이/ 노병을 없애는 약이리라/(…)/나는 들었노라 불교의 가르침에/ 해탈문이 있다고,/ 마음을 명경지수 같이 가지고/ 몸을 뜬 구름같이 보고,/띠끌이 묻은 옷을 떨어 버리고,/ 생과 사의 테두리로 벗어나리라/맹세하리라! 지혜의 물로/번뇌의 먼지를 영원히 씻고,/ 장차에는 인간적인 은애의 정에 엉키어 걱정과 슬픔의 씨를 뿌리지 않겠노라"라는 깨달음을 시로 노래한다.

이 깨달음은 불교가 해탈을 목표로 하는 종교라는 사실이 아니라, 생과 사의 경계를 허물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시로 이 시를 정점으로 하여 그의 불교시는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 대표하는 삼대 시인으로 평가
35세에 쓴 '장한가'로 이름 널리 알려
모친과 어린 딸 잃으며 불교에 귀의해
리얼리티함이 강점… 공리 추구 특징
고통 극복 문예사상으로 '불교'를 선택

다. 이 시 속에는 인간의 모든 번뇌를 불교 교리의 핵심인 사성제(四聖諦)로 이해하고, 시인은 그것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마음가짐을 토로한다.

따라서 이 시는 '죽음' 이라는 인간의 기본문제를 딸과 모친의 죽음으로 인해 선험하여 그것의 극복방안을 유교나 도교의 경전보다는 불교의 중심 교리에서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이 시에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시창작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시의 제목인 '자각(自覺)' 이라는 제목이 주목된다. 주제를 시의 제목으로 정하는 대표적인 예인 셈이다. '자각' 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을 말한다.

또한 이 말의 불교사전적 의미는 "삼각(三覺)의 하나. 스스로 깨달아 증득(證得)하는 각(覺)을 이른다" 부처의 깨달음을 이른다는 의미이다. 자각은 세가지 깨달음의 하나로 스스로 깨닫는 경지이다. 이러한 깨달음은 문학과도 연결된다. 자아 성찰을 통해 깊은 사유를 이르러 작은 깨달음에 갖게 되는 문인들의 창작 태도와 불교 수행 방편의 과정과 목표가 같음을 백거이는 이 '자각' 이라는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백거이(白居易, 772~846)의 초상화. 자는 낙천(樂天)이고 호는 취음선생(醉吟先生) · 향산거사(香山居士)이다.

시 '출부귀오려(出府歸吾廬' 는 백거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지내며 62세에 지은 시이다, "퇴청하여 내 오두막 돌아오니/조용히 편하고 마냥 한가로워라/더욱이 찾아 와 만나자는 손 없고/이따금 절에는 중이 병문안 올 뿐/집에는 머슴아이 십여 명이 있고/…/몸을 한적하게 지니면 스스로 기품도 고귀하게 될 것이니/어찌 반드시 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할 건가//…//오직 부귀의 이름만이 있을 뿐/실재로 부귀는 누리지 못하노라"며 모든 것, 관직이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자적하는 시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 시 "이따금 절에는 중이 병문안 올 뿐"에서의 절과 중은 장기근이 편저한 〈백낙청〉에서는 "태화 6년부터 향산거사라는 호를 지었으며 이때 내왕한 중은 주로 낙양의 서남쪽 향산사의 중여만(如滿)"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렇듯 백거이는 사찰과 스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시 세계를 확충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중국의 통치 구조인 유교와 토착 종교 이기도 한 도교사상에 불교사상을 작품 속에 차용하는 문제는 위세서 살펴본 시 '자각' 과 시 '화신광(和晨光)' 에서 불교 사상의 현실 극복과 작품 수용의 우수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 칭송하게 된다.

또한 백거이 시인은 70세를 넘기면서 쓴 시 '달재낙천행(達哉樂天行)' 에서는 시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서두 부분에서 요약하여 보여주고, 후반부에서는 득도의 경지, 그 모습을 보여준다. "깨닫고 달통한 백락천은/낙양에 파견된 지 13년"을 시작으로 해서 시의 서두에서는 유교적인 삶을 살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현대시로 보면 리얼리티 시 혹은 이야기 시의 정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칠순이 되자 이내 벼슬을 사직하고/봉록이 반감되기 이내 벼슬을 사직하고//…//지금 내 나이 이미 71세로/눈 어둡고 수염 희고 정신 흐리니/아마도 내 몫 다 쓰지 못하고/아침 이슬보다 빨리 황천에 가리라/허나 죽기 전까지는 더 산다고 나쁠 것도 없으니/허기지면 먹고 즐거우면 마시며 조용히 잠을 자리라/사나 죽으나 별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노라/깨닫고 달통했도라 백락천은 달통했노라" (장기근 편저 〈백낙청〉 참고)라고 곧 닥쳐올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노년의 안온한 삶을 노래한다. 이 시의 경우에는 백거이의 투철했던 노장사상이 차용된 시이다. 이 시의 제목 '달재낙천행(達哉樂天行)' 이 그것이고, 이 시의 후반부의 "/사나 죽으나 별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노라"가 그것이다.

그러나 "깨닫고 달통했노라 백락천은 달통했노라"라는 마지막 시구절은 도교와 불교사상을 수용한 노래(行)로 보여진다. 특히 '깨닫다' 에 함유하고 있는 의미로 보아서도 그러하고 백거이의 시 '자각' 에서의 의미로 보아도, 이 시에서의 "깨닫고"는 '자각' 과의 맥락에서 "부처의 깨달음"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불교와 문학이 만나는 자리를 나는 '깨달음' 의 자리로 인식한다.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그곳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에서 '깨달음' 을 다른 이름으로 지혜라 지칭할 때, 불교와 문학의 접점은 자명해진다. 불교의 깨달음의 길이 여러 길이 있듯이 문학의 경우에도 장르에 따라 그 길이 달라진다. 시의 경우에만 보아도 시의 경향이 다양한 것처럼 고대시의 경우에도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거이 시의 경우에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의 시의 경향은 이백의 활달하고 판타지적인 시의 경우와는 달리 두보시의 경향에 속하지만, 리얼리티한 현실적인 시 경향에 유 · 불 · 선사상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보와는 변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공리성을 중시는 문학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쓸모없음의 문학이 아니라 쓸모있음의 문학으로써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극복의 방안을 종교사상에 의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백거이는 불교사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삶의 고통을 일탈하기 위한 문예사상으로 불교미학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백거이 시를 환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주공부 어렵지 않다, 이 강의로 끝낼 수 있다.
19기 명리학 온/오프라인 수강생 모집
3월 6일 (월요일) 개강. 주 2회 6개월 과정
● 매주 월/화요일 2시~5시(3시간) ● 실관/통변중심 강의
■교육과목 : 수리역학매화역수, 사주/오주 명리학, 일주론, 성명학
■강 사 : 이동현 나는역학이다 대표원장(10만명 실관, 17년 강의)
■특 전 : · 온/오프라인 동시 강의
· 역학상담사 자격증, 나는역학이다 학술위원 위촉장 수여
· 전과목 동영상무료시청
■수 강 비 : 월/화요일반 : 각 과목 월 30만원
■교육장소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8번출구 첫건물 나는역학이다 강의센타
다산밀축사주 나는 역학이다 02)877-8771, 010-9687-0080



화제의 신간
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
불교계의 역/학/비/법
수리역학매화역수는 우리나라 불교계의 고승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온 역합비법서입니다.
이동현 지음 / 549P / 54,000원
※서적구입 & 동영상신청 나는역학이다. 교보,영풍 등 전국서점
NAVER 나는 역학이다 검색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중생의 生은 '다겁다생'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⑤ 바사닉왕과의 대화, 윤회

〈원문〉 그때 바사닉왕이 일어나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가 옛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가전연과 비라지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열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부처님을 만났으나 그들의 말에 의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생기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경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대중들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대왕에게 말하였다.

"왕의 몸이 여기 있으니 묻겠습니다. 왕의 육신이 금강석처럼 항상 그대로 죽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변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존이시여, 이 몸은 마침내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데 어떻게 죽을 줄을 압니까?"

"덧없이 변하는 이 몸이 점점 늙어감으로 이 늙음이 쉬지 않아 반드시 죽을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하외이다. 그러나 왕의 몸이 죽을 때에 왕의 몸에 죽지 않는 것이 있는 줄 압니까?"

"저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왕의 나이 몇 살 적에 갠지스강물을 처음 보았습니까?"

"제가 세 살 때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기바천(耆婆天) 사당(祠堂)에 갈 때 처음 보았습니다."

"세 살 때 보던 강물, 그 뒤 열 살, 스무 살, 그리고 지금 예순두 살에 보는 강물은 어떠합니까?"

"세 살 때와 같아 지금 예순두 살이 되어도 강물을 보는 것은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왕의 몸이 늙어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강물을 보는 것도 늙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변하는 것은 없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말가리(末伽梨) 등이 말하는 죽은 후에 온전히 없어져 아무것도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있습니까?"

왕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이 죽은 후에도 이 생(生)을 버리고 다른 생(生)에 태어나는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강해〉 2권에 나오는 부처님과 바사닉왕의 대화 장면이다. 바사닉왕은 부처님 당시의 코살라국의 왕이었다. 코살라국을 사위국이라고도 한다. 왕의 범어 이름은 프라세나짙(Prasenajit)이다. 왕의 아들 기타태자는 수달장자와 함께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부처님과 묘한 인연이 있었다 한다. 부처님과 나이와 생일이 같았으며 부처님이 성도하시던 해에 이 왕은 왕위에 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또 코삼비국의 우전왕과 마찬가지로 바사닉왕도 부처님이 마야부인을 위해 설법하러 도솔천에 올라가 지상에 없을 적에 최초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우전왕은 전단나무로 불상을 만들고 바사닉왕은 금으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마가다국의 빔비사라왕처럼 부처님께 귀의한 독실한 왕으로 초기 경전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능엄경〉에도 등장하여 대승법문을 듣고 있다.

이 장면의 대화 내용은 외도들의 단멸론을 부정하며 사람 몸이 죽어도 이 생을 버리고 떠나 다른 생을 받아 태어나 생이 이어진다는 윤회설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생(生)은 다겁다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단생론(單生論)이나 재생론(再生論)이 아닌 다생론(多生論)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은 인생의 의미를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종교화되지 못한 보통의 사고에서는 단생론에 머물기가 쉽다. 금생의 육신이 살아 있을 때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생과 내생을 현실 밖의 문제라고 치부하여 생각에 담아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신(神) 본위 종교에서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재생(再生)을 말한다. 그러나 금생이 있기 이전의 전생(前生)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설은 전생, 금생, 내생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25원통 한번 마치면 '一往來'…생멸수행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⑤ 자비관

25원통 수행을 한번 마치게 되면 "일왕래(一往來)했다"고 말한다. 과위로는 아나함과이다. 이 과정까지의 자비관이 생멸수행에서 이루어지는 자비관이다. 일왕래를 하다보면 의식 · 감정 · 의지는 전혀 인식이 되지 않는다. 본제관에서 벗어나서 의식 · 감정 · 의지를 인식해 보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재잘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심식의의 일에는 전혀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왕래(二往來), 삼왕래(三往來)를 반복하면서 본제관에 집중한다. 그러다 보면 의식 · 감정 · 의지가 완전하게 동떨어진다. 아예 인식되지 않는다. 본제관의 25원통 수행이 반복되면서 생멸식이 분리되면 진여식이 인식의 주체가 된다. 이때의 진여식을 '해탈지견'이라 한다. 일왕래 이후에 25원통을 임의롭게 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열한 번째 자비관이행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 진로로써 자비관을 행한다. 첫 번째 진로는 벽지불의 길이다. 두 번째 진로는 보살도의 길이다. 벽지불이 되는 것은 멸진정에 드는 것이다. 멸진정(滅盡定)이란 본제의 요소 중 간극에 머물러서 적멸상을 취하는 것이다. 보살이 되는 것은 환희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환희지(歡喜地)란 간극 무념 무심 밝은성품이 서로를 비추는 상태에서 밝은성품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벽지불과 초지보살은 모두 11번째 자비관을 행하는 존재들이다. 이 과정을 멸수상정해탈이라 한다. 팔해탈 중 비상비비상처해탈은 생멸수행과 진여수행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는 초선정에서 8선정까지 비상비비상처해탈의 단계가 있고, 진여수행에서는 10지 수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각각의 단계가 있다.

식무변처정에서는 의식과 의지정보가 내재된 영의 몸을 제도한다. 8식의 업식을 제도하고 중추신경 전체를 본성으로 세수(洗修)를 한다. 무소유처정에서는 의식 · 감정 · 의지를 자기로 삼지 않는다. 의식 · 감정 · 의지로 접해지는 모든 경계를 간극과 밝은성품으로 비춰본다. 비상비비상처정에서는 몸을 이루고 있는 열두 개의 기점을 간극의 적멸상을 통해 제도한다. 앞 기둥 세 기점, 중간 기둥 여섯 기점, 뒤 기둥 세 기점에 머물면서 간극의 적멸상을 기점 자리에서 인식한다. 중심 기점에 머물면서 적멸상을 인식하고, 하단전에 머물면서 적멸상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심, 백회, 중황, 중극, 황중, 황정, 회음, 옥침, 영대, 명문을 주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육체의 몸과 혼의 몸, 영의 몸이 제도되고 생명활동을 운용하는 여섯 가지 생명 에너지가 제도된다. 밝은성품과 선천기, 후천기, 쿤달리니, 이다핑갈라, 슈슘나가 여섯 종류의 에너지이다. 이중 밝은성품은 영의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에너지이고, 선천기는 혼의 몸을 이루고 있는 생명에너지이다. 나머지 후천기, 쿤달리니, 이다핑갈라, 슈슘나 에너지는 육체 기반의 에너지이다. 생멸수행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상비비상처해탈은 생을 통해 갖추어진 육체를 유(有)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연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무생(無生)을 이루고 유(有)의 몸을 갖추는 것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유의 몸은 수명이 없다. 유의 몸은 공간 상태에 지배받지 않는다. 유의 몸은 물질을 양분으로 섭취하지 않는다. 열두 개의 기점이 적멸상으로 제도되면 이때부터 세포 제도를 행한다. 사륜삼매(四輪三昧)로 세포제도를 시작한다. 사륜삼매란 풍륜삼매(風輪三昧), 수륜삼매(水輪三昧), 화륜삼매(火輪三昧), 지륜삼매(地輪三昧)를 말한다. 세포를 이루고 있는 사대의 물질 형질을 관찰하기 위한 수행법이다. 무정의 네 종류 소마티드를 획득하고 선천혼의 형질로 세포 대사가 이루어지면 유(有)의 몸을 갖춘 것이다. 이때부터는 진여수행의 절차를 통해 비상비비상처해탈을 진행해 나간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스님의 〈능가경〉 강설

⑤ 지혜

마음 안다는 건 '구분' 아닌 '밝힘'

자신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론과 개념을 여읠 수 있는 방법은 참으로 한정적이다. 한정적이라 말함은 각자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다르기 때문이니, 실제로는 전체가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개체의 마음작용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대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도 대상의 또 다른 면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분석이라는 것이 처음의 분석과 이론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개념이라는 원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개념은 분별심으로 생겨나고, 분별심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인데, 그것을 개념화한다고 사실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체가 추측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이지만, 그 하나들을 모았다고 해서 전체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다르더라도 전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더 이상 어떠한 개념이 세워지지 않을 때에만 한정성이 사라진다. 이때 전체라는 것은 누구도 가늠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가늠한다면 그것은 부분이지 전체가 되지 못한다. 이 전체라는 의미를 충분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마음을 아는 데는 항상 부족함이 생기게 된다. 그 부족함 때문에 또다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만, 그 부족하다는 생각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 전체의 마음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론과 개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린 것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뿌리내려 집착하는 자신만의 이론과 개념을 -언제부터 그렇게 확고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관심없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경향성으로 벗어나는 일을 더 어렵게 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집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집은 마음을 더 병들게 하며 마음을 위축시켜 버린다. 이러한 일이 장기화되면 마음은 굳어져 버리고 소통은 불가능하게 된다.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견해의 개념에 대한 번복이다. 유(有)는 무(無)로 번복하고, 무는 유로 번복하는 것을 계속하여 더 이상 유무로는 번복할 것이 사라지면, 마음에 편안하다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분별이 사라질 때, 내가 집착하여 만들어 놓은 망심과 망상이 자연스럽게 붙어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실적으로는 편안하다고도 할 것도 없다. 그 망심과 망상은 실제의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을 아는 것은 마음 안의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다. 모든 것이 밝혀지면 있지도 않은 뱀을 사라지게 한 것도 없고, 그것을 또 내가 밝혀냈다고 할 것도 없다. 그러고 보면 마음이 처음부터 무엇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새끼줄로 배워야 할 것을 뱀으로 배워 사용한 것이니 이제 그것에 대한 진짜 이름을 들었다면 항상 진짜 이름으로 진실하게 사용하여야 오랫동안 업습(業習)으로 잘못 사용한 것을 고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도 고치려고 하면 쉽지 않은데, 무시 이래로 사용한 업습을 그것도 집착으로 딱 붙어있는 습기를 제거하려면 완전한 일심의 자각이 아니면 지워지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을 노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노력이라는 것은 물질이든 정신이든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지만, 일심의 자각은 무엇을 생기게 해서도 안 되고, 없어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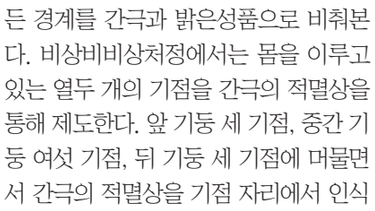
달마 스님은 각자 자신의 마음이 부처이며, 이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확신하라 하시고, 마조 스님은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시고, 뒤이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하셨다. 우리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알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습기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마음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하는 일 없는, 그 마음을 바로 부처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와 조사가 만약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조(佛祖)는 불조로서의 상징성이 상실되는 것이다. 습기가 일어날 때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면, 그 습기는 습기가 아니라 바로 알아야 하는 지혜인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장엄하고 은은한 염불소리가

법당과 사찰을 감돌고 휘돌아 불자들의 심금을 울려야 할 깊고 심오한 염불소리! 가 지방 업자들의 단순 시공으로 이장 마이크시설 수준이 되어 염불 스트레스와 성대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스님들에게 ..... 서울 토박이 낙원동 출신 베테랑 음향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단 한번의 최고 시설로 나머 염불인생이 편하기 그지 없어 보물이 따로 없습니다.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특징 : 중국제 아닌 국산)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MICROPHONES
Concert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2호 | 17 | 전면광고

인자하여 생물을 죽이지 않고 말을 삼가고
마음을 지키면 거기는 죽음이 없는 곳,
어디를 가나 근심 없으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청주시청 앞 9층 건물, 7층 10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80만원
  최고의 시설, 몸만 들어오시면 됨
- 대웅전 40평, 종무실 20평, 산신각 4평
- 주방 10평, 스님방 25평, 전체생광석 찜질방
  대형 냄녀화장실 비구니 스님께만 드립니다.

010-5883-2255
010-8569-6643

암자 (급) 안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5분 거리)
- 공기 좋고, 바다뷰 일품
- 대 지 : 407평, 건평 1.2층 70평
- 주 택 :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큰방, 욕실, 법당
- 100m 지하수 완비
- 가 액 : 6억원(동해 용왕기도터)

010-3000-5359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5천만원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3007-5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북 익산시 춘포면 쌍정길
  99-8 불국정사
- 대지 : 206평, 건물 : 전통사찰형태
  2층 콘크리트 건물,
  1층 : 방4, 주방, 욕실(40평)
  2층 : 법당(30평), 산신각(5평)
  정원 : 5층석탑, 스님 건강상 급매
- 가액 : 3억원

010-2611-652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장림동
- 가액 : 3억 3천만원
  (부동산 전화 사절)

010-5530-5866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족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사찰 양도하실 분

희망 매수가 : 10억 ~ 20억 내외
희망 지 역 : 서울, 경기권

소승은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십 수년간 도심빌딩에서 포교당을 운영해 온 학승입니다. 포교당 건물 재건축으로새 인연처를 찾고 있으니 사찰 양도 하실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단독주택의 임법당도 가능합니다.

010-2194-8008

사 찰 (급) 안 내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종교용지 1996년 터 잡아 현재까지 운영
- 대지 1천평, 건평 70평 내 법당, 공양간, 종무실,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금동불상, 동진보살, 아미타불 석물, 상석, 상수도, 심야보일러
- 주지스님 건강 관계로 좋은 인연을 기다립니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 가액 9억5천만원에 양도함(절충가능)
- 모든 불상 등 기물(3억원)은 무보시로 시주, 몸만 오시면 사찰법회 가능합니다.

010-3545-5060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좋은인연 대출안내

- [x]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x]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x]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2호 | 18 | 전면광고

여러 악한 종류에 무리들이 많지 않게 하며 모든 악이 다하고 스러져서 스스로 사람을 여의게 하며 모든 악한 생각들은 생각함이 없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육효 강의

4개월 완성

비구 비구니스님(비법전수)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054-972-1080
010-2622-4345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비구니 기도스님 구합니다

010-2239-0300

30대 후반, 40대 전반 비구니 스님을 상자로 모십니다

주소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121-1 밀림사
주지 지웅 합장

010-6893-5040

메주 청국장 판매합니다

스님께서 주문하시면 10% 할인 해드립니다.

010-2089-4143
010-9692-5775
약사사 공덕화 보살

능가사

불심이 돈독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제공, 출퇴근 가능 (강화군)

010-5301-8613

강원도와 충북 제천 사이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사찰(절)에서 염불기도로 업장은 소멸하고 몸과 마음은 힐링하며 후회 없는 회향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나이, 학력, 성별 상관없이 출가를 하실분 모십니다.

연락처 010-8945-1424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부산 열반상

- 크기 : 3m 70cm
- 경주 남산석을 사용하여 장인이 조성함(조성한지 10년 됨)
- 희망가 : 1400~1500만원 (조율 가능)
- 경주 통일전 부근 사찰에 모셔져 있음

010-4536-1456

포교원할 분, 결혼할 분

*서울 목동 사거리 2층, 시장 옆 권리 무, 월세 상담 부전 동반 공양 쓸 분, 할 분

*결혼정보 초혼, 재혼 서울 명동 결혼 짝을 만나 행복을

010-5381-1419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02)2004-8212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 (사찰, 포교당 양도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akao Ch 카카오톡 채널에 현대불교신문 검색

NAVER 현대불교신문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② 마음 편하게 하는 조릿대차

신장에 좋은 소양인의 꽃차
〈腎臟〉

조릿대는 벼과 조릿대속에 속하는 나무와 여러 해살이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상록활엽관목으로, 작은 대나무이다. 산에 사는 대나무라는 뜻에서 산죽(山竹)이라 하고, 꽃말은 외유내강(外柔內剛)이다.

조릿대의 이용부위는 줄기와 잎으로 약용 또는 차로 사용한다. 사계절 모두 채취가 가능하지만, 이른 봄의 새순이나 차가운 겨울의 눈을 맞은 조릿대가 약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다.

〈약성〉

조릿대는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

〈동무유고〉 '동무약성가' 에서는 죽여(竹茹)의 약성에 대하여, '신장의 위기를 열어주어 음식을 소화시키고 식욕을 당기게 한다'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라 하였다. 대나무는 소양인의 신장에 좋은 것으로, 위장의 기운을 열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식욕을 당기게 하는 꽃차이다.

소양인은 열이 많은 사람으로 위(胃)의 열이 폭발하여 신경을 날카롭게 하는데, 조릿대는 열을 내리고 진액을 생성시켜 정신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탁월하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나 신경쇠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꽃차는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마셔도 부담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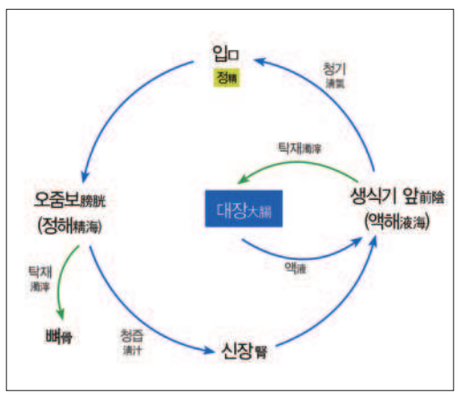
주요 성분은 다당체, 클로로필(chlorophyll), 리그닌(lignin), 갈락토스(galactose), 아스파라긴산(asparaginicacid) 비타민K 등이다. 조릿대의 클로로필은 혈관 내 유해한 콜레스테롤과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혈전 억제, 고혈압, 중풍,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한다.

〈마음 · 기(氣)작용〉

찬 성질의 조릿대는 신장(腎臟)에 좋은 소양인의 꽃차이다. 소양인은 위장의 기운이 크고 신장의 기운이 작은 비대신소(脾大腎小)의 장국을 가지고 있다. 〈동무유고〉에서 "대나무가 신장의 위기를 열어준다(開腎之胃氣)"고 한 것은 바로 신장(腎臟)과 위장(胃臟)에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릿대는 열로 인해 입 안이 마르는 것과 갈증을 멈추게 하고 진액을 생성시켜 주는데, 이는 하초(下焦)에 흐르는 수곡의 한기(寒氣)를 잘 흐르게 하기 때문이다.

수곡의 한기는 대장(大腸)에서 액(液)이 생성되어 생식기 앞으로 들어가 액해(液海)가 되고, 액해의 맑은 기운은 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입 안이 마르는 것과 갈증을 멈추게 도와주며, 진액을 생성시켜 주는 것이다. 입에서 생성된 정(精)이 방광(膀胱)으로 들어가 정해(精海)가 되고, 신장이 정해의 맑은 즙을 빨아 들여서 신장의 기운을 보익(補益)하고, 다시 생식기 앞으로 기운을 고동시키는 것이다.(그림 참조)



또 입의 정(精)은 오줌보의 정해(精海)로 들어가는데, 조릿대는 정해(精海)를 충만하게 하여, 소변을 원활하게 통하게 한다. 하초(下焦)에 흐르는 수곡의 한기의 기 흐름을 통해, 입과 방광(오줌보) 그리고 신장이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장이 좋지 않으면 방광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입 안의 건조나 갈증은 방광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오줌 색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한데, 이때 입이 마르거나 갈증이 생기는 것이다.

〈제다 및 음용〉

채취한 조릿대 잎은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여 1cm 크기로 자른다. 고온에서 잘 익히면서 덖어서 유념(비비기)을 한다. 중온에서 덖음과



식힘을 반복하여 덖는다. 고온에서 건조시키고 가향을 해서 완성한다.

음용방법은 조릿대차 2g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조릿대차는 맑고 투명한 색을 가지고 있다. 조릿대차는 몸이 찬 사람은 각별히 조심하고,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어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맛은 비린 맛이 나면서 목에서 약간 걸리는 느낌을 받았다. 여러 잔을 마신 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또 조릿대차는 여름철 들판에서 풀을 벤 후 약간 마른 상태에서 나는 풀냄새가 났다. 맛은 약간의 구수함과 깔끔한 느낌이 나며, 목 넘김 후 남은 끝 맛은 여운이 없었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조릿대차의 첫 맛은 쇠 맛이 나는 듯하였으나, 혀에서 느껴지는 쌔한 느낌은 부드러웠다. 평소 우측 뒷머리 편두통이 심했는데, 차를 마시는 순간 조금 통증이 완화되는 느낌이었다. 다음날 두통이 조금 완화되었고, 심신(心身)의 안정도 이끌어 주는 듯하였다. 또 시음 전에 차향을 맡는데 오이의 비릿함이 다가 왔다. 맛은 등 푸른 생선의 비린내가 강했다. 목 넘김에는 닝닝함을 느낄 수 있었다. 식혀서 차갑게 마시니 덜 비리고 덜 느끼하였다. 비릿한 맛을 느끼지 않게 빠르게 넘겼는데, 끝 맛에서는 약간의 달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소양인이 차를 마셨을 때, 차 한 모금이 혀끝에 닿는 순간 구수하면서 약간 쌉싸름한 맛이 느껴졌다. 소여물 같은 냄새와 맛이 났다. 입 안이 코팅되는 것처럼 진득한 여운이 남았다. 차를 마시고 곧 코 안이 시원해지고, 소변 배출이 원활해진다. 음용기간 동안 실핏줄이 터졌는데, 빠르게 치료가 되었다. 원래도 잠을 잘 자는데, 심신(心身)이 안정되어 질 높은 수면 시간이 된 것 같다. 또 풀의 비릿한 냄새가 진한 편이였다. 갓 삶은 여물 같은 냄새와 맛이 나고, 보통 차들은 처음 입안에 들어갈 때만 진하게 느껴지는데, 조릿대는 처음에 맛과 끝 맛이 같았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김영숙의
효소건강칼럼
① 효소란 무엇인가?

효소, 생존과 건강 유지 위해 꼭 필요

우리 건강의 필수적인 요소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효소는 무엇일까? 익숙한 탄수화물도 아니고, 지방도 아니고 참으로 궁금해진다.

과학적인 의미의 효소는 신체 내부에서의 반응을 촉진하는 '자연 단백질(엔자임)' 과 유기화학에서 물질의 반응을 돕는 '화학적 촉매(캐터리스트 · Catalyst)' 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 몸의 건강에 작용하는 '효소' 는 전자다.

효소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필요한 촉매제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잘게 잘라 몸 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명체 안에서 살아 활동하는 단백질 성분을 유용하게 바꾸는 성분이기도 하다.

효소는 크게 '체내효소' 와 '체외효소' 로 나뉜다. 체내효소의 경우 2만 종류가 넘지만 소화효소는 24종류이며, 나머지는 신체 대사 작용에 작동하는 효소다. 효소는 보통 한 가지 반응에 작동하는데, 단백질 분해효소는 단백질만 소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대사 작용을 돕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로 꼽힌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소화효소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먹은 식사를 소화시키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실제로 우리의 생존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효소는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바꾸어 성장하고 활동하는 원동력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효소가 하는 것이다.

우유만 먹으면 배탈을 앓는 사람들이 있다. 우유에 함유된 유당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유당불내증'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의 75%가 유당불내증을 앓고 있다고 할 정도로 흔하다. 유당 분해 효소가 부족한 이들이 우유를 잔뜩 먹는다고 이것을 제대로 영양소로 전환할 수 있을까? 헨릭 로저 덴마크 코펜하겐대 교수 연구팀의 2022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에 따라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구성에 따라 음식 섭취로 얻는 에너지양이 다르다고 한다.

결국 우리는 음식의 섭취량에 따라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양소를 얻기 위한 효소를 얼마만큼 갖춰놓고 있는지에 따라 몸이 얻는 영양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과식하지 않고 적게 먹어도 몸을 유지하고, 과영양으로 인한 비만 등 문제점을 없애고 날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효소는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이다.

이 밖에도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등등 효소는 많은 곳에서 작동한다.

체내효소 2만 종·소화 효소 24종
몸이 지닌 효소의 양이 건강 좌우
효소 활성화 위해 체온 유지 중요

특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효소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존재하며 특별한 역할을 한다. 우리 몸에서 효소는 소화효소 등으로 작동하지만 면역기능도 일부는 담당한다. 음식을 먹으면 입부터 위까지 소화효소가 침이나 위액 등에 섞여 나온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소화 효소가 되기도 하고 대사효소가 되기도 하는데, 과식을 하거나 정제식품 동물성식품 등을 먹게 되면 체내 효소가 대부분 소화효소로 변화한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과식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효소가 소화 효소로만 사용된다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소배출, 지방분해, 바이러스와의 싸움 등을 해야 할 대사효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자연스럽게 신체의 면역력은 떨어진다.

우리는 흔히 '고기를 많이 먹으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육류 섭취를 늘린다. 무작위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게 되면 이에 대한 몸의 적응이 상대적으로 더 건강에 안 좋게 작용한다. 체내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하루에 만들어지는 효소는 소화와 대사에 나눠쓰인다. 정크푸드, 가공식품, 캔식품 등 바쁜 생활 속에서 쉽게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 속에는 특히 살아있는 효소를 찾기 힘들다. 그러므로 체내효소를 사용하게 된다.

소화 작업을 위해 효소를 많이 쓰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대사효소가 부족해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그 때문에 음식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도록 충분히 씹어야 하고, 식물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중세 이후 대항해 시대에 배 위의 선원들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선원들이 주로 먹은 것은 돌로도 깨기 어려울 만큼 단단한 비스켓이며 가죽구두보다 질긴 육포가 전부였다. 특히 비상식량으로 사용했던 말린 대구는 곤봉대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딱딱했다고 한다. 신선한 야채류나 다양한 영양 섭취가 가능한 음식이 없어 선원들은 괴혈병으로 죽었다. 거친 풍랑이나 해적의 습격보다 더 많은 죽음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괴혈병도 비타민C가 발견되면서 해결됐다. 효소는 이러한 비타민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다닌다.

효소는 열에 약하지만 너무 낮은 온도에서도 활성화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체내효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가공식품의 섭취, 동물성 식품, 화학비료 등으로 재배한 식재료도 효소 결핍의 원인이 된다. 과로와 스트레스 휴식부족 역시 체내 효소를 소모 시킨다. 건강을 말할 때 보통은 운동을 비롯한 활동부분에 주목한다. 하지만 이제 먹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체내 건강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몸 안과 밖을 관리한다면 더욱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새해 건강을 위해 효소에 주목하자.

〈효소전문가〉

일일시호일

바이러스 급성뇌염이 앗아간
쥬안이의 웃음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퐁·스엉씨 부부의 1살 딸 쥬안
급성뇌염 이어 간질까지…치료비 걱정에 시름만 깊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❶ 오르는 길과 내려가는 길은 다르다



▶한줄요약
인생 등산길에서는 정상을 바라보고 매진하지만, 인생 후반 하산길에서는 스스로와 주변을 살피며 살아가자

내려놓아야 세상이 돌아간다



한라산을 처음 올라갈 때는 정상에 있는 백록담이라는 신비로운 못을 상상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올라간다. 오름길이 거칠고 힘들어도 백록담에 대한 기대가 고통을 감소시킨다. 뿐만 아니라 발밑과 눈앞만 보고 가니까 통증으로 주의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길을 두 번 세 번 올라가게 되면 정상까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헤아리게 된다. 더 자주 남은 거리를 생각하게 되고 추진력도 떨어진다. 그러나 정상에 이르면 도달했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모든 피로가 풀리고 천천히 사방을 바라보며 기분을 만끽한다. 그리고 내려갈 것을 생각한다. 내려갈 때는 올라갈 때와 다르다. 우선 몸이 가볍다. 갔던 길을 되돌아 내려오지만 도착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때와 다르다. 내려가는 동안 지친 체력으로 인해 몸이 휘청거려도 쉬어가면 되니까 걱정도 줄어든다.

나는 제주에서 명상센터를 설립하여 15년간 운영해 왔다. 시작할 때는 평생 같은 일을 계속할 것 같은 의욕이더니 내려놓고자 하니 빨리 떠나고 싶다. 처음 3-4년은 오로지 의욕만으로 일했다. 앞만 보고 달렸다. 멈출 것 같지 않았다. 힘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다음 7~8년은 무엇인가 더 잘 하고자 노력했다. 어떻게 하면 센터를 더 잘 운영할 것인지 앞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가면 그곳에 와 있었다. 그리고 그 후 5년, 지금까지 벅차게 일했다. 숨이 차고 힘들었다. 내 나이가 77세니 옛날 같으면 살만큼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할 일을 마무리하며 서서히 정리하고 물러날 때를 보고 있다. 그 시기가 온 것 같다.

지금 명상센터는 한라산 갈 때와 유사한 과정을 겪고 있다. 명상센터를 설립하면서 세상을 위해 일을 한다는 희망에 매우 가슴 떨렸던 기억이 있다. 마치 한라산을 처음 오를 때 산세의 험한 상태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정상의 백록담에 대한 신비로움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었듯이 명상센터도 처음 시작할 때는 셋방살이도 만족스럽고 즐거웠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힘들지만 웃으면서 즐겁게 받아들였다. 차츰 앞을 보게 되고 활동반경이 넓어지자 상담과 명상활동을 위해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여 시내로 옮겼다.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이 자꾸 나타났다. 점차 설립할 때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내에서 좀 벗어나지만 승용차로 30분을 넘지 않은 이곳에 명상센터의 터전을 잡았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와 세상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의식 수준에서 결정되기보다 더 큰 세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의 명상센터도 내 의식보다 더 큰 세계의 영향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명상공간을 찾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제주시 주변을 4개월 정도 다녔다. 공간도 가격도 적절한 곳이 없어서 아직은 명상공간을 만날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잠시 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명림로 길을 가다가 명도암 식당 앞에서 멈추었다. 그냥 그곳에 차를 세웠다. 내리니 오른쪽으로 자그만 농로가 언덕 위로 보이길레 그리로 걸어갔다. 언덕에 오르자 앞이 탁 트이면서 맞은편에는 안세미 오름이 우뚝 솟아있고 양 옆은 기다란 타원형의 공간이 있으며 삼나무와 대나무가 양끝을 울타리처럼 둘러싸고 있었다. 보는 순간 '아, 이곳이 바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로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러나 이곳에 나의 명상센터가 들어설 줄은 전혀 몰랐다. 그런 느낌으로 천천히 아래로 걸어가다니 길 옆 밭에서 한 아주머니가 검질(김을 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좋은 데서 일하시네요. 혹 이 근처에 땅을 팔려고 내 놓은 곳이 있나요?" 좀 엉뚱한 질문이지만 이 말이 저절로 나왔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아주머니도 나를 쳐다보며 엉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표정으로 "없수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나도 "그러시겠죠."라고 대답하고 가던 길을 가려니까 뒤에서 그 아주머니가 "아저씨, 며칠 전 저쪽 풀밭에 몇 사람 다녀 갔수다"라고 하지 않는가. 그 말이 내 가슴을 탁 쳤다. 소위 '필'이 꽂이는 것 같았다. 곧 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하여 그 땅 주인을 찾고 매매여부를 알아보게 하였다. 곧 연락이 왔다.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것이다.

나는 놀라움으로 땅의 가격은 고하간에 그 땅을 사기로 마음먹고 바로 계약을 했다. 4개월을 그렇게 다녔건만 보이지 않던 공간을 이렇게 만나다니. 놀라웠다. 내 노력 뒤에 또 다른 영성의 세계가 함께 하고 있음을 경험한 것이다.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나는 이런 일들을 가끔씩 경험했다.

참나를 찾아가는 인생여정
인생 하산길이 더욱 중요해
성찰과 정진으로 돌아보는
새로운 삶의 목표 세워가야

이렇게 명상공간을 만나고 센터건물을 지어 명상활동을 한 지 어언 10여 년이 되었다. 이제 명상센터 이사장을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어떻게 떠나야 함께 가면서 헤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후임자를 찾기 시작했다. 센터를 사랑할 수 있는 자, 상담과 명상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 연간 필요한 재정을 꾸릴 수 있는 자를 찾는 일이다. 이러한 이사장의 자격조건은 내가 가진 조건이다 보니 그런 조건을 가진 자는 지난 5년 동안 찾았지만 없었다. 설립을 하면서 이사장 하기도 쉽지 않았지만 자리를 내려놓는 일은 더 어려웠다. 매일 명상수행을 하면서 그런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의식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감정적으로 고요하고자 하나 그러지 못하니 수행을 하면서도 의식이 뚜렷하지 못했다. 명상센터 이사장직을 내려놓는 것은 물러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명료하게 처리되질 않는다. 나 개인에게 영적능력이 있어서 이사장직에 초연할 것 같은데도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나 중심적인 성향을 벗어나기엔 영적 성장이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내 능력들은 삶을 향상시켜주는 욕망이나 일반적인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사장직을 그만두는 데는 또 다른 한계가 있음을 느꼈다.

한라산에 올라갈 때는 발밑과 눈앞만 보았는데, 내려갈 때는 저 멀리 다른 봉우리와 깊은 계곡과 낭떠러지가 새롭게 눈앞에 나타난다. 이미 그 길을 지나왔건만 어찌 이제야 나타난단 말인가. 올라갈 때는 정상에 도달해야 한다는 일념에 앞만 보였지만 내려갈 때는 이미 정상에 도달하였으니 더 이상의 성취대상이 사라진 것인가. 똑같은 하나의 대상인데 어찌 이렇게 다르단 말인가. 정상이 분명 끝은 아닐 텐데 올라가면 내려가야 한다는 산의 속성이 보여준 한계인가? 그러고 보니 성취 후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다음의 목표가 없다. 그렇다면 정상에 도달한 뒤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자신의 명상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목표를 향해 구체적인 일정을 밟는 것이 도움을 주기는 하나 명상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명상을 위해 앉았을 때 명상시간 동안 각성된 주의를 가지고 시작하나 수행하는 과정이 정교하지 못했다. 하산하면 되는데 뭐가 부족하여 이렇게 주저하는가? 목표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았다. '이사장직을 그만두고 살아가야할 주요한 목표는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다. 나는 그 대답을 알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같이 수행을 해온 과제의 1번, '참 나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확고하지 않았다. 빅토르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안다면 당신의 목표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회피하지 마라."라고. 그리고 "명상수행이 생각이나 감정, 욕구에 대한 자각, 끊임없는 활동 등으로 방해받는다면 그것을 극복하라.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라도 영적인 의무로서 명상하라"라고 단호히 말한다. 뜻을 굳혔으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하나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슈나(깨달은 의식)는 프랭클과는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 "자연의 영향력이 생겨날 때 그것을 경멸하지 않고 또 그것이 사라질 때 갈망하지도 않는다. 무심한 경지에 있는 그는 자연의 속성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는 쾌락과 아픔을 하나로 여긴다. 그는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를 동일하게 여기고 친구와 적을 동등하게 대하며, 모든 이기적인 성향을 버린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자연의 속성의 영향력을 초월한 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지금도 기억하지만 난 이미 자연과 하나가 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지리산 백장암 동사섭 수련시(1990년) 화장실 동사섭의 경험이 생생하다. 30여 년 전의 일이지만 화장실의 칸막이나 벽이 없어 바지를 내리면 아랫도리가 다 보인다. 볼일을 보려고 하는 순간 스님이 들어오셔서 당황하고 있는데, "우리 화장실 동사섭이나 할까요?"라고 하시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바지를 내리고 서로 옆에 앉아 볼일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었던 일이 바로 자연의 속성을 함께 하되 이를 초월한 행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속성을 넘어선 자'가 바로 '참 나'라고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나를 내려놓아야 센터도 세상도 잘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왔다. 이 글을 쓰다 보니 이제 나의 길이 뚜렷해진다. 올라갈 때는 백록담에 도달하는 게 목표였다면 내려갈 때는 출발지가 목표다.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할 때는 '세상'과 함께하는 상담과 명상이요. 일을 멈출 때는 '참 나'를 찾는 일이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산에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지만 내려올 때는 없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올라갈 때는 순간을 놓치지 않지만 내려올 때는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답은 확실하다. 내가 명상센터 이사장을 내려놓는 일이 왜 이리 힘들었는지 확연해진다. 바로 내려놓은 뒤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내려놓은 뒤의 목표는 '참 나를 만나는 일'이다.

이제 현실의 '나'를 만나러 가자. 이제 나는 '이사장직'을 내려놓는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다. 이제 남은 일은 쉬면서 '참 나'를 만나는 일이다. 내가 집착하는 일은 후임 이사장이 누가 될 것인가? 타 기관에 기부가 가능할 것인가? 나는 이사장직을 그만 둔 뒤 '참 나'를 만나기 위해 정진할 것인가? 결국 이 세 질문이 나를 가로 막고 있다. 올라가는 길은 멀고 험해도 이미 도달했고, 내려가는 길은 눈앞에 있는데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가까이 있는데도 마치 낭떠러지 절벽을 바라보는 듯하다. 아슬아슬하다. 바라보면 한 순간인 듯 가까운데 쉽게 건너기 어렵다. 나의 목표는 '참 나'를 만나는 것이지만 명상센터라는 단체가 만나는 것은 집단의 이익이 달려있다. 훌쩍 건너 뛸 수가 없다. 백척간두의 경계를 넘어야 새로운 내 인생이 나타난다. 하는 척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본방을 놓친 그대에게..

더욱 기억하기 쉬운 방송시간!
BTN 불교TV 대표 프로그램
(2023년 1월 2일 부터)

본방송 당일 재방송!! 그래도 못 보셨다면 주말 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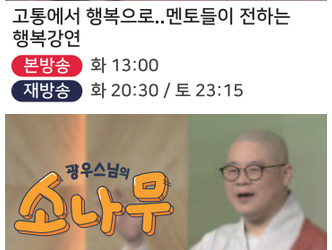
법상스님만의 논리적이면서도 편안한 생활법문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2:30



철학자 강신주의 중국 선종 무문관의 화두 이야기
본방송 월 12:00
재방송 월 20:30 / 토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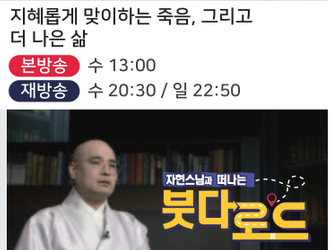
문광스님이 쉽게 해설하는 선문염송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고통에서 행복으로..멘토들이 전하는 행복강연
본방송 화 13:00
재방송 화 20:30 / 토 23:15



자현스님과 광우스님의 '맛있는 수다', 재미있는 불교공부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19:30 / 일 14:00



지혜롭게 맞이하는 죽음, 그리고 더 나은 삶
본방송 수 13:00
재방송 수 20:30 / 일 22:50

BTN불교TV 최고인기프로그램! 시대 맞춤형 생활법문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22:00

오늘 좋은 씨앗은 내일 좋은 열매!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1:00

부처님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현스님의 명쾌한 강의
본방송 금 08:30
재방송 금 19:30 / 토 15:00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2 호 현대불교
2023년 2월 8일(음 1월 18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버린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림 · 최주현

정진력 기르고 싶어요

질문 생활 참선을 한다면서 늘 주인공에 놓고 가려고 하지만 생활에서 이런저런 일에 계속 끄달려 가는 제가 안쓰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정진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답변 우리는 절대 이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정진을 게을리해서도 안 됩니다. 정진을 게을리해서 세세생생에 끄달리는, 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정진을 하되 정진이라는 그 자체까지도 놓으라고 했습니다.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변소엘 가나 법당엘 가나 참선이라고요. 이름을 지어서 와선이니 좌선이니 행선이니 또는 입선이니 하지만 모두가 참선 아님이 없습니다. 또 간화선이니 묵조선이니 하고 나누어 왔지만 우리가 움죽거리고 살아나가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에요.

그러니 정진하면서 물러서지 말고, 믿고 안으로 굴리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남한테 물으려 하기보다 자기 주인공에 놓으세요. 그리고 남한테 듣는 거는 거름 삼고 주춧돌 삼아서 내 거로 만들고요. 내 거로 만들고 나서도 붙들고 있으면 아니 됩니다. 느꼈으면 느낀 대로 그냥 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당기는 거는 먹고 놓고 안 당기는 거는 믿고 놔라." 이런 말을 했죠. 당기는 거는 먹을 때에 맛있으니 감사하게 먹고, 안 당기는 거는 믿고 놔라. 그 뜻이 뭐냐 하면 안 되는 것은 믿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참선 못 할 분이 없고, 싱싱한 몸을 가지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조금도 허탕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안 되는 일도 되는 일도 다 버린다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날이 궂었다고 해서 항상 궂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볕이 듭니다. 그러니 볕이 들어서 좋다고 붙들고 있고, 날이 궂었다 해서 또 붙들고 있고 이런다면 얼마나 공부에 지장이 가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바깥에서 받은 화두를 잡고 늘어진다면…. 공한 것을, 아니 구멍 뚫린 그릇에 불과한 거를 구멍을 막아 놓고선 또 의정을 내거든요. 이젠 예전과 지금 시대가 다르다는 거를 알고 순응하고 시대가 바뀌는 대로 좇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고집불통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의 법 50%를 의정하고 돌아갈 때가 아닙니다. 50%를 그냥 넘어뛰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아는 거를 아무리 의정을 내 봐도 겉돌기입니다, 맷돌 겉돌기. 20년, 30년을 공부해도 안 됩니다.

정말 몰락 놔서 참나를 알았을 때, 갓 태어난 어린애 같아서, 자기가 자기를 기르는 데 보임하면서 체험해야 됩니다. 한 발 한 발 떼어 놓는 공부가, 그 공부 아닌 공부가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그럴 때에 미지수의 무의 세계의, 그 미지수의 묘법이 나올 때에 그때에 진짜 의정을 내는 겁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의정을 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마는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할 때에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진실해야 하겠거니와, 길을 인도받는 사람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와서 질문합니다. "스님!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죽겠고 가환이 들끓는데 무슨 주인공에 맡기라고 그러십니까?" 이렵니다. 주인공에 맡기는 일이 바로 그런 고통을 없애는 일이라고 수없이 말을 해줬는데도 말입니다. 자기가 엎드러졌으면 자기에게 일어날 힘도 있는 거지 일어날 힘이 없다면 엎드러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으로 사랑, 의리, 도의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항상 같이해 주는 그 마음, 어찌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십니까?

이것은 단호히 거짓이 아닙니다. 일가친척이나 동네 사람이 만약에 극단에 처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도 스스로 한생각을 낼 수 있다면 그대로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무주상 보시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깨치면 무주상 보시를 할 수 있지만 깨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주상으로 보시를 못 합니다. 무주상 보시란 한생각에 보시가 되는 것이죠. 굶는다 할 때 쌀 한 가마 갖다 주는 것보다 무주상 보시를 해 준다면 그 집이 저절로 펴져서 밥을 먹게 되면서 영원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난에 허덕이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고만 있을 게 아닙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참주인공을 믿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놔 버리고 '여기에서는 진정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고 들어갈 때 비로소 해결이 될 테니까요. 각자 걱정할 게 없고 한생각 던지면 던지는 대로 그대로 물바퀴 돌아가듯 슬슬 돌아가면서 그것이 다 자연스럽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정과 사회와 내 몸, 내 아들, 딸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산 사람만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생명들도, 지옥에 있는 것도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여러분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잘 차려 놓는다고 해서 영혼들이 잘 차려 놔서 잘 먹었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물 한 컵 가지고도 우주 삼라만상을 대처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떡 하나 가지고 유생 무생을 다 먹이고도 또 그 떡 하나는 되남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고통이 자기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죽을 먹어도 웃으면서 먹을 겁니다. 내일 아침 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 쌀이 없어도 '주인공이 나를 이끌고 다니는 거니까 자기가 먹여 주든지 굶기든지 마음대로 할 거니깐.' 하고 믿는다면 역시 밥은 먹여 주거든요. 여러분이 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 번 한 번 실천에 옮겨 나가면서 그냥 뛰어넘으세요.

찰나찰나 나투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주인공, 이름도 없고 어떤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것을 주인공이라 했다면 그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을 주인공에다 몰락 되놓으세요. 그런다면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모든 나쁜 일들이 아마도 삼분의 이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시키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새도 날게 하기 위해서 깃을 다듬고 고통을 받아도 에미는 그냥 두듯이. 사자도 새끼를 맹수가 되게 하려면 낭떠러지로 떨어뜨려서 기어오르는 놈만 키운다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욕심이나 거짓은 공부하는 데에 지장이 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크게 이루려면 증오심, 욕심, 남이 나한테 어떠한 야단을 치고 칼을 쥐고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바로 내 주인공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니 내 주인공 근본 자리에다 몰락 놔야 합니다. 내가 없다면 뭐가 옵니까? 내 탓이지, 왜 칼 들고 오는 그 사람의 탓입니까? 내가 없었더라면 칼 들고 들어오는 사람의 죄도 없을 거 아닙니까? 왜 내가 생겨서 칼을 들고 들어오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 기대지 않는 마음, 남을 헐뜯지 않는 마음, 남을 증오하고 업신여기고 둘로 보고 앙심을 먹고 이러한 마음이 몰락 없어져야 이름해서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둘로 보고 항상 증오하고 이것 끄달리고 저것 끄달리고 한대서야 어찌 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색을 보고서 물질 50%만 가지고 이게 다라고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무의 진지한 세계에 찰나찰나 나투면서, 온 누리를 가고 옴도 없이 가고 오며, 찰나에 나

☞ 22면으로 계속



주인공에서 나오는 것 주인공에다 몰락 되놓으세요

☞ 21면에서 계속

아님이 없이 그렇게 묘한 도리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모를 때에는 무전통신기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쓸 수가 없는 거죠. 수레바퀴 다섯 개가 그냥 한데 합쳐서 돌아가는 그 이치를 정돈해서 내가 책정을 한다면 이것은 만년묵이로서 영원히 굴려도 굴려도 줄지 않고 굴려도 굴려도 늘지 않는, 바로 이러한 대도의 뜻이 거기에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모든 것은 자기의 탓이요, 자기의 능력이요, 모든 잘되고 못되는 것은 이름 없는 이름의 주인공 탓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그렇게 정진해 나가실 수 있다면 홀연히 참자기의 성스러운 생명수가 졸졸졸 흘러나오다가 확 터질 것입니다.

주인공과 자가발전소

질문 스님께서는 근본 자리를 주인공 또는 자가발전소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뜻을 대강 어림짐작은 되지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정관념과 고정 행, 고정된 말이 없고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색이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색이 역력하다고 하는 뜻에서 바로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전소가 있다면 그 발전소에서 용량대로 용도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전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 용량대로 자기의 용도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천수만 가지로 용도는 많습니다. 전력의 용도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덴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덴 적게 쓰고, 그 릇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바로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걸로 비유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다. 자기가 그릇대로 용도대로 쓰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잠시도 쉬는 사이가 없고, 잠을 자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쉬지 않고, 일어나도 쉬지 않고, 앉아도 쉬지 않는 거는 바로 숨 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근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가발전소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 자가발전소는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는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등이 합쳐서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모두 각자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려면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이 나가고, 모든 점에서 광선 또는 자석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밀치려면 밀치고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모든 용량이 거기에 규합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무명체를 가지고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왜 무명체라고 했을까요? 금이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명체라고 한 것이죠. 실상이 되지 못하고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은 중생이로되 금이 빛나듯이 빛이 난다면 으레 남도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나도 언제나 용량에 따라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自性)의 자가발전소는 꺼진다거나 켜진다거나 하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립니다.

> 진실한 마음, 기대지 않는 마음, 남을 헐뜯지 않는 마음으로
> 남을 증오하고 업신여기고 둘로 보고 이러는 마음이 몰락 없어져야
> 이름하여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이지
> 이것 끄달리고 저것 끄달리고 한대서야 어찌 도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하나 걸리고 가시는데,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무명천이 있다면 환상천이 있고, 환상천이 있다면 삼중천이 있고, 삼중천이 있다면 바로 인천이 있고, 인천이 있다면 도리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다면 도솔천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이름은 각각 일곱 가지의 이름이지마는 '천(天)' 했습니다.

즉, 그것을 알고 보면 동그라미를 일곱 개를 그려 놓고 어떤 것이냐 하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도리천이라고 한 놈이나 환상천이라고 한 놈이나 다 한 놈이 하지마는 그래도 물맛은 물맛대로 나는 것이고, 산 맛은 산 맛대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 맛은 들 맛대로 나고, 맛있는 건 맛있는 거고 맛없는 건 맛없는 거라 이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은 천이로되 둥근 천이며 한마음이며 근본입니다, 전체가.

그러나 '사람은 고정관념으로써 있지 않고 고정 행이 없으니 맛도 천 가지 만 가지 맛이 나네.' 하는 소립니다. 만 가지 맛이 나! 그럼 아까 전력을 용도에 따라서 만 가지를 쓴다고 했죠? 그와 같이 자기 그릇대로의 씀씀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얼마 쓰고, 또 공장에서는 모터를 돌려야 될 테니까 얼마를 쓰고, 용량에 따라 아주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쓸 줄을 모른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 무명천에서 색을 보고 너무 취해. 사랑, 애정, 욕심, 착, 이건 뭐, 하나서부터 열까지 끄달리는 겁니다, 끄달려. 그러니 그걸 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것은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사람이 사는 데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뭘 가지고 삽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요, 돈을 갖지 말랬나요? 사람이 누구나가 다 육신이 자기 실참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용량을 아주 맛있게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했으면 요거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고 또 딴 걸 합니다. 딴 거 할 때, 전력으로 비유를 했으니 계속 전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 스위치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이거를 또 돌립니다. 이거를 돌려서 쓰고 저거를 돌려서 쓸 때,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쓸 때에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을 끕니다. 끄고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또 불을 켜고서 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놓고 가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탑돌이 하는 거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 하고는 돌아서선 딴 거 하면서도, 그거는 놓고 벌써 딴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 이상스러워요. 그것을 알게 돼야 우리가 인천도 환상천에 속해 있지 않고, 환상천도 인천에 속해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방이 탁 터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질문 얼마 전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의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많은 걱정을 한 적이 있는데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변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가시밭도 자갈밭도 아주 험한 진 구덩이도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가끔 눈물이 어립니다. 왜?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옛날에 수억겁 전에 사람 하나 만나기가, 사람 하나 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때에 사람이 몇백 리에서 하나 났으면 또 몇백 리 건너에서 하나 나고, 여기서 나고 저기서 나고 그렇게 수두룩하게 난 게 아니라 백 년에 하나 나기 어려울 만치 그렇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십 년에 하나 나기 어려웠을 때에 사람을, 여자나 남자나 한 번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럴 때에 여자가 남자를 만나고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에, 지금 현재에도 인간뿐만 아니라 저런 벌레들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지금까지 내려와서 형성된 이 인간의 밝힘이 얼마만큼 아팠었나?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까지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이날까지 왔던 거라면 그냥 갈 수는 없죠. 수억겁 전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화돼서 지금 짊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잠재의식 테이프에 살아온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모두 둘이 아니고, 모두가 형제고 부모고 자식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미생물에서부터 말입니다. 그건 뭐, 중간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지금도 피를 흘리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쫓기고 쫓고, 또 우리도 역시 쫓기고 쫓고 밀려나고 이렇게 살아나오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한자리에 지금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이 자리에 태어나서 한 국민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참 정당하게 또 편리하게 화목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껄껄 웃으리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둘이 아닌 그 뜻을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그 잠재의식 테이프에 다 감긴 그것이 착 나오는 대로, 저 스크린 돌아가듯이 나오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처참하게, 나와 더불어 같이 걸어왔나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누구를 보고 그냥 악하게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보고 때릴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지렁이같이 그냥 순해 터진 양처럼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요만한 거 하나, 싸래기 반토막 하나 에누리가 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 가지 맛이 나도록 말입니다. 과일이 만 가지 맛이 난다면 만 가지 향내도 날 것이고 또 무르익는다면 여러분이 전부 말없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제 나무에서 제 과실이 열리게 해서 무르익게 해서, 바로 자기가 맛을 본다면 그 과실 하나에서 맛이 만 가지가 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산에 가면 산 맛이 나고 들에 가면 들 맛이 나고 꽃을 보면 꽃 맛이 나고,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꽃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벌레하고도 얘기하고. 죽은 사람들 전체, 전부와 얘기할 수 있어야 회전이 되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앉아서 뭘 어떻게 하든지 하죠.

그런데 마음이 떠나면 인연이 없다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인연이 있겠습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고, 건질 수 없다고 한 것이, 마음에서 떠나면 인연이 없는 겁니다. 구제가 되지 않고요. 또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우리 반쪽을 사이 좋게 소련과 더불어 나누어 가진 겁니다. '나는 반을 가질 테니 너도 반 가져라.' 무슨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탕 반 조각 쪼개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한다면 대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국내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는 참 처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깨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요령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크면 큰 대로 쓸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쓸 거면 육지에서 쓰고, 공중에서 쓸 거면 공중에서 쓰고, 물에서 쓸 거면 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앉아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그냥 흘려 버리지 마십시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논단

마음대로 살아보기



법장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불교 수행 토대로 삼을 것은 '心'
'심즉시불' 등 마음 중시 표현 多
원효 '일체유심조'도 마음 가르침

마음, 현 상황과 현상 비추는 모습
그래서 마음은 緣起 · 因緣이기도

마음대로 사는 건 인연관계 살피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다음 준비하는 모습이다

불교에는 여러 가르침과 경전들이 있다. 각각이 추구하는 수행의 방침과 방법 또한 여러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불교의 다양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맞는 길을 제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다양함에 의해 불교라는 하나의 종교 속에 서로 다른 수행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이처럼 불교의 다양함 속에서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정답을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보편적으로 삼보(三寶)인 '불, 법, 승'을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의 정의에서 수행의 토대로 삼아야 할 것은 바로 '마음(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상좌부, 대승 등 여러 불교의 교리에는 다양한 사상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불교의 교리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마음이다. 한국불교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가르침이 '심즉시불(心卽是佛)' 바로 '마음이 부처'라는 표현이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창조주이며 절대자인 '신(神)'의 존재를 두고 있지 않다. 천계(天界)에 사는 존재를 '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본래 육도윤회의 하나인 '천(天)'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창조주인 '신'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불교에는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기에 원효 스님이 동굴인 줄 알았던 무덤에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라는 게송을 말하고 마음을 확인하여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다.

'마음을 바로 봅시다',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등 유독 불교에는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많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마음대로 살고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상을 그대로 비추는 모습이다. 그래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한다. 즉, 마음은 나의 매 순간의 모습이며 그것이 생겨난 원인이고, 그것에 의해 나타날 결과이다. 이러한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 연기(緣起), 인연(因緣)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이고 모든 존재에 적용되는 연기법이 바로 마음의 모습이다. 그렇기에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인연관계를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다음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인연은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이다. 앞서 했던 행동, 말, 생각이 원인이 되어 다음으로 이어져 자신에게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을 인과(因果)라고 하는데 자신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자신의 이전 행동에 의해 생겨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다른 이의 탓을 하거나 다른 원인을 찾으려 한다면 어디에서도 그 답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마음에 집착해 있다면 다음 순간에도 이미 지나간 마음만을 붙잡고 있기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매 순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마음은 붙잡아 둘 수 없이 변해간다. 이런 인과와 시간 속에서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미 저 멀리 지나간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고 곧 다가올 자신의 모습을 한 조각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마음에 '내(나)'라는 한 글자를 조금은 지워야 한다. '내 마음'이 아닌 '마음' 그대로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내 주변이 보다 선명해질 것이며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인연의 감사함이 보다 느껴질 것이다. 이때 비로소 마음의 주인이 되어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어느새 한 달이나 지나간 2023년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보시길 바란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집착은 괴로움이다

우리를 괴로움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주변사람들과 사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집착 때문입니다. 즉 괴로움이란 우리가 집착하는 고통입니다.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사물을 대하게 되면 좋다거나 나쁘다는 생각, 또 즐겁다거나 괴롭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집착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물질로부터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 사랑하고 기뻐하며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소유하게 되면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집착한 나머지 물질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물질이 '나의 것'이며 영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물질이 변하거나 달라지면 그 마음도 변하고 달라져 두려움과 번뇌가 생기며, 자꾸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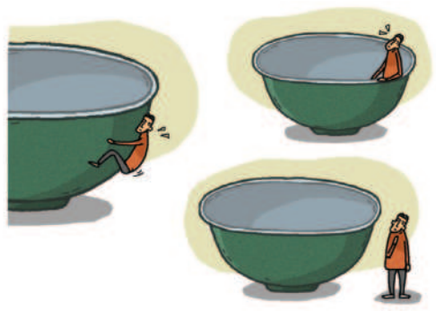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겼던 만큼 괴로움도 컸을 겁니다. 시계, 휴대폰 등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건보다는 집착하는 마음이 상처가 되어 더 괴로워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 집착하거나 근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이 곧 '나'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 사랑하지도 기뻐하지도 않고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물질이 변하거나 달라지더라도 두려움과 번뇌도 없습니다.

물건에 대한 집착은 강한 소유욕을 나타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귀중한 것도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날 수 있음을 알기에 크게 괴로워하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낡고 부서지고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무상(無常)의 법칙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물질이 덧없는 것임을 알고 끝없이 변하는 것을 안다면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은 자신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은 마음을 멍들게 합니다.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와서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집착의 고삐를 놓으면 언제나 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스님 전문 요양병원에 거는 기대

故 각현 스님의 연꽃마을 설립으로 시작돼 2008년 개원, 불교계 대표 요양기관으로 성장한 의료법인 인덕원의 파라밀 요양병원이 조계종이 직접 운영하는 스님 전문 요양병원으로 탈바꿈된다.

인덕원이 1월 30일, 요양병원을 조계종에 아무런 조건 없이 희사하면서 조계종 최초의 스님 전문 요양병원이 탄생한 것이다.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 제도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를 모은다.

종단 직영 요양병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핵심공약이었다. 종단은 당초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성운 스님의 희사로 종단 직영 요양병원을 예상보다 빠르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운영에 나섬에 따라 법인 이사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맡는다. 이사는 총무부장, 기획실장,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추천 스님 등으로 구성됐다. 명칭도 '아미타 불교요양병원'으로 전환된다.

스님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면 최대 198병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종단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요양병원에서 장례와 다비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위한 요양병원 설립은 종단의 숙원과제였다. 때문에 성운 스님의 큰 뜻 덕분에 종단 승려복지가 10년은 앞당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양병원을 통해 스님들이 노후에 승가의 위의를 지키면서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된 승려복지가 제공되고 이를 통해 설립자 각현 스님의 숭고한 정신도 널리 퍼지길 기대한다. 또한 '승려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공동체 안정화'라는 제37대 총무원 핵심 종책사업도 탄력을 받아, 한국불교의 위상도 높아지길 기대한다.

계층포교 활성화 위해 뛰자

한국불교의 신도 연령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다. 노인층이 많고 젊은 층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어린이 · 청소년, 청년 등 계층포교의 붕괴가 가져온 결과물이다. 사실 어린이 · 청소년 포교는 단기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도 꾸준히 투자해야 진성 불자 한 명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활동하는 스님들도 있지만, 그 수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 "미래세대 포교와 전법에 한국불교 중흥이 걸려있다"면서 여러 사업들이 발표되는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불교의 노력들이다. 조계사는 계층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사 어린이 ·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창단한다. 사찰 단위에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창단 · 운영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조계사는 지난해 바이올린 연주자 17명을 선발한데 이어 현악 · 금관 · 목관 · 타악기 연주자 총 42명을 선발해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계획이다. 첫 목표는 가을에 열리는 조계사 국화축제에서 공연하는 것이다.

조계사 인근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명상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점심먹고 명상 어때' 역시 30~40대 직장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한 방편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상월결사는 대학생 전법을 위해 협약을 맺었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조계종 전법단도 분야 전법 활성화에 올 한해 진력키로 했다.

불교계 전반이 '포교 · 전법'을 위해 한 목소리로 움직이는 것은 고무적이다. 불교중흥의 성패는 포교 · 전법에 있음을 알고 전 사부대중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 아제여행사와 함께 하면 다릅니다

현대불교문화사업단
2023 불교국가 투어

행복지수가 높은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화엄경을 재현한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초원의 나라 몽골 5일

희망찬 새해 기운을
부처님 품안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출 발 : 4월 9일~15일
동참금 : 4,390,000원

주요일정
파드마 삼바바 수행동굴 탁상사원 참배
3대쫑(파로,팀푸, 푸나카) 방문
민속공연 관람, 링포체 친견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출 발 : 4월 12일
동참금 : 2,69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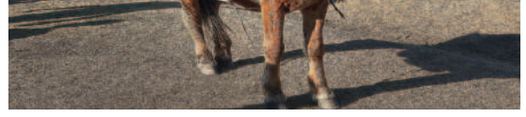
주요일정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방문
보로부두르 대탑 참배
자바섬 주요 불교사원 참배
신들의 섬 발리 휴식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출 발 : 3월 23일
동참금 : 2,690,000원

주요일정
입상·좌상·와상의 길비하라 폴론나누와 참배
세계8대불가사의 바위위의 궁전 시기리아락 방문
스리랑카 아프리카 코끼리 사파리 투어
홍차의 메카 누와라엘리아 체험



초원의나라 몽골 5일

출 발 : 6월 15일
동참금 : 1,390,000원

주요일정
아름다운 국립공원 테를지 관람
목초지 트래킹 밤하늘 별빛 감상
울란바타르 간덴사원 몽골불교체험
몽골전통공연 관람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ajetour.co.kr